

연구보고 2011-19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이윤진 서문희 김선화 박영자

머 리 말

이 과제가 끝날 무렵 북한의 김정일 사망소식을 접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통일이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 연구가 예상보다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종 언론매체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정세, 남북한의 외교,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지를 앞 다퉈 다루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관심사는 이처럼 거시담론에 편중되어 있어서,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과 같은 미시적인 이야기는 중요도에서 밀려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정체성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주로 형성(때로는 결정)된다는 많은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체제뿐 아니라 북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발달하는 지를 파악하는 미시적 연구도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북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문헌연구 고찰에 그쳐있으며 1990년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양육에 미친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세대별 양육의 변화와 특히, 1990년대 북한의 영유아 양육 실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한 본 연구는 의의가 적지 않다.

이처럼 귀중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북한이탈주민분들과 북한 양육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북한연구 전문가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자녀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양육관, 양육실태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데 있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 악화라는 사회변화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및 실제 탁아소·유치원의 이용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북한의 양육제도 및 실태, 양육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양육 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의 격차는 줄이고 공통점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우리 정부가 발간하는 공식문서(예: 통계청의 북한관련 통계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이해」 등), 북한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들(예: 유치원 교과서, 조선녀성, 조선중앙년감, 노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및 김정일 선일, 법령 등), UN이나 UNICEF 등 세계기구에서 발간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설문조사

-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구조화된 질문지로 면접조사 실시, 199명 응답함(유효표본).
 - 60대 이상 37.7%, 50대 17.6%, 40대 30.2%, 30대 이하 14.6%
- 설문조사 항목은 응답자(부모)의 일반특성 및 탁아소·유치원 이용 경험, 북한에서 출산·양육한 자녀특성 및 자녀의 탁아소·유치원의 이용 경험, 양육관 및

양육실태, 남북한 영유아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표 1〉 설문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북한에서 출산·양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2) 표본크기	199개(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
4) 조사방법	면접조사
5) 조사기간	2011년 9월 28일 ~ 10월 19일
6)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심층면담조사

- － 북한에서의 자녀출산 및 양육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실시
 - 연령, 출신지역, 학력, 직업, 탈북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피면담자를 선정하고자 함.

○ 전문가 정책자문회의

- －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설문지, 정책방안 등 부문에서 자문 받음.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북한이탈주민의 면담내용이 북한 전체의 양육실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면담대상자를 가급적 출신지역·연령·학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려고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함경북도 등 국경선 일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북한의 특정 지역의 양육 실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2. 연구 내용

□ 문헌연구 주요 연구결과

- 일찍이(1975년 9월 1일부터 실시) 북한은 의무·무상교육은 총 11년을 완비(현

재 우리나라 9년)

-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 북한의 양육이념

- 초기에는 레닌의 부인 크롭스카야(Krupskaia)의 ‘어머니-노동자 모델’이념을 수용
 - 양육은 미래의 노동자이며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고, 학교와 가정은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공간이며 양육은 여성의 역할임.
- 1970년대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부터는 김일성의 교시를 근간으로 양육이념을 재설정함.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어린이보육교양법 제5조)

○ 북한의 양육 관련 법령

- 사회주의헌법, 노동법, 가족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양육 지원 관련 조항 분석
- 인민보건법, 탁아소에 관한 규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자녀 양육 관련 조항 분석
- 2010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분석
 - 북한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 향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임.

○ 탁아소·유치원 제도

- 1960년대까지가 양적 확충을 꾀하는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 확정,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제정 등으로 탁아소·유치원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1970년대 이러한 법·제도 구축을 통해 1980년대까지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함.
- 1990년에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와 김정일의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를 높이 받들면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고조됨.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신뢰성있는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탁아소

와 유치원의 운영체제는 붕괴된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설문조사 주요 연구결과

○ 자녀양육관

-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다’ 3.40점(4점 척도),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2.30점으로 북한 부모들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을 가치있는 일이며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자녀는 부모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정서적 가치) 3.49점, ‘자녀가 있어서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구적 가치) 2.96점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에서는 정서적 가치가 도구적 가치보다 높았음.
-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2.92점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면담조사를 통해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거의 퇴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으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력으로 키우기’ 3.65점, ‘숫자와 글자 익히기’ 3.53점으로 건강하고 공부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가장 희망하였음.
- 자녀가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 질문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3.68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3.42점 순으로 응답함.
 -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항목 1개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는 ‘명성있거나 유명한 사람’을 가장 많이 꼽음.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양육태도

-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차원적 척도로 양육태도를 파악한 결과, 거부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강하게 나타난 반면, 통제와 자율에서는 분명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음.

○ 양육신념

-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61.8%, ‘3세까지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67.3%로 자녀양육에 있어 보수적인 양육신념을 보임.

- 버릇없이 굴 때는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쳐야 한다는 엄격한 훈육을 선호했으며, 개인 중심의 가치보다는 집단 중심의 가치를 훨씬 더 중시했고, 명문대 진학보다는 자녀의 자질을 키우는 것을 더 중시함. 응답자의 86.4%가 양육책임은 국가와 부모의 공동 몫이라고 응답함.
-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3.42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움' 2.43점으로 긍정적 정서가 더 높게 나옴.
- 자녀양육 시 부부 간 양육분담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하원시키기'만 부인부담이고 '밥먹고 옷입히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공부 돌봐주기' 등 대부분은 부부공동분담이 가장 많았음.
- 그러나 면담조사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 사례가 많지 않았음.

○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실태

- **부모세대**(응답자)에서 탁아소를 다닌 적이 '없다' 53.8%로 '있다' 46.2%보다 많음. 그러나 젊은 부모세대일수록 '있다'가 더 많았음.
- 탁아소를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 만 2.68세
- **부모세대**(응답자)에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다' 57.8%로 '없다' 42.2%보다 많음. 젊은 부모세대일수록 '있다'의 비율이 높음(40대 유치원 경험 있다가 83.3%).
-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 만 5.91세
- **자녀세대**의 탁아소 다닌 경험은 '있다' 76.5%, '없다' 23.5%로 부모세대와는 정반대로 대부분 탁아소를 다닌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없음'이 67.7%로 훨씬 많음.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으로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 탁아소 미이용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58.9%, 탁아소 미운영 20.0%, 자녀사망 7.4% 순임. 특히, 자녀사망은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14.3%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 역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어려운 실정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탁아소를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 만 1.52세
- 탁아소 등하원 시간: 평균 등원 7.85시, 하원 5.70시

- 탁아소 이용 월평균 비용: 없음 96.8%. 그러나 최근에 탈북한 이탈주민 면담 조사에서 2000년 이후에는 급간식 제공이 끊겼기 때문에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우며 부모에게 운영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자녀세대의 유치원 다닌 경험**은 ‘있다’ 82.6%, ‘없다’ 16.7%임. 그러나 부모 30대 이하에서는 ‘있다’ 29.0% ‘없다’ 71.0%로 정반대임.
 - 유치원 미이용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42.6%, 유치원 미운영 16.2%, 비용부담 11.8%, 자녀사망 11.8% 순임. 특히,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 비용 부담과 자녀사망의 이유를 응답한 사례가 많았음.
 -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 만 5.45세
 - 유치원 등하원 도보시간(편도): 북한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 10분 이내가 69.6%로 가장 많았으나, 20~30분도 26.0%로 적지 않았음.
 - 유치원 등하원 시간: 평균 등원 8.28시, 하원 5.40시
 - 유치원 이용 월평균 비용: 없음 92.7%.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식비 및 난방비 지원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탁아소와 유치원의 보육교양 내용은 철저한 김일성 부자의 충실성 교육임. 자녀양육 방법, 기술, 태도 등의 부모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음.
- **북한의 가정내 양육실태**
 - 부모세대는 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72.2%였지만, 자녀세대는 병원에서 출산이 52.8%로 집보다 더 많았음.
 -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1.0%임. 그러나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어머니 양육이 79.3%로 떨어지고 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이 10.3%로 증가된 특징을 보였는데 이 역시,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나가면서 파생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예방접종은 무상이며 수유는 거의 대부분이 모유로 함. 분유수유를 한 경우는 면담조사에서 단 1사례만 나옴.
 -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의례히 해 줌.
 - 북한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먹어보지 못했으며, 외국만화영화, 컴퓨터 게임 역시 거의 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가족과의 소풍, 여행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자녀에게 장난감과 동화책을 사준

사례도 많지 않았음.

- 사교육은 한 적이 없음이 97.3%로 응답함. 그러나 면담조사에서 일부 사교육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음. 북한에서 사교육은 피아노, 손풍금과 같은 악기 익히기와 태권도 등의 체육을 주로 하며 월평균 비용은 일반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통일 대비 남북한 양육 정책에 관한 시사점

□ 통일 대비 남북한 양육 관련 시사점

- 자본주의 체제의 남한과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자녀양육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북한은 국가 책임하의 무상, 의무교육과 자녀양육지원을 해왔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이러한 제도가 붕괴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사회주의 체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정부패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음.
 - 가장 극단적인 예로 월급이 2천원인데 손풍금 배우는 사교육비는 10만원임.
-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탁아소와 유치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함. 식량공급이 줄거나 끊기면서 도시락을 집에서 싸갖고 와야만 하며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난방비도 부모가 지불해야만 함.
 - 대조적으로 우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상지원 혜택의 폭이 확대되고 금액은 증가됨.
- 북한의 어린이는 결핍과 빈곤 속에서 성장하는 반면, 우리 영유아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함.
 - 영양실조가 심해지면서 남북한 어린이의 신체적 격차가 커지고 있음.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대북어린이 인도적 지원 사업은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우리 영유아들은 외국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성장하지만, 북한 영유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함. 남북한 영유아가 경험하는 양육문화가 매우 이질적이라 성향이나 기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전통문화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공통점은 찾아서 키우고, 차이점은 점차 줄여나가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 이를 위해 남북한 어린이가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남북한 합작 교육프로젝트를 개발(예: 남북한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요, 체조, 동화책 등)하거나 매년 특정한 날을 정하여 남북한 어린이의 상호방문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모색을 제안함.
- － 현재 남북한의 어린이날이 5월 1일, 6월 1일로 다른데 동일한 날로 정하여 남북한 영유아가 공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점차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9
5. 선행연구 고찰	10
II. 북한 양육에 관한 이해	18
1. 북한사회 개괄	18
2. 북한의 양육이념	23
3. 북한의 양육 관련 법령	26
4.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제도	42
5. 북한의 영유아 인구 특성	47
6. 소결	49
III. 북한의 자녀양육관	51
1. 응답자 특성	51
2. 결혼·출산관 및 자녀 기대	55
3. 양육태도	66
4. 양육신념	70
5. 양육분담	74
6. 북한 부모가 본 남한어린이 성향	79
7. 소결	83
IV.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이용 및 운영 실태	85
1. 1990년대 이전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	85
2. 1990년대 이후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	89
3. 탁아소·유치원의 운영실태: 보육교양 중심으로	108

4. 보육원·교양원 양성 및 재교육	116
5. 소결	118
V. 북한의 가정내 양육 실태	120
1. 주양육자	120
2. 식생활	123
3. 영유아기의 기타 경험들	125
4. 사교육	128
5. 양육비용	132
6. 소결	133
VI. 통일대비 남북한 양육정책에 관한 시사점	135
1. 연구요약: 남북한 비교 분석	135
2. 통독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41
3. 통일대비 양육정책에 관한 제언	143
참고문헌	147
부록	151
부록 1. 북한의 정치체제	153
부록 2. 어린이 보육교양법	154
부록 3. 설문지	164
부록 4. 면담지	176

표 차례

<표 I-3-1> 설문조사 방법	2
<표 I-3-2> 설문내용	5
<표 I-3-3>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7
<표 I-3-4> 면담내용	8
<표 I-3-5> 통독사례조사	9
<표 II-1-1> 북한 주민의 성분 분류	21
<표 II-1-2>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천	22
<표 II-3-1> 탁아소 종사자와 정원에 따른 배치 인원	35
<표 II-4-2> 북한 탁아소 반 편성	47
<표 II-4-3> 북한 유치원 반 편성	47
<표 II-5-1> 북한의 출산율	47
<표 II-5-2> 북한의 영아사망율	48
<표 II-5-3> 북한 지역별 영유아 영양상태 분포도(2002년)	49
<표 III-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2
<표 III-1-2>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 수준	53
<표 III-1-3>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54
<표 III-2-1> 결혼과 자녀갓기에 대한 생각	55
<표 III-2-2> 결혼과 자녀갓기에 대한 생각: 변인별	56
<표 III-2-3> 자녀에 대한 가치	58
<표 III-2-4> 자녀에 대한 가치: 변인별	58
<표 III-2-5> 남아선호에 대한 생각	59
<표 III-2-6> 남아선호에 대한 생각: 변인별	60
<표 III-2-7> 자녀양육시 중시했던 덕목	62
<표 III-2-8> 자녀양육시 중시했던 덕목: 변인별	62
<표 III-2-9>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64
<표 III-2-10>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변인별	65
<표 III-3-1> 양육자의 양육태도	66
<표 III-3-2> 양육자의 양육태도: 수용과 거부	67

<표 III-3-3> 양육자의 양육태도: 자율과 통제	68
<표 III-4-1> 자녀양육관	71
<표 III-4-2> 자녀 양육시 느꼈던 정서	72
<표 III-4-3> 자녀 양육시 정서	73
<표 III-5-1>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74
<표 III-5-2>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변인별	75
<표 III-5-3>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생각	76
<표 III-5-4>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생각: 변인별	78
<표 III-5-5>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79
<표 III-6-1> 남북한 어린이의 일반적 성향	79
<표 III-6-2> 남북한 어린이 가장 큰 차이점	80
<표 III-6-3> 남북한 어린이 가장 큰 공통점	81
<표 III-6-4> 남북한 어린이가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는 교육활동	82
<표 IV-1-1> 탁아소 다닌 경험 여부: 부모	86
<표 IV-1-2> 탁아소 다닌 연령: 부모	87
<표 IV-1-3> 유치원 다닌 경험: 부모	88
<표 IV-1-4> 유치원 다닌 연령: 부모	88
<표 IV-2-1> 자녀 특성	90
<표 IV-2-2> 자녀의 탁아소 다닌 경험	91
<표 IV-2-3> 자녀의 탁아소 미이용 이유	93
<표 IV-2-4> 자녀가 탁아소 다닌 연령	95
<표 IV-2-5> 자녀가 이용한 탁아소 유형	97
<표 IV-2-6> 자녀의 탁아소 등하원 시간	98
<표 IV-2-7> 자녀의 탁아소 월평균 비용	99
<표 IV-2-8> 자녀의 유치원 이용 경험	101
<표 IV-2-9> 자녀의 유치원 미이용 이유	102
<표 IV-2-10> 자녀가 유치원 다닌 연령	103
<표 IV-2-11> 집에서 유치원까지 도보 거리	103
<표 IV-2-12>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 시간	106
<표 IV-2-13> 자녀가 다닌 유치원 월평균 비용	106
<표 IV-3-1> 북한 탁아소 하루일과	109

<표 IV-3-2>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	110
<표 IV-3-3> 북한유치원 하루 일과	112
<표 IV-3-4> 유치원 교수방법 사례	115
<표 IV-4-1> 탁아소·유치원 교원양성 및 재교육체계	118
<표 V-1-1> 북한에서 출생장소: 부모	120
<표 V-1-2> 북한에서 주양육자: 부모	122
<표 V-4-1> 자녀가 사교육 받은 정도	129
<표 V-4-2> 사교육 월평균 비용	130
<표 V-4-3> 자녀가 받은 사교육의 종류(복수응답)	131

그림 차례

[그림 II-1-1] 남북한 경제활동참가율(1991~2009)	20
[그림 II-1-2] 북한의 학제	23
[그림 III-4-1] 북한 교육행정체계	46
[그림 IV-3-1] 유치원교과서(우리말)의 이념교육	111
[그림 IV-3-2] 유치원교과서(셈하기)의 이념교육	11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이후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남한)이, 북쪽에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표방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이 들어섰다. 이처럼 남북한은 상이한 통치이념과 이를 전제로 제(諸) 제도들이 구축되었고, 이산가족상봉, 대북지원사업 등 극히 제한된 상호교류만 허락되는 상황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남북한의 이질성은 고착화되어갔다. 북한이 고립된 자기방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남한 역시 여전히 반공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한, 서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질성의 고착화보다, 이질성의 정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왜 다른지를 남북한이 한 자리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본 경험이나 남북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연구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¹⁾ 남북한의 학문적 교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자녀양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북한의 영유아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지, 북한 부모들의 자녀양육가치관은 어떠한지, 유치원과 탁아소의 실제 운영상황은 어떠한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전의 북한 연구들은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여 남북한의 다름, 차이에 근거하여 남북한의 양육 또는 취학전 교육의 제도, 프로그램(교육과정), 교사양성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²⁾ 그러나 문헌연구방법의 핵심

1) 영유아를 주제로 남북한이 공동개최한 학술세미나는 2002년 5월 30일~6월 1일 중국 연변 대학교에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이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토론회가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인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북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진일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면서 북한의 자녀양육이나 교육실태를 밝히는 연구들(장명립, 2009; 한만길, 2006; 허수경, 2010)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초점을 둔 연구들(김선화, 2004, 2008, 2009, 2010; 이금순, 2010; 허선행, 2010; 박정란, 2010)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일례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09년도에 남한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북한이탈주민 부모 167명을 대상으로 육아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장명립 외, 2009). 남북한의 자녀양육관을 묻는 항목에서 북한은 '권위적(엄격한) 양육방식'을(75.4%), 남한은 '허용적 양육방식'을(48.5%) 가장 많이 꼽았던 반면, 정작 본인의 양육방식은 '민주적 양육방식'(40.1%)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었다.³⁾ 이는 문헌연구 방법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연구결과이다. 남북한 자녀양육관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데 같은 민족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자녀양육관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60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이한 자녀양육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인권 등 기본권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990년대 식량난, 경제난의 최대 피해자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와 여성이라는 연구(우선균, 1997; 윤지현 외, 2008)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영유아는 만연된 빈곤과 결핍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어린이들은 남한과는 다른 양육관 및 양육제도 속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남한의 어린이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듯하다.

남북한 어린이들 모두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들이다. 통일의 주역인 남북한 영유아들이 실제로 어렸을 때 어떠한 양육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지를 파

2) I 절 5장 선행연구 고찰 참조

3) 바움린드(Baumrind)의 4가지 부모유형 이론에 따르면, 엄격한 통제와 설정해 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authoritative) 양육방식'으로, 애정표현을 자주하고 될 수 있으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고 통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은 '허용적 양육방식'으로, 아동과 인격적 대화를 하며 아동이 결정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권위적(authoritarian) 양육방식', 그리고 아동의 모든 문제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아동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무관심한 양육방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악하는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는 영유아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구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양육관, 양육실태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 악화라는 사회변화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및 실제 탁아소·유치원의 이용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세대별 변화에 따른 북한의 양육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기초로 양육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키우고, 상이한 점들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양육제도와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북한의 정치, 경제, 행정, 사회, 교육 체계 등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헌법을 포함하여 양육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본다. 최근 북한의 영유아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UN에 제출한 인권보고서 및 세계기구에 제출한 아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북한 아동 실상을 파악하였다.

둘째, 북한의 양육이념과 양육제도를 고찰한다. 북한의 양육이념의 기원과 변천, 해방이후 각 시기별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과정, 탁아소·유치원의 제도 변화과정을 검토한다. 대표적인 제도권 양육지원기관인 탁아소·유치원의 운영체계, 보육교양과정, 교원양성제도 등을 고찰하고, 남한의 보육시설·유치원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의 실제 자녀양육관을 파악한다. 결혼관, 자녀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시했던 양육내용들, 양육태도, 양육시 경험한 정서의 내용들, 남편과의 양육분담 정도, 남녀평등의 성 역할 정도 등을 알아본다. 소결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의 자녀양육관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북한의 실제 양육실태를 파악하였다. 출산장소, 모유수유 여부, 사용한 기저귀의 종류 등 아주 미시적인 양육내용에서부터 가정내 김일성 부자의 충실성 교육 정도, 유치원과 탁아소의 이용 경험 여부, 이용시간, 시설·설비, 이용비

용 및 교원양성 및 인건비 등 가정내 양육실태와 탁아소·유치원내 양육실태 모두를 조사하였다. 마찬가지로 소결에서 남한의 영유아 정책과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섯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영유아 관련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에 대비하여 단계별 육아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우선, 우리 정부가 발간하는 공식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북한관련 통계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이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자료들이 주요 문헌자료들이다. 둘째, 북한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한다. 유치원 교과서, 조선녀성, 조선중앙년감, 노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및 김정일 선일, 법령 등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셋째, UN이나 UNICEF 등 세계기구에서 발간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끝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나. 설문조사

1) 목적

북한에서는 가정·사회·국가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아이를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방법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아이를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구조화된 질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표 1-3-1〉 설문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북한에서 출산·양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2) 표본크기	199개(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의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
4) 조사방법	면접조사
5) 조사기간	2011년 9월 28일 ~ 10월 19일
6)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내용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북한에서의 탁아소·유치원 이용 경험, 북한에서 출산한 자녀특성 및 자녀의 탁아소·유치원의 이용 경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양육방식, 남북한 영유아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들은 다음 <표 1-3-2>와 같다.

〈표 1-3-2〉 설문내용

조사항목	세부항목
일반특성 및 북한에서의 양육경험	· 결혼년도, 연령, 탈북·입국시기, 제3국 체류경험, ·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근로수입(화폐개혁 이후 수입) · 출생장소, 주양육자, 탁아소 경험여부, 탁아소 입소연령 · 유치원 경험여부, 유치원 입학연령, · 남한에서의 생활 실태(직업, 가구수입,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북한에서 출산한 자녀 특성	· 총 자녀 수, 연령, 성별, 출산장소 · 입국시기, 자녀 입국시 어머니 동반 여부, 주양육자 · 탁아소 이용여부, 미이용 이유, 이용시간, 비용 등 · 유치원 이용여부, 미이용 이유, 이용시간, 비용 등 · 사교육 이용 여부, 종류, 비용 등

(표 I-3-2 계속)

조사항목	세부항목
자녀 양육관 및 양육실제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들 · 자녀의 장래에 대해 기대 정도 · 자녀양육관(자녀가치, 자녀기대, 양육신념) · 자녀양육태도 ·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간 분담정도, 가사분담 정도 · 부부 성별에 따른 역할 · 자녀 양육태도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남북한 영유아의 차이점과 공통점	· 남북한 영유아의 일반적 성향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영유아가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는 교육과정(교육활동) · 통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양육지원정책방안 등

다. 심층면담조사

1) 목적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 심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대상자와 동일한 북한에서의 자녀출산 및 양육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단, 사례번호 6 제외; <표 I-3-3>참조). 북한이탈주민 면담대상 선정시, 연령, 출신지역, 학력, 직업, 탈북시기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양한 면담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⁴⁾

또한,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30명의 피면담자를 선정시, 탁아소와 유치원의 교양원, 소장, 원장 및 담당 공무원 출신의 탈북민도 포함하였다.

4)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이 30~40대 여성, 중졸, 함경북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표본추출의 어려움이 많다.

〈표 1-3-3〉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사 례 번 호	출생 년도	성 별	출 생 지	자 녀 수	탈 북 일	입 국 일	북한 학력	북한 직업	남한 직업
1	1970	여	함북	1	1998	2001	전문학교	사무직	사무직
2	1965	여	함북	2	2002	2002	대학교	사무직	연구직
3	1969	여	함북	1	2010	2010	교원대학	교양원	무직
4	1966	여	함북	1	2010	2010	대학교	장사	무직
5	1950	여	함북	2	2009	2010	전문학교	재봉	무직
6	1985	남	량강도	0	2010	2010	대학교	교원	무직
7	1976	여	함북	2	2010	2010	대학교	교원	무직
8	1979	여	함북	1	2009	2009	전문학교	주부	일용직
9	1966	여	평북	2	2003	2007	중학교	단순노무	식당
10	1963	여	함북	2	2003	2010	교원대학	교양원	식당
11	1971	여	개성	1	2005	2008	고등중학교	장사	무직
12	1942	여	함북	2	2009	2009	고등중학교	장사	무직
13	1971	여	개성	1	1998	2007	전문학교	장사	사무직
14	1966	남	함북	1	2008	2009	대학교	공무원	사무직
15	1936	남	중국	4	2003	2007	대학교	교원	무직
16	1938	여	함북	2	2005	2006	대학교	교원	무직
17	1943	여	함북	6	1999	2008	전문학교	교양원	무직
18	1977	여	함북	1	2010	2011	대학교	의사	무직
19	1944	여	황해도	6	2008	2009	대학교	교양원	무직
20	1970	남	함북	1	2010	2011	대학교	공무원	무직
21	1975	여	양강도	2	2011	2011	교원대학	주부	무직
22	1983	여	함북	1	2011	2011	고등중학교	주부	무직
23	1962	여	함북	2	2006	2011	고등중학교	주부	무직
24	1970	여	함북	2	2010	2011	고등중학교	주부	무직
25	1967	여	평안도	2	2011	2011	상업전문학교	기술직	일용직
26	1970	여	함북	2	2005	2010	고등중학교	단순노무	무직
27	1972	여	양강도	2	2010	2010	전문학교	주부	무직
28	1970	여	함북	2	1998	2007	고등중학교	주부	무직
29	1974	여	양강도	2	2010	2010	고등중학교	주부	무직
30	1982	여	함북	1	2004	2009	교원대학	교양원	‘무직

2) 내용

면담조사의 질문항목은 다음 <표 1-3-4>와 같다.

<표 1-3-4> 면담내용

구분	질문내용
자녀가치관	· 결혼관, 출산관, 이상 자녀수, 남아선호사상
남녀평등 실제	· 자녀양육의 실제, 직장에서의 수유시간 준수, 결혼 후 가족형태(핵가족, 대가족) 등
출산과 양육	· 자녀출산 장소 및 방법(자연분만·제왕절개), 수유방법(모유·분유),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와 비용, 사용한 기저귀 종류·비용(천·1회용), 100일 및 돌잔치 실시 등 · 동화책·장난감 구입 여부, 놀이문화, 가족여행, 영화관람, 유흥시설 이용 등 · 주식·간식의 종류 · 월평균 양육비용 정도
자녀에 대한 기대	· 가정에서 김일성부자 충실성 교육실시 여부 ·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직업 · 북한에서 좋은 대학의 의미 · 북한에서 자녀의 경제적 지원 시기연한
일하는 여성의 양육지원 정도	· 출산후 직장생활 지속 여부 · 산전산후휴가제 실제 이용 여부 · 탁아소 이용 시 국가의 실제 비용지원 정도 · 탁아소 이용 실태(탁아소 종류, 운영시간, 급간식, 보육내용 등)
유치원 이용 실태	· 유치원 이용 여부, 기관명, 미이용시 이유 · 유치원 1년 의무교육의 실제 · 유치원의 이용 실태(재원아수, 비용, 운영시간, 교육내용, 급간식, 부모교육 등)
조기교육 실태	· 사교육 경험 정도, 종류, 비용, 학원 유무 등 · 선행학습의 유무 등
남북한 양육의 가장 큰 차이점	·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운영 측면 · 부모의 자녀양육관, 양육실제 등

라. 통독사례조사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했던 통독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베를린을 방문하여 유치원 원장과 담당 공무원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일자과 피면담자는 다음과 같다.

〈표 1-3-5〉 통독사례조사

일자	방문기관	면담조사 대상자
10월 20일	베를린(구 동독지역) "KINDERGÄRTEN CITY" Eigenbetrieb 유치원	Jörg Mahrin 원장
10월 21일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Philipp Laurenz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담당공무원

마. 전문가 자문회의

북한연구의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초기단계에서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면담조사지와 설문조사지는 북한출신의 학자로부터 내용검토를 받았다. 또한 본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소개하는 등 연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4. 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양육이란 공간적 구분에 따라 탁아소·유치원의 기관내 양육과 가정내 양육(결혼·출산 포함)으로 나뉜다. 양 공간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양육이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양육관이란 용어는 김은설·최혜선(2008)의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관을 차용한다. 이 연구에서의 양육관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모의 가치관으로서, 자녀가치, 자녀기대, 양육신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북한이탈주민의 면담내용이 북한 전체의 양육실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면담대상자를 가급적 출신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려고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함경북도 등 국경선 일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특정 지역의 양육 실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설문지 응답이나 면담내용이 기억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⁵⁾

5. 선행연구 고찰

가. 1990년대 연구

1) 남북한 영유아 보육·교육 비교 연구

김경숙(1995)은 남·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해 유치원 교육 과정에 관련된 문헌, 관계법령,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유치원 현황, 유아교육의 목적, 교육제도, 내용을 고찰하였다. 남한의 유아교육목표 및 내용은 어린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 성장, 발달을 도와 개인의 행복과 상호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유아의 심신발달과 인지·언어능력의 균형적 발달을 위해 유아의 흥미, 생활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은 어린이를 주체사상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고,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부담에서 해방시켜 노동력 동원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교육목표와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와 어린이들에게 대남·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집단주의 훈련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김옥경(1996)은 남·북한의 유아교육과정 발전사에 대해 각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남한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크게 이원적 법률체계이나 북한은 어린이보육양육법을 적용하는 일원적 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 남한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여 발전된 반면 북한은 국가와 사회중심 체계로 발달했다는 점, 남한의 정책수립과정은 법률,

5) 그러나 노령의 북한이탈주민 면담조사에서 특정 사건의 일시, 장소, 상황 등을 또렷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영향을 미쳐왔으나, 북한은 통치자의 교시와 연설 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 등을 규명하였다. 통일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양옥승(1996)은 통일에 대비한 보육제도 구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문헌조사, 사례연구,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남북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국가의 공통점은 대상연령이 많아지면 대집단 활동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교육적 노력이 부족하며,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적 교수방법과 수렴적 질문이 일반화되어 있고, 문자지도, 셈하기 지도가 강조되고 있고, 놀이시설 및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연령에 따라 반 크기가 조정되는 점의 공통점을 규명하였다. 차이점으로는 교육목표, 내용, 방법에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고 결론내렸다.

임재택(1996)은 남북한의 상이한 유아교사 양성교육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유아교사의 자격, 역할 및 자질은 물론 양성교육과 연수교육도 서로 차이를 밝혔다. 향후 통일 후에 교사 명칭, 종별, 자격, 인식, 처우, 수급상황 등은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지만 역할, 자질, 양성교육, 연수교육 등은 통합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과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성애 외(1999)의 연구는 유치원 교육의 변천과정, 대상 및 예산 지원, 유치원 교육내용, 유치원 교육방법, 유치원 교원 양성 제도, 유치원 교원 재교육 제도를 문헌과 통일관련 연구원 및 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앞선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의 교육에서만이라도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유치원에서 경험하게 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발달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2) 북한 영유아보육·교육 연구

양옥승 외(1995)는 북한의 보육체계에 대한 분석을 영유아 보육 이념, 보육현황, 보육지원정책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 현재(1995년) 남한과 북한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포함시켜 문헌 조사하였다. 북한의 영유아보육정책은 정권 초기에 맑스·레닌주의 이념을 교육이념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

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보육체계는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유치원(4세,5세)과 보건부에서 관할하는 탁아소(1개월~3세이하)로 이원화 되어 있고, 교원양성은 유치원 교사는 3년제의 교원대학출신 중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탁아소 교사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여성 중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임명이 되고 있다. 보육 기관의 재정은 중앙 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탁아소 재정 형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승(1997)은 북한의 유아교육의 변천사를 총5기에 걸쳐 서술하였는데, 제1기는 1945-1953년 마르크스·레닌사상의 도입, 제2기는 1953-1970년 유아교육기관의 확대, 제3기 1971-1976년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실시, 제4기 1976-1993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제5기 1993-현재 김일성부자 우상화교육 심화로 변화되어 옴을 알 수 있었다. 김명남(1999)은 북한 뿐 만 아니라 남·북한의 유아교육의 개념과 변천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남한의 유아교육 변천사는 제1기 1922-1979년 유치원 교육과정 모방기, 제2기 1979-1992년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기, 제3기 1992-현재 유치원 교육과정 확립기로 나누었다. 북한의 변천사의 앞서 선행연구와 같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질적 수준에서 극복해야 할 점이 많고, 둘째, 민주주의적 토론방법과 공산주의 비판의식을 확립시키는 교육이 전무하며, 셋째,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의 문제점은 첫째, 경직화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 자발성을 신장시키는데 역효과를 주고, 둘째, 정치사상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셋째, 집단주의 교육과 개인의 성취욕구를 억제하고, 넷째, 교육기회의 확대정책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들 수 있겠다.

최민수(1996)의 연구에서는 북한사회의 유치원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귀순한 유치원 교양원 출신 여금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뤄진 귀순자 면담을 중심으로 하였다.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정치사상교육(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과 지적교육(우리말, 셈세기, 관찰), 정서교육(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교육, 기타(놀이)로 편제되어 있고, 각각의 비율은 정치사상은 13%, 지적교육은 23%, 정서교육 31%, 체육교육 13%, 기타 20%로 되어있다. 연구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의 취학전교육 내용은 정치사상교양과 결합되어 있고, 교육 내용은 매우 획일화 되어 있어서 영유아기 때부터 김일성 부

자에 대한 흥미와 존경심을 유발시키고,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린이의 지시에 잘 따르고, 순종을 잘하는 수동적인 어린이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서로의 장점은 살려 어린이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 시키는 동시에 극기와 공동체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북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탈조건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반공교육 내용에서 통일대비교육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박재환(1999)은 남북한의 이질화 실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배경과 북한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사상교양과 지적교육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북한의 교육과정 배경에서는 정권 초기에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기초가 되었으나 현재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당과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나아가 혁명임무를 완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교육내용 중 정치사상교양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 기본을 두고 있고, 어린이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공산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주입시켜 어릴 때부터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시 되는 교육이 지적교육영역으로 우리말, 셈세기를 통해 인민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겠다.

나. 2000년대 연구

1) 남북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 비교 연구

성영혜 외(2001)의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 및 목적, 보육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교원양성과정,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통일관련 공무원, 연구소 연구원, 귀순자들과 면담과 자문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유지에 힘썼다. 연구 결과 남북한은 보육제도가 갖는 이념적 차이로 보육내용이나 관련 종사자 양성과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념적 차이는 그동안 양국의 보육제도 변화발전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오늘날의 제도적 차이를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장애아동의 대한 특수한 욕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 및 북한연구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본 북한의 보육시설에는 장애아동이 없었다. 더욱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동이 가정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상(2001)은 북한 유아교육의 교육이념, 학제, 교육과정, 교원양성의 현실을 문헌연구를 통해 조명해보았는데, 그 결과 앞선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함정은 외(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체육교육에 관한 남·북한 비교 연구로 남북한 교육이념, 학제, 유치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및 내용, 유아체육교육을 살펴보았다. 유아체육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은 앞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졌으므로 이 개념만을 살펴보면, 남한은 건강생활영역과 표현생활영역의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동작운동, 신체적성활동, 무용 및 리듬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은 주로 집단교육에 필요한 동작교육을 실시하거나 전쟁놀이와 관련된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보행 및 육상, 체조 및 무용, 기구운동 등이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1년간의 과정으로 분산하여 조직되어 있고 단계에 따라 2~13회로 구성되어 있다.

장명림 외(2009, 2010) 연구는 취약계층의 일환으로 영유아 자녀가(미취학 아동 포함) 있는 북한이탈주민 167명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과 아동의 특성, 양육실태 및 정책적 요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녀양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들 가정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에서의 학력과 직업, 탈북시기, 제3국 체류경험, 부모의 북한에서의 탁아소·유치원 경험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설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88.6%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일용직인 경우가 부모 모두 가장 많았다. 현재 자녀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재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68.5%이며 이용 기관으로는 보육시설이 9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하루 이용 시간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57.4%로 가장 많았는데, 특이한 것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동일 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취업모 33.3%, 비취업모 60.0%). 희망하는 육아지원서비스로는 양육비 보조가 62.3%로 가장 많았고, 교육프로그램지원 10.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허수경(2010) 연구는 북한출신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남한 적응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에 주목하여, 첫째, 북한체제의 교육담론과 실제 자녀교육경험은 무엇인지 둘째, 남한의 교육문화는 북한과 어떻게 다르고, 남한의 자녀교육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셋째,

북한출신 부모들은 상이한 남북한 교육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며 남한에서의 자녀교육 전략과 한계는 무엇이지 등을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여 북한출신 부모 10 사례를 심층인터뷰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북한에서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먹을알'이 있는 직업을 잡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데, 남한에서도 이러한 자녀양육관을 갖으면서 집단주의 가치관에 의해 순종과 자립을 여전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에게 공부와 함께 부지런함과 현명함, 예절에 대한 태도를 강조한다. 또한 남한사회의 편입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공적 영역의 일부였던 어머니의 일상생활이 부모역할을 확대시켜 그 책임이 가중되면서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 있다.

2) 북한 영유아 보육·교육 연구

곽노의 외(2006)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의무제도와 보육제도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교육은 정권 창건과 함께 강조되어왔고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으로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 1975년 9월 1일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하였고, 5세아의 유치원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북한은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인 새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1976년 4월 29일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공포하고 육아 및 유아교육문제를 국가사회가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9년 3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수정·보충되면서 그 내용과 폭을 넓혀 교육부분에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보육여건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는데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보육실의 형태만을 살펴보면 남한은 각반 교실에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재 교구가 교구장에 배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북한은 교실형태가 초등학교 교실처럼 책상과 의자가 앞을 보고 앉아서 칠판을 이용하여 수업하고 있고, 교실에는 하얀 벽으로 수업과 관련된 게시물전시가 없는 교실형태로 남북한이 교실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경선(2007)은 북한 유아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법, 유치원 제도, 기관형태, 교육 목적 및 내용, 의료체계, 교사 양성교육 및 재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과 중 주목할만한 점은 유아기관의 형태는 여성의 취업 형태에 따라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일일, 주간, 10일, 월간 탁아소(유치원)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1990년도 초반까지 95%의 기본예방접종률을 자랑할 만큼 기본 위생수준이 선진국 수준이었으나 1997년 4,5세 미만 어린이의 15.6%인 32만 4천명이 영양실조상

대로 그 해 7월에는 37%인 80만 명으로 식량난에 의한 건강, 영양, 위생의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교육내용 중 지적교육의 경우는 교사중심의 구조화된 수업에서 놀이나 노래, 관찰 등 활동중심 교육으로 수업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김일성 부자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라 폐쇄적 교육에서 벗어나 외국어, 컴퓨터, 특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교사 양성은 기존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재교육의 경우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이고 혁명적 세계관을 공고히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북한은 보육원과 교양원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유치원생의 감소가 되고 있고 어린이들이 출석률과 학업성취도로 직무능력의 평가 척도로 활용하고 있어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출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희 외(2008)은 유치원 교양원이었던 새터민 3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유치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교육과정과 일과시간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 중 정치사상교양은 김일성의 우상화 교육을 위한 내용이 진행되었고, 지적교육은 학교 준비를 위한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서교육은 교양원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교육이 주로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체육은 혁명투사가 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놀이 시간은 가치 없이 생각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하루 일과 중 정해진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북한 유치원의 일과시간들은 점심·새참시간, 체조, 휴식, 충화시간, 등·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사점

첫째,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이나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라 하겠다. 이는 대북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학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기의 연구주제는 유아교육·보육 관련된 제도, 법령, 교육과정, 교사양성 등의 남북한 비교연구 또는 북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가 대부분을 이룬다. 분단이란 현실에서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계의 학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헌연구, 그것도 북한 정부에서 발간한 관(官) 중심의 자료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셋째, 제한된 자료에다가 영유아 보육·교육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연구에 활용

되는 문헌자료가 대동소이하다. 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제도나 정책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제도, 정부조직, 인구추계 및 영유아 인구추계, 영유아 사망률 등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가 탁아소와 유치원에 편중되어 있다. 북한의 가정내 양육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유아기의 교육 또는 제도권 교육(보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양육이란 개념으로 발전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다섯째,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연구주제나 내용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자녀양육 실태연구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문헌연구 그 이상의 북한의 실질적인 양육제도의 변천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난 이후, 북한의 양육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생산은 의미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II. 북한 양육에 관한 이해

II장에서는 북한의 양육제도 및 정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배경지식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체제 등을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개괄하고, 양육관련 법령과 영유아 인구 등을 검토한다.

1. 북한사회 개괄

가. 정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이며, 조선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정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의 당 규약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규정하였다. 주체사상은 1908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연속적으로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과 더불어,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통일교육원, 2010).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인 심각한 경제난과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선군정치라는 정치적 기치가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등장하게 된다. 선군정치란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군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투영시키면서 군은 북한의 핵심기구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면서,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고 군 조직을 통해 사회통제적 기능을 강화하여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치적 기치가 '선군정치'라 하

졌다. 2009년 개정헌법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더불어 지도적 지침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통일교육원, 2010).

나. 경제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징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결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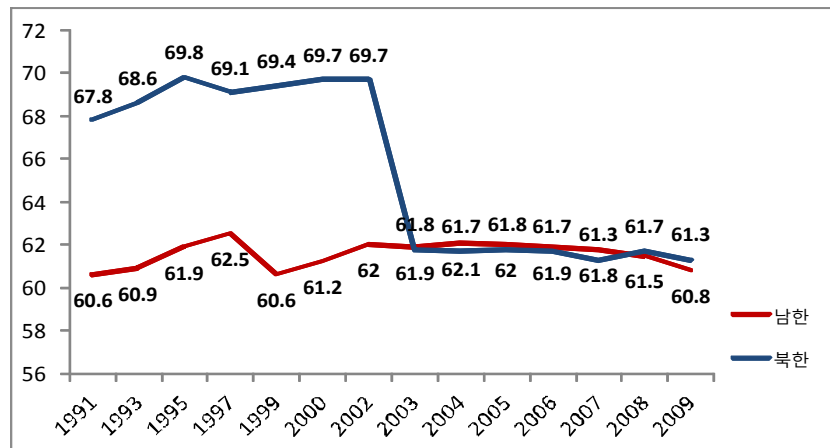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은 2002년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일정부분 수정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다름 아닌,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이후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체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군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포전(圃田)담당제’⁶⁾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

6) 포전담당제는 2004년부터 협동농장 분조관리제의 ‘분조’규모를 7~8명에서 3~4명으로 축소하여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2006년 이후 폐지되었다.

귀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0).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90년대 약 68%~69%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61%대로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2009년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3%이다.



자료: 통계청(2010).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그림 II-1-1] 남북한 경제활동참가율(1991~2009)

다. 계층구조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개혁을 서둘렀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는 북한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3계층 51부류’의 분류는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데, 전 주민을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각의 소집단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배치, 교육기회, 사회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허가증 취득 중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북한의 주민성분 분류는 < 표 II-1-1>에 제시되어 있다(통일교육원, 2010).

〈표 II-1-1〉 북한 주민의 성분 분류

계층	부류
핵심계층 (핵심군중)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테리, 6·25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동요계층 (기본군중)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집객업자, 월남자 가족(제2, 3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부화·방당한 자, 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 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적대계층 (복잡군중)	8·15이후 전략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 가족(제1부류) 등 21개 부류

자료: 통일교육원(2010). 북한의 이해.

북한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부류를 조정할 따름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 상당수가 탈북, 방랑, 도주 등의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하여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통일교육원, 2010).

라. 학제

북한은 일찍이 의무·무상교육제도 완비하였다. 다음 <표 II-1-2>는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1956년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고, 1958년부터는 중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67년에는 4년제 소학교와 5년제 중학교의 9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등 의무교육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갔다. 1972년에 취학전 교육 1년, 소학교 1년, 중학교 6년의 총 11년 의무교육제도로 정비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표 II-1-2〉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천

연도	의무교육체계	특징
1956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4년제 소학교
1958	전반적인 중등의무교육 실시	3년제 중학교
1967	전반적인 9년제 의무교육 실시	4년제 소학교와 5년제 중학교를 의무제화한 것으로, 중학교의 5년 과정 중 3년은 일반 중학교교육을, 이후 2년간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 실시
1972	10년제 고등의무교육과 1년제 학년전 의무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	1-4-6의 11년제 의무교육 마련
1975	11년제 의무교육 실시	1975년 9월1일 부터 전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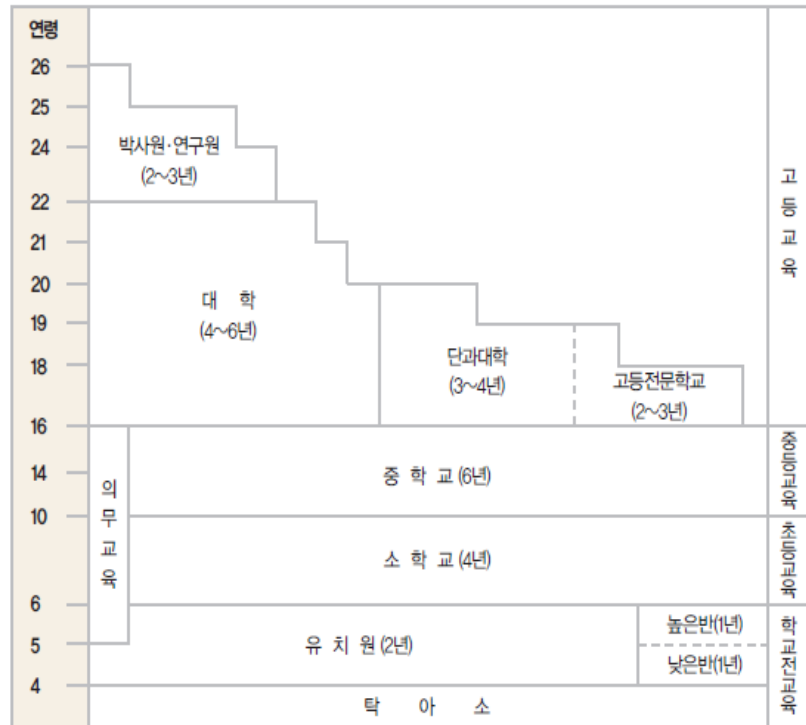
주: 북한은 새학기 시작이 9월 1일자였다가 1997년부터는 4월 1일로 변경
 자료: 차종환·신범타·양학봉(2009). 이것이 북한교육이다.

이처럼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기간에 유치원 높은반 1년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주의 교육의 시작을 취학전 교육(학령 전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1972년대부터 유치원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하였다.

김일성은 1977년도 「사회주의 교육의 테제」에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이를 요건을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위해 수업료를 비롯한 제반 학비를 완전히 없애고, 교육시설·설비, 교과서, 학용품 등과 통학, 기숙사 등 부대비용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철저한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생략)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국가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더 잘 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집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김일성, 1977)

정리하자면, 북한은 학교교육의 의무·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갔고, 취학전 교육을 중시하면서 유치원 높은반 1년을 포함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의 11년 의무교육제를 1975년도에 완비하였다.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북한 이해.

[그림 II-1-2] 북한의 학제

2. 북한의 양육이념

가. 소련의 ‘어머니-노동자 모델’ 양육이념 이식

해방 후 소련군과 함께 북한지역에 들어와 정치권력으로 자리 잡은 김일성과 사회주의세력은 소련, 특히 스탈린시기 사회주의체제를 모델로 국가건설을 추진하였다. 각종 사회제도 역시 소련의 사회제도가 모델이 되었으며, 여성과 가족 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더욱이 1960년대 초반까지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김일성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박정애는 정치세력으로는 소련파에 속하며, 한국전쟁시기 스탈린상까지 받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스탈린시기 여성과 가족 정책을 북한지역에 구현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북한의 사회체제가 형성·발전되는 과정에서 김일성세력과 박정애가 주도했던 여성과 가족 정책은 한편으론 사회 안정화와 통제를 위해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유지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노동력 수급을 위해 생산 노동을 일반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여성과 가족 정책은 소련의 여성정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혁명 시기 여성 볼셰비키들은 여성해방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여성상 구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력한 여성 볼셰비키는 콜론타이(Kollontai)와 크롭스카야(Krupskaia)로 대표될 수 있다. 콜론타이는 당시 가장 강력한 여성해방론자로 볼셰비키 전통에 따라 여성 노동자와 농민을 변화의 기반으로 사고하면서도 노동자·농민으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가족제도 등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 즉 여성의 전통적 역할 변화를 모색했다. 한편 크롭스카야는 여성의 교육기회를 개선하는 문제와 ‘어머니-노동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제 조건의 개선을 추구한 여성해방론에 있어서는 온건론자였다. 이처럼 콜론타이의 신여성 모델과 크롭스카야의 어머니-노동자 모델의 대립 논쟁은 결국, 콜론타이가 노동자 반대파 사건으로 숙청되는 과정에서 콜론타이의 주장은 희석되면서, 이후 스탈린이 크롭스카야의 여성론을 사회주의 여성과 가족정책으로 제도화하면서 어머니-노동자 모델은 소비에트 여성의 이상적 이미지로 굳혀졌다(차인순, 1992).

결국 남녀관계에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의 문화적·심리적 억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 여성부서와 여성조직의 주요과업은 여성의 계급의식을 일깨워 혁명과업을 이행하고 당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었다(이온죽, 1990: 171).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되어진 가사와 양육은 그대로 여성의 몫이며, 거기에 노동자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전통적인 재생산 노동인 출산과 양육 위에 ‘국가를 위한’ 생산과 혁명의 새세대 양육이라는 국가주의적 역할이 부가된 것이다.

크롭스카야의 ‘어머니-노동자 모델’이념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진했던 후발 사회주의 국가에 이식되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컨대 1961년 11월 16일 김일성은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 어린이 교육과 교양에서 어머니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위생지식을 가져야 하며, 어머니가 어린이에게 주는 첫 교양이

잘됨으로서 그들의 성격과 습관, 품성이 좋아진다고 하였다(최민수, 1998).

이처럼 양육은 미래의 노동자이며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고, 학교와 가정은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공간이며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었다. 가정에 서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전문학교를 제외한 양육과 교육기관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양성하는 주체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는 여성에게 이중역할을 강제한 것이다. 더욱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에 비해 여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지 못한 북한정권은 소련과 같은 논쟁도 없이 체제안정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위로부터’, ‘강력하고 급속하게’ 어머니-노동자 모델을 여성에게 교육하고 강제했다(박영자, 2004).

나. 주체사상

이처럼 정권 수립 초기에는 북한의 양육이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에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부터는 김일성의 교시를 근간으로 하여 양육이념을 재설정하였다.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사회주의는 혁명운동의 경험을 통해 자국의 특수성에 자주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주체를 세우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국제 혁명 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이다.(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양옥승·오미경, 1995 재인용)

1976년도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양육이념이 주체사상으로 재정립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공양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어린이보육교양법 제5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에서도 김일성은 북한만의 고유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설파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역사적뿌리는 항일 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런 혁명적 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었다.……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김일성, 1977)

북한 양육이념에 주체사상이 접목되면서 북한의 어린이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자 동시에 김일성과 당에 충성하는 주체형 혁명적 인간으로 육성되어야 할 당위성이 마련되었다. 1976년 이래 표방해온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한다”는 기본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오늘날에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동아’, ‘효자동아’로 육아하는 것을 보육교양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다음의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우리 혁명 위업의 계승자들인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보육교양함으로써 그들을 김일성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내외통신 48, 1993; 양옥승·오미경, 1995 재인용)

3. 북한의 양육 관련 법령

북한의 법령들 중 양육 관련된 법령과 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검토하고자 하는 양육관련 법령으로는 1)실제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 관련 법령, 2)출산을 포함한 자녀양육시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 3)제도권 양육인 탁아소·유치원 관련 법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은 III절의 양육제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1)과 2)에 해당되는 법령들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가. 일하는 여성의 양육지원 관련 법령

1) 헌법

법적으로 북한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자녀를 둔 어머니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자

녀 여성은 산전산후휴가,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탁아소·유치원의 확장 등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사회주의헌법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77조, 2010.4.9 개정)

2) 노동법

노동법은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되어 1986년, 1999년 두 번에 걸쳐 수정되었다.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규정한 동법 제3장 제31조에서도 노동여성의 권익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의 시설 설립은 물론이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 중 희망자에게는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과 같은 조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사회주의노동법 제3장 제31조, 1999.6.16 수정)

노동여성의 근로보호를 위해 위생시설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신부에는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사회주의노동법 제59조, 1999.6.16 수정)

이외에도 근로연한에 관계없이 여성근로자는 산전 35일, 산후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제6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 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 로력일을 주어야 하며(제76조),

7) 1986년에는 산전산후 77일에서 150일로 확대됨(김귀옥, 2004).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울 것을(제77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국가적, 사회적 혜택으로 현대적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를 동법에도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아울러 국가는 근로자 자녀에게는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제72조)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녀교육까지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가족법

1990년 이전까지 북한은 통일된 가족법이 없었다. 따라서 가족법 관련 규정은 남녀평등권 법령,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재판이혼 규정, 민사규정 등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 10월 북한에 가족법이 최초의 단행 법률로 제정되었다. 80년대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 문제와 물자부족이 나타나고, 소련 등 사회주의진영의 원조량이 줄어들며 북한의 경제위기는 외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경유하며 북한정권은 사회의 세포이며 생존공간인 가족 관련 법 제도화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라 추론된다. 즉, 1990년 북한의 가족법 제정은 2011년 현재까지 지속되는 북한에서 생존을 위한 여성과 가족 역할의 전면화 정책과의 상관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가족법은 북한 헌법 제51조 및 제62조에 천명되어 있는 남녀평등원칙을 비롯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 일부일처제의 원칙,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 등 네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동법은 전6장 54개 조로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2장 결혼, 제3장 가정, 제4장 후견, 제5장 상속, 제6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북한 가족법에 나타난 가족정책과 80년대까지 보편적이었던 식량난 이후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당국의 가족정책관련 관습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혼인, 부부관계 그리고 이혼

북한의 약혼제도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도덕규범에 맡겨두고 있다. 북

한 가족법 제9조는 ‘국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결혼시기와 배우자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상 당성과 출신성분이 다를 경우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성분문제를 들어 반대하면 결혼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농촌/ 도시 등 지역적 제한 정책이나 직업상 결혼제한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가족법 제9조 제1항은 혼인연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여자 만 17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한다. 실제 혼인 연령은 사회적 여건상 여성은 25세 전후이고 남자는 군사정책과 출신성분 등에 따라 군복무 기간이 5, 7, 10, 13년 등이므로 30세 이후가 많다.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 중혼은 금지된다.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이내의 근친혼도 금지된다. 종래의 관습적 해석론에 따라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근친혼이 금지된다고 본다.

결혼식은 양가어른들과 함께 신부 측에서 차린 음식을 들며 옷감 한 벌 정도를 교환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된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여 집이나 공공회관 국영음식점에서 하게 된다. 신랑은 보통 데트론 양복에 신부는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모두 김일성배지를 단다. 주례는 주로 직장책임자 또는 당/사회단체의 간부이다. 주례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1995년 선군정치 이후에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배려로 부부로서 결합함을 선언하고 신랑, 신부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으로 혁명의 가정을 꾸릴 것을 서약한다. 하객은 20여명 정도로 축의금은 1980년대 기준 5~15원 수준(노동자 월 평균 임금 60~80원)이나 일반 주민 사이에는 축의금 대신에 자신이 먹을 양식과 잔치에 쓸 것을 선물로 들고 가기도 한다.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서 쌍방의 의사가 반영된 결혼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공민등록증에 등록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북한은 결혼등록의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결혼의 국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부는 혁명적 동지애와 인격적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결합하며 그에 따른 권리 의무로 사회 정치활동참가권, 독자적인 직업선택권, 가정살림에서 동등한 권리, 상호부양의무를 가진다. 현실에선 일단 혼인을 하면 남편을 따라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며 혼인 후 여자는 새거주지에서 새 직장을 구하여 취직한다. 여성이 직장이 없으면 식량배급이 약 절반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이 여성이며,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비율은 80

년대 경제적 불황으로 줄어들어 약 30%정도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주부(부양가족)도 가내작업반에서 일감을 가져다가 부족한 식량배급을 보충한다. 부부관계는 남녀평등의 선언과는 대조적으로 실생활에선 남성 권위주의적 전통이 남아 있어 가사노동과 양육은 여성 책임으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남녀는 분리되어 여자는 가사 재봉을, 남자들은 기계 실습을 배우며 '가사는 여성들의 일'로 교육하고 있다.(박영자, 2004b)

앞서 설명했듯 북한은 1950년대 이혼자유의 원칙과 협의이혼을 폐지하여 재판이혼만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0년 가족법 제21조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확실히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학대, 유기, 소재불명 등이며 그 밖의 사유는 부부관계를 계속할만한 정치 도덕적 기초를 상실하여 이혼이 사회와 혁명에 이로운 때는 재판에서 인정하고 해로울 때는 불허한다.

이혼절차는 인민재판소 관할이며, 두 번 이상 이혼한 자는 도재판소에서 재판하며 5000원이라는 징벌적 납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1년간의 설복기간을 두고 화해를 권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6조) 이혼판결과 함께 자녀양육이나 재산분배 부양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동법 제119, 129조). 현역군인이나 임산부/출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은 기각된다(동법 제87조. 리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이혼 후 일정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부양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게 하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당사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재혼하여 계친의 부양을 받을 경우 재판소에 의하여 양육비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가족법 제 20-24조)

그러나 1990년대까지 실제 북한에서 이혼은 별로 볼 수 없었다. 또 이혼하고 남편이 살아 있는 여성과는 혼인하기를 꺼려하는 풍습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었고,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감히 이혼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기에 재혼을 꺼린다. 1990년대까지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일반주민 보다는 특수층에서 부정행위와 출신성분 문제 등

으로 이혼사건이 많은 편이었다.

나)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할 국가 사회적 의무가 있다. 이는 북한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법에서 양육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여성이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 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제6조)

동법에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해서,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제27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제28조) 등 자녀교육에 대해 부모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자녀 및 부모는 상호 부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가족법 제27-28조). 부모 부양의무는 모든 성년자녀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며 부양 받게 되는 연령은 노령 연금을 받게 되는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로 해석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부모를 모시는 것도 자연스레 받아들이지만 기혼의 딸과 사는 부모는 드물다. 장남에 의한 부모부양과 가족승계가 유지되는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며, 아들의 부모부양의무가 유지되면 여성은 당연히 가정을 화목하게 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 상속 및 가족관계

북한은 정권 수립 시부터 상속을 자본주의적 착취제도라고 폐지하였으나, 1990년 신설 가족법에서는 개인재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과도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며 상속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상속의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녀이며, 제3순위는 가까운 친척이며,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이다(가족법 제46, 47조). 유언에 의한 상속도 인정하고 있으나 유언자는 미성년자녀, 노동능력이 없는 자

녀, 배우자, 부모의 상속분을 배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게 하고 있다(가족법 제50조).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상호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위와 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가족법 제35-37조).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공적부양을 줄이고 가족의 사적부양의 범위를 넓혔다. 친족 간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혼상제 등 가족모임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북한은 의식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왔다. 회갑, 돌잔치 등은 초기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금지하였다가 60·70년대 이후로는 묵인하는 추세다. 장례도 헌화/ 묵념 등으로 의식 간소화를 강제하였으나 주민들 사이에는 전례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제사는 한국전쟁 후 제재를 가하다가 60년대 후반부터는 추석성묘나 직계가족의 경우 탈상까지 제사를 묵인한다. 90년대부터는 명절 등에 가족이나 집안끼리 모여 간단한 음식으로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가족 간 유대를 강화시키는 전통적 관혼상제 관습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의 양육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부분 발췌하여 검토한 결과, 표면적으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보장하는 듯 하며,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북한 정권 수립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피상적 관찰일 뿐, 북한 여성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격리 현상,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해 볼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하는 여성은 비공식 노동인 가정노동이나 자녀양육 또한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며, 상당한 경우 가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통일연구원, 2010).

나. 자녀양육에 필요한 인민보건법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었고, 이후 1999년, 2001년 수정 보충되었다. 인민보건법은 인민보건사업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사회주의 업적 수행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북한은 동법에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의료제를 표방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며(제10조 1항),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도 무료이다(제10조 2항). 출산에 드는 비용(제10조 4항) 및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봉사도 무료이다(제10조 5항). 동법 제11조에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쌍둥이를 출산과 여성과 아이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제11조)

아울러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는 식량, 보조금, 분배몫을 주며 이 경우 식량, 보조금, 분배 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제14조).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지출되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의료비용은 무상이며,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은 부양가족의 식량, 보조금, 분배 몫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인해 1982년에는 1960년에 비하여 산업병원수가 143.8%로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협동농민들에게도 무상의료가 적용되었다.⁸⁾ 장애인의 병질환 역시 무상의료를 제공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기본적인 위생수준은 선진국 수준이었고, 95%의 기본예방접종률을 자랑했다.

이러한 무상의료체제는 잘 작동될 때는 이상적인 체계이지만 1990년대 식량난, 경제난 상황에서 외화가 없어서 의약품마저 수입하기 곤란하게 되자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을 전혀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다(김귀옥, 2004).

다. 탁아소·유치원 관련 법령

1) 탁아소에 관한 규정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2.1 보건성규칙 제1호)” 제1호에 정의된 탁아소란 “생후 1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를 가진 로동녀성으로 하여금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또한 정치,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데 방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

8) 1980년 1,500여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과 2,000여개의 병실을 가진 여성전문병원인 ‘평양산원’이 완공되어 무상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김귀옥, 2004).

상은 노동여성 즉, 취업모여야 한다. 따라서 자녀를 탁아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모친의 직장증명서 및 해당 직장 직업동맹 추천서”를 제출할 것을 동 법에 규정하고 있다(제8조).⁹⁾

탁아소의 설립 및 경영주체는 국가 및 사회단체이며(제2조), 탁아소를 설치¹⁰⁾ 또는 폐지 및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보건성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제6조).

탁아소의 명칭은 일반 탁아소는 지역명(도시명)(예: ○○○ 제○탁아소)을, 직장 탁아소는 산업기관명(예: 산업기관명 ○○○○탁아소)을 사용한다(제5조).

동법의 제7조에서 탁아소의 시설·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탁아소에는 기본적으로 ①접수실 ②목욕실 ③의무실 ④유희실 ⑤침실 ⑥식당 ⑦포유실 ⑧세탁실 ⑨건조실 ⑩재봉실 ⑪격리실 ⑫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서 유희실 및 침실은 유아1인에 대하여 2.5평방미 이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풀밭, 유희장, 정원 및 마루방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유아1인에 대하여 4평방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탁아소에 설치하여야 할 악기, 장난감, 양육용 교재 및 기타 비품 등에 대하여는 보건성에서 이를 정하며, 탁아소의 위치는 근접지 및 주위 환경에 교육 또는 위생상 위해가 없는 지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는 양육사업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탁아를 연령별로 반을 조직하고 각반의 정원은 17명 내지 18명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탁아소의 대상 연령은 도시에 있는 일반탁아소는 유아의 연령을 생후 만1세부터 만3세까지 취급하며 양육시간은 주간 중 10시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8조).

탁아소의 위생, 안전 관리 규정으로는 “탁아소는 각 계절에 적응한 보건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며 특히 유리된 유아(생후15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위생지대에 휴양반을 조직하여야 하며(제14조), 결핵병, 구루병 및 전염병의 질병을 경과한 직후의 유아 또는 허약한 유아를 위하여 료양반을 조직하여야 하며(제15조), 등록된 유아가 발병된 경우에는 탁아소에서 양양물을 조리하여 이를 발병한 유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16조), 건전한

9) 직장증명서외의 당해 탁아소를 소관하는 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과의 추천서, 유아상담소 또는 국가치료기관의 보건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10) 탁아소 설치시 필요한 사항이란 1. 명칭 및 소재지, 2. 개소 연월일, 3. 건물의 평면도, 대지, 유원의 평수 및 부근의 약도, 4. 설립기관명칭 5. 예산소속별 및 예산액 6. 계획 침대수 7. 육아 시간표 8. 직원 일람표 등이다.

탁아소 생활을 가정예까지 침투시키기 위하여 탁아의 모친에 영양, 위생, 방역 및 양육에 대한 위생 선전사업을 실시할 것(제17조)”을 명시하고 있다.

탁아소의 종사자는 <표Ⅱ-3-1>에서 처럼 탁아소 소장, 의사, 보육원(보육교사), 간호원장, 식당원, 서무과장, 경리, 서무, 세탁부, 식당원, 연락원, 화부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배치되어 있다(제22조).

〈표 Ⅱ-3-1〉 탁아소 종사자와 정원에 따른 배치 인원

직원 침대	소장	의사	간호원장	방문간호원	보육원	보조원	서무과장	경리	서무	경리간호원	세탁부	소재부식당원	간호원	연락원	화부
40	1	0.25	0.5				0.5	0.5			2	2		0.5	3
41~90	1	0.5	1				0.5	1		0.5	3	2.5		1	4
91~120	1	1	1	0.5			1	1	1	0.5	4	4		1	4
120~160	1	1	0.5	1			1	1	1	1	5	5		1	4
161~200	1	0.5	2	1.5			1	1.5	1	1.5	6	5		1	4

주: 간호원 및 보육원. 보조원은 매 개 유아반에 1명씩 배치한다.

탁아소 소장은 의사, 펠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보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인민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¹¹⁾이어야 한다(제23조).

탁아소 소장 및 의사의 임면권은 소관 도·시·군 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하며, 기타 직원은 소장이 이를 임면한다(제24조).

제25조 탁아소의 각 직원의 임무를 보면, 탁아소 소장은 소관 시·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소내 사무를 통할한다. 의사는 해당 탁아소 소장의 지도를 받아 탁아소의 위생시설을 정확히 조직하며 탁아소 전체사업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소장과 같이 책임을 진다. 간호원장은 소장 및 의사의 지도를 받아 보육원 및 보조원을 지도 감독한다. 간호원(방문간호원을 포함) 및 보육원은 탁아소의 양육 및 의료사업을 실시하며 야간에는 간호원 및 보조원만이 복무한다. 과장 및 기타직원은 소장의 지도를 받아 각각 담당 사무에 종사한다.

탁아소의 담당 업무는 첫째, 유아의 건전한 발육과 양육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둘째, 유아질병예방 셋째, 가정생활에 있어서 유아의 양육 사업에 대한

1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탁아소 소장 강습을 받아야 한다.

위생적 문화적 습성의 함양을 위한 대책수립 및 실시 등이다(제3조).

2) 어린이보육교양법¹²⁾

1976년도 제정된 동법은 유치원 뿐만 아니라 탁아소, 육아원, 애육원을¹³⁾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이 행정체계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남한과 같지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법령도 이원화되어 있는 남한하고는 달리, 같은 법령에 유치원과 탁아소의 규정이 담겨져 있다. 동법은 총 6장 58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전문(全文)은 부록을 참조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및 운영 관련된 조항과 보육원·교양원 관련된 조항으로 구분해서 고찰 하겠다.

가) 탁아소·유치원 운영 관련 조항

제1장 제3조에는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탁아소의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장 제9조에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 준다”고 되어 있어,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 환경,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제3장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에서 다루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하며”(제23조)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하며”(제24조) “탁아소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무료로 의료봉사를 실시”(제25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36조에는 유치원의 높은 반 1년은 학교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같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근

12) 부록 2 참조

13)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 교양기관이다.

거하여 교육교양하는 사업”(제29조)으로 교육·보육 이념은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정신”(제31조)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지도 감독 기관으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 기관, 지방기관의 지도통제를 받는다”(제47조, 제48조, 제49조)고 명시되어 있다.

나) 보육원·교양원 관련 조항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형의 새세대를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제41조)로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계급화”(제43조)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제44조) 라고 되어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라.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령

1) 녀성권리보장법

북한여성은 가족부양을 위한 출혈 노동을 함에도 그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가부장제 체제에서 건강악화, 성폭력,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북한아동들은 만성적 기아와 영양실조, 약물, 북한산 마약(빙두) 남용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 역시 사회기강도 해이해지고 집단주의가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력이 큰 여성들을 정권 내로 인입하기 위한 노력, 국제사회의 여성과 아동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일정정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외적 요구를 일부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2월 22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보장법)을 채택 및 발표하였다. 여성권보장법은 총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4장 로동의 권리,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법은 총 6장 6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장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임순희 외, 2011). 이 중 여성 및 가족 정책 관련하여 깊은 상관성이 있는 여성권리 보장법의 특성과 의미, 그리고 그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권리보장법의 제1장에서는 이 법의 사명이 여성의 권리 보장을 통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제고라며 다음과 같은 기본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기본 규정은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여성권리 보장, 둘째,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셋째, 기관, 기업소, 단체,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근로단체, 법기관 등에서 여성의 권리보장 의무와 국제교류 및 협조,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등이다.

제2장에서는 여성의 사회,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남성과 평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국적 취득, 변경, 보존 권리, 둘째, 국가기관에서의 사업권리 및 여성 간부의 계획적 양성 및 등용과 간부 선발에서의 차별 금지, 법기관에서의 여성 인격 존중 및 권리와 이익 보장, 셋째, 여성의 신소와 청원 권리 등이다.

제3장에서는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 권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입학, 진학, 졸업 후 배치에서 남녀평등 보장, 둘째, 여학생의 신체와 건강 보호 증진 및 의무교육 관련 부모의 의무, 셋째, 여성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조건 보장 및 남성과 평등한 문화생활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넷째, 농촌여성들의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보장 등이다.

제4장에서는 여성 노동의 권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의 노동조건 보장 및 노력배치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 둘째, 여성근로자의 노동 보호 및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 분야와 직종 구분, 셋째, 노동보수와 기술, 기능자격 및 금수판정에서의 남녀평등, 넷째, 산전, 산후 휴가 보장과 부당한 제적 금지 및 사회보험제 적용 등이다.

제5장에서는 인신 및 재산적 권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 인신 및 여성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 둘째, 여성 유괴, 매매 및 매음행위 금지와 여성의 인격권 및 명예권 보장, 셋째, 가정 재산 소유권을

남편과 공유할 권리 및 남성과 평등한 재산 상속권 등이다.

제6장에서는 결혼 및 가정의 권리와 관련한 첫째, 여성의 자유 결혼 권리와 여성에 대한 가정폭행 금지, 둘째, 이혼 제기 중지 사유와 이혼시의 재산 분할, 셋째,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와 출산의 자유 및 임신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규정들로 첫째,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및 여성단체의 임무, 둘째,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및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책임지는 여성들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전에 비해 북한당국이 제도적 노력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이 법률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첫째, 집단주의의 기초인 가족을 사회의 세포로 하여 재강화하려는 기본정책과, 둘째,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셋째, 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보완하는 의미로, 넷째, 전체적인 가족강화를 위한 여성역할의 제도정비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 구체적 근거는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제44조~제51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제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 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5조 녀성의 결혼자유권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6조 가정폭행의 금지

가정에서는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리혼제기중지사유

부부간에 리혼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성은 안해가 임신 중에 있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리혼을 제기할 수 없다.

녀성이 남편을 상대로 리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8조 리혼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주택과 가정재산분할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고 자녀와 여자측의 리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

제49조 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 수 없을 경우에는, 녀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0조 출산의 자유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51조 임신부에 대한 보호

녀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기의 녀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위의 구체적인 조항에서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 제정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2010년 현재에서 북한사회에서 얼마나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권리와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와 자녀보호가 여성의 의미임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며, 셋째,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 수 없을 경우에는, 녀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부계사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넷째,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바로

뒤에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라고 명시하여, 자녀출산을 여성의 고유한 의무임을 법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가족법의 하위 법으로 여전히 북한체제에서 이혼은 국가법제에 따라 규제받고 있다. 일반 여성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재판이혼 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이혼 상황에서 여성의 자유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아동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은 총6장 62개 조항으로,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제1조~제10조),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11조~제21조), 제3장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22조~제37조),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38조~제46조), 제5장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47조~제56조),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7조~제62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이 법의 ‘사명’이 아동권리보장제도의 공고 발전을 통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대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규정들을 명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에 대한 정의와 아동의 평등권 보장 및 아동중시 원칙, 교육·보건 분야와 가정 및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원칙, 아동에 대한 물질적 보장 원칙 및 국제교류와 협조,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생활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관련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 보장,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 및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권리, 출생 등록 및 아동의 신원 보존 권리와 단체가입 및 자유로운 견해표시, 아동의 사생활 및 가족·서신·명예·인격에 대한 법적보호와 아동 유괴·매매 및 아동노동 금지, 아동의 신소·청원 권리와 망명아동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보건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관련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교육·보건의 혜택 조건 보장 및 무료의무교육 권리와 아동 교

육기관 및 아동의 입학과 졸업 보장, 아동의 인격 존중 및 아동의 희망과 재능 발전 권리 보장, 휴식과 문화정서생활 권리 보장 및 아동 관련 출판물·문예작품 창작 보급, 장애아동 보호와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양육 및 외진 지역 아동 교육 조건 보장, 무상치료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및 아동병원·병동 배치와 요양시설을 통한 아동 건강 증진, 아동 영양제·영양식품 및 생활용품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관련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및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 보장, 가정에서의 아동 의사 존중 및 처벌금지, 후견인 선정과 아동의 수양 및 입양, 아동이 상속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관련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법기관의 아동권 보장 및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사형 금지, 사회적 교양 처분의 적용 및 변호인 방조를 받을 권리, 사건 취급 처리에서 아동 인격 존중 및 증인신문에서 아동의 보호자 입회, 부모의 체포 및 구속을 아동에게 통지, 아동 이익을 위해 부모 이혼 방지 교양 및 이혼시 아동양육과 아동의 양육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관련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권리보장사업 지도체계 및 지도기관, 아동보호 관련 연구사업 강화 및 아동보호사업 소요자금·자재·설비·물자 보장, 아동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관, 아동권리보장사업 관련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제도

가. 변천과정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인 1947년에 첫 탁아사업에 착수하였고, 1948년 2월 15일에 설립하였다(리명호, 2002). 북한의 보육교양사업은 한국전쟁 이후에 여성 노동력의 증가로 인하여 탁아소의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는데, 한국전쟁 직후 1953년도에 탁아소 64개, 유치원 19개였던 것이 10년 후인 1963년에는 탁아소

6,704개, 유치원 5,667개로 수직상승하였다(최민수, 1998).

1960년대까지가 양적 확충을 꾀하는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 확정,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제정 등으로 탁아소·유치원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러한 법·제도 구축을 통해 1980년대까지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1972년부터 유치원을 높은반과 낮은반으로 개편하고, 높은반은 의무교육으로 접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표방했으며, 1977년까지 유치원의 1년 의무교육을 완비하였다. 1976년 4월 29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 1976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국가적 어린이 보육교양제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우리는 해방 후에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를 세웠다.……우리나라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노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적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김일성, 1997).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탁아소의 설립목적인 여성 노동력 확보보다는 유치원의 교육처럼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로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서원석·조혜숙, 1986; 양옥승, 1997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됨으로써 권력 계승의 정당성과 의식화를 위하여 유치원뿐 만 아니라 탁아소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양옥승, 1997).

1990년에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와 김정일의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를 높이 받들면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1995년 중반 경에는 ‘어려서부터 충실성 교양을 잘 해야한다’는 제목하의 자녀교육 지침서를 제시하여 유아대상의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김옥경, 1998).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체제는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차종환·신법타·양학봉(2009) 연구에 따르

면 2000년 북한의 유치원은 약 3만7천개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6만 개에 비해 절반 가까이 폐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남북문제연구소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유치원, 탁아소 중 70%가 사실상 폐쇄상태(김귀옥, 2004)라고 할 정도로 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의 양육지원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행정체계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남한처럼 이원화되어있다. 북한의 보육교양서비스는 만4세 미만의 어린이는 탁아소에서 이루어지고, 만4세 이상부터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령별 분리 운영체계이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학령전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키우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두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다음 글은 1949년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 탁아소와 유치원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사업을 탁아소처럼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교시를 전하는 내용이다.

지금 일부 녀맹 일꾼들이 유치사업을 지도한다고 하면서 유치원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간섭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고 엄격히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조직이 유치원사업을 탁아소를 지도하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된다.……탁아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을 기본으로 하고 유치원에서는 학령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이 위주로 되는 것만큼 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에 대한 지도에서도 엄격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셨다. (조선녀성, 2007)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행정체계의 이원화는 두 기관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탁아소의 행정적, 실무적인 업무는 내각의 보건성이 담당한다.¹⁴⁾ 탁아소는 중앙의 '보건성 탁아소 지도국'과 지방의 '시·도·군 보건부서'에서 담당하며, 농촌지역의 탁아소는 중앙의 '농업위원회'와 군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앙의 탁아소는 중앙예산으로 지원하고, 시·도·군의 탁아소는 지방예산으로 지원하며, 농촌부문의 협동농장의 탁아소는 공동소비자금으로 지원한다. 탁아소

14) 부록 1 참조

를 운영을 하거나 지도하는 구성인원으로는 원장, 보육원, 의사, 간호사, 보조원, 사무직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직책과 역할은 중앙의 관련기관에서 규정하고 하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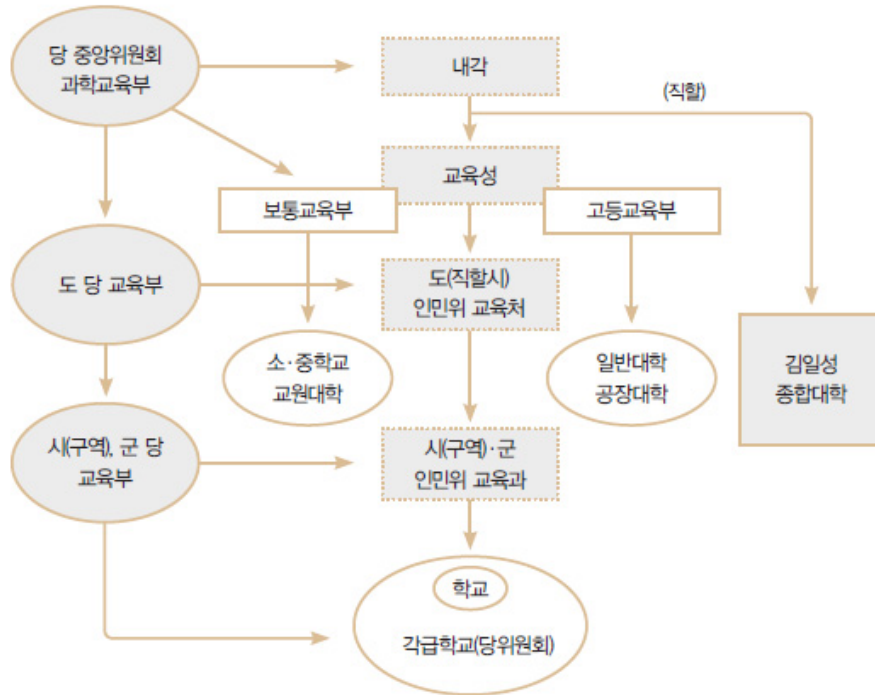
유치원은 내각의 교육성에서 담당하여 행정체제는 일반 교육행정체제와 동일하다. 북한의 교육행정은 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총괄적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정책의 집행 및 교육과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내각의 교육성에서 이루어지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행정체제는 당, 내각,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한다.

3원 교육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노동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우선권적인 권한을 갖고 인사나 교육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지만, 실권은 학교에 파견된 당 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장악하고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며 교수 교양사업과 사상 교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내각은 교육의 행정적·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에는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있다. 보통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교원대학을 관장하며 고등교육부에서는 일반대학교와 사범대학을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지침을 각 도의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교육지침이 최종적으로 각 급 학교에 하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셋째, 각 급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장과 학교단위 초급당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 그리고 각 분과와 정리주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김일성은 “우리는 국가 돈을 거의 다 교육사업에 들이 밀고 있다”(정철, 2002)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제도의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전 교육, 11년제 무상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근로자를 위한 성인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통일교육원, 2010).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북한 이해.

[그림 III-4-1] 북한 교육행정체계

다. 탁아소·유치원 운영실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담당 주무부처의 이원화와 더불어, 연령별 이원화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만4세 미만의 어린이는 탁아소에서 이루어지고, 만4세 이상부터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령별 분리 운영 체계이다.

탁아소의 반 편성은 다시 개월수에 따라 나뉘는데, 생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젓먹이반, 7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젓떼기반, 19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교양반, 37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유치원 준비반으로 구분하여 보육을 하고 있다.

〈표 II-4-2〉 북한 탁아소 반 편성

반 명칭		연령 기준
젓먹이반		생후 6개월까지
젓떼기반	1반	7개월~12개월
	2반	13개월~18개월
교양반(밥먹이)	1반	19개월~24개월
	2반	25개월~36개월
유치원 준비반		37개월~48개월

자료: 김형찬(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다음으로 유치원의 반 편성은 연령별에 따라 나뉘는데, 만 4세는 낮은반에서, 만 5세는 높은반에서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높은반에서는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로 소학교를 준비하는 예비 교육을 받게 된다.

〈표 II-4-3〉 북한 유치원 반 편성

반 명칭	연령 기준
낮은반	만 4세
높은반	만 5세

자료: [그림 II-1-2] 북한의 학제 참조.

5. 북한의 영유아 인구 특성

북한의 영유아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 1.86명으로 남한의 1.22보다 많지만 감소추이에 있다.

〈표 II-5-1〉 북한의 출산율

단위: 명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5~2010	2010~2015
남한	2.92	1.60	1.51	1.22	1.26
북한	2.58	2.45	2.09	1.86	1.85

자료: 통계청(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북한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영아사망율에 있다. 1990년대 가중된 식량난, 경제난이¹⁵⁾ 영유아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음을 199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영아사망율이 말해준다.¹⁶⁾

1990년대 이전의 영아 사망률 26명에서 1990년대 중후반에 오면서 약 48명에 이르렀다. 남한의 영유아사망율이 4.4명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이다.

〈표 II-5-2〉 북한의 영아사망율

단위: 명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5~2010	2010~2015
남한	34.0	16.7	7.2	4.4	4.3
북한	35.2	26.1	47.7	48.0	45.6

자료: 통계청(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북한의 무상의료체제가 붕괴되고 의약품의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 어린이가 영양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벼운 설사나 감기 등으로 죽는 경우가 생기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된 소아마비도 재발병했다(월간말, 1997; 김귀옥, 2004 재인용).¹⁷⁾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지역별로 보면, ‘허약도’가 높은 지역은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인데 이 지역은 ‘저체중’과 ‘저신장’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시와 남포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15) 식량난,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은 1995년부터 1997년에 이르는 흉수이다. 그러나 전기, 석유, 석탄을 이용하는 고에너지 생산방식의 주체농법은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1990년대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은 예고하였다. 석유부족은 전력 및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비료 부족의 현상을 낳아서 농업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공장 가동률이 10%대까지 급하강함. 결과 의류, 생필품, 의약품의 결핍, 영양결핍의 결과를 가져왔다(김귀옥, 2004).

16) 식량난이 최고점에 달했던 1990년대 중·후반, 유엔아동기금(UNICEF)는 북한의 자료를 인용, 5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중 37%인 80만명이 영양실조에 처해 있고, 이 중 중증영양실조와 중등도 영양실조가 각각 10%와 65%라고 밝혔다(우석균, 1997; 김귀옥 2004 재인용).

17) 남한의 북한지원은 1995년 북한이 우리정부에게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국내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구분된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일반구호, 농업복구, 보건의료분야 등이며 지원 규모와 액수는 증가 추세이다. 북한 어린이 지원은 1997년 의사, 약사,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를 위시로 굿네이버스, 남북나눔운동, 남북어린이여개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민족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등 민간단체 8곳이다(김귀옥, 2004).

〈표 II-5-3〉 북한 지역별 영유아 영양상태 분포도(2002년)

단위: %

지역	허약도	저체중	저신장
양강도	9.50	26.50	46.67
함경북도	10.68	23.33	42.83
함경남도	12.02	24.17	45.50
평안북도	6.83	17.83	42.40
평안남도	7.19	18.67	42.17
평양	3.68	14.83	27.00
남포	4.33	14.67	23.24
황해북도	9.00	20.67	39.40
황해남도	11.00	20.17	38.56
개성	7.00	20.67	44.41

자료: 김귀옥(2004). 북한어린이의 건강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양상태가 열악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는 국경일대 지역으로 탈북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탈북민이 많다는 것은 지리적 여건도 이유가 있지만, 바로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함경도 산간지역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배급이 지연되고 있었다(김귀옥, 2004)고 한다.

6. 소결

지금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양육제도로 할 수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법령, 운영체계, 제도의 변천, 이용실태, 보육교양과정, 교수방법, 교원양성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남한의 보육·교육제도와 비교분석을 해 보면, 첫째 북한은 해방직 후부터 탁아소와 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탁아소와 유치원의 양적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1970년도에 유치원 6,800개 탁아소 8,600개 합하여 15,400개라는 엄청난 규모의 양육기관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를 합친 규모는 6만여개, 수용 아동수는 350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남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진흥책을 추진하였고, 보육정책은 10년 뒤인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1990년도 남한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합한 수치는 1만여개, 이용 원아수는 약 46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2010년 남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합친다고 해도 4만6천여개라는 점

에서 1980년대 6만여개는 대단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유치원과 탁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북한의 양육제도가 붕괴되는 1990년대 이후부터 남한의 육아지원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북한은 유치원의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단계로 규정하고 1975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완비되었다. 현재 남한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무상은 아니다.¹⁸⁾ 이런 점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앞섰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도시락을 집에서 싸갖고 와야 하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제도적으로 무상지원으로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닐 수 없는 게 북한의 오늘날 현실이라고 한다.¹⁹⁾

셋째, 남한의 보육·교육제도와 유사한 것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관할하는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탁아소는 보건성에서, 유치원은 교육성에 담당하는 이원화 시스템이다. 지향하는 목적도 탁아소는 보육, 유치원은 교양이며 담당하는 교원의 명칭도 각각 보육원, 교양원으로 구분되어 상이한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다. 남한과 유사한 이원화 체계지만 다른 점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함께 규정하는 법령이 “어린이보육교육법”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과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니는 연령이 우리처럼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 지난 5월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2011.5.2).

1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V장에서 다룰 것임.

Ⅲ. 북한의 자녀양육관

Ⅲ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북한 부모의 결혼관과 출산관, 자녀에 대한 기대, 양육태도, 양육신념 등의 자녀양육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기본전제로 제(諸) 사회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자녀양육에 있어서 실제 양육분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1. 응답자 특성

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효표본 199명에서 여성(어머니)이 82.9%(165명)를 차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여성들이었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자'였는데 여성이 주로 표집된 것은 북한도 자녀양육을 여성(어머니)이 주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현재 나이 기준 60세 이상이 37.7%로 가장 많았고 40대 30.2%, 50대 17.6% 순이며 30대 이하가 14.6%로 가장 적었다.

탈북시기는 2000년~2005년이 38.2%(76명)로 가장 많았고 2006년~2011년이 37.7%(75명)로 다음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탈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의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이 탈북의 주요 이유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학력을 보면,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에서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응답자 탈북민의 학력은 고졸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등전문학교 중퇴 및 졸업이 23.1%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 13.1%. 소학교 중퇴 및 졸업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이 11년—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이기 때문에 응답자 중 소학력 중퇴 및 졸업을 제외한 92.5%가 의무교육을 경험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의 주요 직업은 단순노무(일용직)가 36.2%로 가장 많았고, 주부 22.1%, 전문기술직 19.6% 순으로 나왔다. 탁아소·유치원 교사인 교양원과 교원은 8.5%에 그쳤다.

근로소득(화폐개혁 이전)은 50원~100원 미만인 33.2%, 100원 이상이 29.6%로 62.8%를 차지하여 소득의 대부분은 두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수입이 없었음” 26.1%나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에서 주로 거주했던 지역으로는 함경북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가장 많았다. 함경북도가 탈북이 비교적 용이한 국경선이 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 지역 출신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 III-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계		100.0(199)
성별	부	17.1
	모	82.9
연령	39세미만	14.6
	40대	30.2
	50대	17.6
	60세이상	37.7
탈북시기	1990년대	24.1
	2000년~2005년	38.2
	2006년~2011년	37.7
학력수준	소학교중퇴및졸업	7.5
	중학교중퇴및졸업	56.3
	고등전문학교중퇴및졸업	23.1
	대학교중퇴및졸업	13.1
직업	단순노무	36.2
	교양원·교원	8.5
	공무원	13.6
	전문기술직	19.6
	주부	22.1
소득	수입없었음	26.1
	50원미만	11.1
	50-100원미만	33.2
	100원이상	29.6

(표 III-1-1 계속)

구분		계(수)
지역	평양직할시	2.5
	평안남도	8.0
	평안북도	2.5
	황해남도	1.5
	황해북도	0.5
	강원도	1.5
	자강도	1.0
	함경남도	14.1
	함경북도	61.8
	량강도	5.0

응답자 199명의 탈북민들의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을 보면, 무직이 79.6%로 많은 탈북민들이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70.4%) 탈북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다. 가구소득도 '없음'이 37.7%, 100만원 미만인 35.2%로 다수의 탈북민들은 남한에서도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탈북민은 단 한 사례도 표집되지 않았다.

<표 III-1-2>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 수준

단위: %(명)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199)		
현재 직업			
단순노무(일용직)	6.6	사무직	8.3
기술직	1.1	자영업	3.3
학생	1.1	무직	79.6
가구수입			
수입없음	37.7	100만원 미만	35.2
100-200만원 미만	3.0	200-300만원 미만	2.0
300-400만원 미만	1.0	400만원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그렇다	70.4	아니다	29.6

나. 면담조사 응답자 특성

I 장의 3절 연구방법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26명, 아버지가 4명(이 중 1명은 무자녀)이며 40

대가 가장 많았다. 40대의 면담자가 많다는 것은 본인이(부모세대)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녔던 1970~1980년대의 북한의 탁아소, 유치원의 현황과 자녀가 다녔던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탁아소, 유치원의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70~1980년대는 북한에서 양육지원제도와 정책이 가장 잘 수행되었던 시기라 한다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는 정반대의 시기라는 점에서도 북한의 시기별 양육제도와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06년 이후의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수준은 2~3년제의 고등전문학교(우리나라의 전문대학 해당)까지 경험자가 10명, 3~6년 대학교(우리나라의 대학교 해당)까지 이수자가 10명으로 면담자의 2/3는 고등교육을 받았다. 직업은 교양원 또는 소학교 교원이 9명으로 주부와 더불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진이 어느 정도 의도했던 결과이다.

피면담자가 여성에, 최근 탈북자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장사에 종사한 탈북민이 많았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이후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파는 사례가 북한 여성들 중심으로 급증한 북한의 사회상을 피면담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남한에서의 현재 직업은 무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 III-1-3>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명
계		30
성별	부	4
	모	26
연령	39세미만	5
	40대	16
	50대	0
	60세이상	9
탈북시기	1990년대	4
	2000년~2005년	8
	2006년~2011년	18
학력수준	소학교중퇴및졸업	0
	중학교중퇴및졸업	9
	고등전문학교중퇴및졸업	10
	대학교중퇴및졸업	10
	기타(상업간부학교)	1

(표 III-1-3 계속)

구분		명
출생지 (주거주지)	함경북도	20
	평안도	2
	개성	2
	양강도	4
	기타(중국, 황해도)	2
북한직업	고위공무원	2
	교양원·교원	9
	사무직	2
	장사·단순노무	7
	전문직(의사)	1
	주부	8
	기술직	1
남한직업	무직	22
	일용직	4
	사무직	3
	연구직	1

2. 결혼·출산관 및 자녀 기대

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

<표 III-2-1> 결혼과 자녀갖기에 대한 생각

단위: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4점 척도)
부모가 되는 것 가치있는 일	1.0	7.0	42.7	49.2	100.0(199)	3.40
자녀 갖는 건 사회의 의무임	5.6	15.2	47.2	32.0	100.0(197)	3.06
자녀있어도 자유제약 안 됨	5.6	23.9	49.7	20.8	100.0(197)	2.86
결혼하더라도 아이가질 필요 없음	21.0	38.5	29.7	10.8	100.0(195)	2.30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되기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네 가지 문항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가 49.2%,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32%,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20.8%,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10.8% 수준이다. 특히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21.0%가 전혀 아니라고 하여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보다 많다. '부모되기가 가치 있는 일이다'가 4점 만점에 3.4점,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3.1점,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2.9점,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2.2점이다. 자녀와 관련된 생각은 응답자 특성 차이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표 IV-1-2 참조).

<표 III-2-2> 결혼과 자녀갖기에 대한 생각: 변인별

단위: 점

구분	부모되는 것 가치있는일	자녀갖는건 사회의무임	자녀있어도 자유제약 안됨	결혼하더라도 아이가질필요 없음	계(명)
전체	3.40(0.66)	3.06(0.83)	2.86(0.80)	2.30(0.92)	(199)
성별					
부	3.29	3.00	2.71	2.31	(34)
모	3.42	3.07	2.89	2.30	(165)
t	-1.03	-0.43	-1.20	0.06	
연령					
39세미만	3.31	3.30	2.83	2.41	(29)
40대	3.35	2.95	2.71	2.17	(60)
50대	3.49	2.97	3.06	2.11	(35)
60세이상	3.44	3.19	2.89	2.45	(75)
F	0.56	1.07	1.45	1.66	
소득					
소득없었음	3.37	3.02	2.90	2.23	(52)
50원미만	3.45	3.23	2.82	2.64	(22)
50-100원미만	3.36	3.11	2.85	2.42	(66)
100원이상	3.46	2.97	2.84	2.11	(59)
F	0.30	0.65	0.07	2.27+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3.20	3.00	2.93	2.50	(15)
중학교중퇴및졸업	3.38	3.09	2.86	2.27	(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3.48	3.04	2.89	2.36	(45)
대학교중퇴및졸업	3.46	2.96	2.73	2.24	(26)
F	0.75	0.19	0.28	0.34	

주: ()는 표준편차임.

+ $p < .10$.

면담조사에서도 북한은 한 개인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출산은 너무도 당연한 통과의례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 게 북한사회라도 많은 피면담자들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젊은 배운 여성세대에서 독신을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는 듯하다.

[현재 60대 북한 여성의 결혼관]

(질문) 유치원 교원이셨으니까 애들 키우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셨겠네요. 어머님 친구 분들도 다 결혼을 하셨나요? (답) 다 했어요. 우리 북한은 다 했어요. (질) 독신이라는 건 없나요? (답) 여기는(남한은) 독신이 많은데 북한은 독신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북한은 다 나이가 들며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이런 가치가 있지. 최근에는 평양시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시집 안 갈라 해요. 지금 최근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것도 십년 안팎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시집을 가요. 또 시집 안가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최근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독특하게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사례 12)

[현재 30~40대 여성의 결혼관 및 출산관]

북한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구요.(사례 18)

북한에서는 결혼은 응당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스물 네 살부터 스물 여섯 살까지 (결혼) 적정기로 생각해요. 거기서는……아이를 낳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많이는 못 낳아도 하나는 낳아야 된다고.(사례 13)

북한에서는 뭐 자녀를 꼭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개념 같은 것은(없어요)……결혼도 당연히 해야되고 결혼했으면 애는 당연히 낳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사례 11)

[현재 40대 남성의 결혼관]

북한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남녀간에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게 사람의 일생생활에서 제일 큰 말하자면 낙이 아닙니까,……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극히 드문데 보면 모자라던데 정신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이렇게 생각하지 결혼을 안했다고 하면 벌써 취급 안한다는 말입니다. 정상사람으로써의 취급이 박탈됩니다.……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단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막 말을 해서 사람취급을 안합니다.(사례 20)

나. 자녀 가치

자녀의 가치를 정서와 도구 측면으로 나누어, 정서적 가치 측면으로는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과 노년에 덜 외로움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도구적 가치로는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줌, 집안의 대를 이음의 총 네 문항

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가치로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4점 척도로 3.5점이고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는 3.41점이며, 도구적 가치로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3.4점 정도이며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2.96점이다.

<표 III-2-3> 자녀에 대한 가치

단위: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줌	0.5	7.1	34.8	57.6	100.0(198)	3.49
자녀가 있음 노년에 덜 외로움	1.5	6.1	41.9	50.5	100.0(198)	3.41
자녀 있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음	2.0	25.9	45.7	26.4	100.0(197)	2.96
집안 대 잇기 위해 자녀 뒤희함	2.0	10.6	46.2	41.2	100.0(199)	3.27

자녀 가치와 관련된 생각의 응답자 특성 차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면 부모간 및 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받음 문항만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기대를 가지는 방향으로 차이가 유의하다(표 IV-1-4 참조).

<표 III-2-4> 자녀에 대한 가치: 변인별

단위: 점(명)

구분	자녀가 부부관계더 굳건히해줌	자녀있으면 노년에덜 외로움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받음	집안대를 잇기위해 자녀뒤희함	계
전체	3.49(0.65)	3.41(0.67)	2.96(0.77)	3.27(0.72)	(199)
성별					
부	3.42	3.29	2.97	3.32	(34)
모	3.51	3.44	2.96	3.25	(165)
t	-0.68	-1.13	0.05	0.50	

(표 III-2-4 계속)

구분	자녀부부관계 더 굳건히 해줌	자녀있으면 노년에 덜 외로움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받음	집안대를 잇기 위해 자녀되야함	계
연령					
39세미만	3.44	3.23	2.62	3.23	(52)
40대	3.64	3.41	3.00	3.45	(22)
50대	3.48	3.46	3.11	3.33	(66)
60세이상	3.50	3.53	3.10	3.15	(59)
F	0.46	1.94	5.15**	1.20	
소득					
소득없었음	3.44	3.23	2.62	3.23	(52)
50원미만	3.64	3.41	3.00	3.45	(22)
50-100원미만	3.48	3.46	3.11	3.33	(66)
100원이상	3.50	3.53	3.10	3.15	(59)
F	0.46	1.94	5.15	1.20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3.50	3.27	2.86	3.27	(15)
중학교중퇴및졸업	3.48	3.40	2.88	3.28	(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3.54	3.44	3.13	3.26	(45)
대학교중퇴및졸업	3.46	3.50	3.12	3.23	(27)
F	0.12	0.41	1.62	0.02	

주: ()는 표준편차임.

* $p < .05$, ** $p < .01$.

다. 남아선호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하는 태도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여아보다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두 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성 선호 점수는 4점 만점에 각각 2.9점 내외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지 않다.

<표 III-2-5> 남아선호에 대한 생각

단위: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집안 대 잇기위해 아들 필요	6.5	21.1	45.7	26.6	100.0(199)	2.92
여아보다 남아에게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해 지원 더 많이 필요함	6.6	25.3	43.4	24.7	100.0(198)	2.86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문항의 응답자 특성별 집단 차이도 자녀가치와 마찬가지로 부와 모의 차이는 거의 없고 부모 학력 차이도 유의하지 않다. 연령과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 여아보다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질문 결과는 집단간 차이가 없다(표 IV-1-6 참조).

<표 III-2-6> 남아선호에 대한 생각: 변인별

단위: 점(명)

구분	집안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	여아보다 남아를 공부 더 많이 시켜야해서 지원이 더 필요함	계
전체	2.86(0.86)	2.92(0.85)	(199)
성별			
부	3.03	3.06	(34)
모	2.90	2.82	(165)
t	0.78	1.45	
연령			
39세미만	2.93	2.90	(29)
40대	2.75	2.72	(60)
50대	2.77	2.83	(35)
60세이상	3.13	2.99	(75)
F	2.74*	1.11	
소득			
소득없었음	2.85	2.63	(52)
50원미만	3.23	3.09	(22)
50-100원미만	3.06	2.92	(66)
100원이상	2.73	2.92	(59)
F	2.70*	1.92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2.93(0.70)	3.07	(15)
중학교중퇴및졸업	2.96(0.85)	2.85	(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2.98(0.77)	3.02	(46)
대학교중퇴및졸업	2.69(1.08)	2.54	(26)
F	0.74	2.06	

주: ()는 표준편차임.

* $p < .05$.

설문조사 결과처럼, 면담조사에서도 연령이 많은 경우는 남아선호사상을 갖고 있었으나 30~40대 여성에서는 남아를 낳아야 한다는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여아를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젊은 부모들의 면담에서 나왔다.

[현재 60대 남아선호사상]

남자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도 딸 낳으면 후대가 끊어지니까 남자 아들이,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 기준으로 해요. 우리 세대만 해도 내 제사를 챙겨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사례 12)

남녀구별한다고 내 맘 대로 구별해서 낳은 거는 아닌 거고, 그래도 아들은 반드시 한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여자, 남자 낳은 거 보다 여자가 사회적으로 돈벌이도 북한은 장사도 여자가 하니까 여자들을 귀중히 여겨요. 여자 낳는 거 좋아하는 가정도 많아요.(사례 16)

[현재 40대 남성의 남아선호사상]

우리 때부터는 저는 (남아선호) 별로였어요.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아들을 원해요. 아들을 원하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어 졌어요. 딸도 원하는 거예요. 딸도 키우면 이쁘고 키우는 재미도 있다. 그리고 아들은 장가가면 그만이지만 딸은 그래도 부모를 보살피는 마음은(딸이 더 낫죠)…….(사례 14)

[현재 30대 여성의 남아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딸을 더 선호했어요. (질)남편 분도 딸을 더 선호했나요? (답) 남편은 당연히 아들을. 그랬지요 아들을. 아직도 북한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다나니깐 그렇지만 딸을 많이 선호해요. 딸도 있어야 된다…….(사례 18)

라. 자녀양육에 있어 중요한 덕목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주요한 덕목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 지닌 자녀로 성장, 국가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성장,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외국어 배우기,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문항 모두 4점 척도로 평균 3점 이상인데, 점수가 높은 순서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 지닌 자녀로 성장 3.65점, 숫자와 글자 익히기 3.53점,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3.44점, 국가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성장 3.22점,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3.10점, 외국어 배우기 3.00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국어 배우기는 중요하지 않다가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2-7> 자녀양육시 중시했던 덕목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비교적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계(수)	평균
건강한 신체와 정신 지닌 자녀로 성장	0.5	2.0	29.1	68.3	100.0(199)	3.65
국가체제에 순응하는 국민 으로 성장	2.0	15.6	41.2	41.2	100.0(199)	3.2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	5.1	45.5	45.5	100.0(198)	3.44
숫자와 글자 익히기	0.5	3.0	39.2	57.3	100.0(199)	3.53
외국어 배우기	3.5	26.6	36.2	33.7	100.0(199)	3.00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3.5	18.1	43.7	34.7	100.0(199)	3.10

이러한 결과는 이들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선택하게 한 조사에서
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한 신체와 정신 지닌 자녀로 성장하기가 66.8%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다음은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12.1%, 국가체제에 순응하
는 국민으로 성장 10.6%, 숫자와 글자 익히기 8.0%, 외국어 배우기 2.0%,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0.5%로 조정되었다.

부모 특성별 집단간 차이를 국가체제에 순응이라는 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부가 모보다 국가체제에 순응 선호 비율이 높고, 젊은 부모들보다는 나이
가 많은 부모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들이 이를 가장 중요한 덕
목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2-8> 자녀양육시 중시했던 덕목: 변인별

단위: %(명)

구분	건강한 신체	국가 체제 순응	기본 생활 습관	숫자와 글자	외국어	음악, 미술, 체조	계(수)
전체	66.8	10.6	12.1	8.0	2.0	0.5	100.0(199)
성별							
부	64.7	14.7	14.7	2.9	2.9	-	100.0(34)
모	67.3	9.7	11.5	9.1	1.8	0.6	100.0(165)

(표 III-2-8 계속)

구분	건강한 신체	국가 체제 순응	기본 생활 습관	숫자와 글자	외국어	음악, 미술, 체조	계(수)
연령							
39세미만	65.5	6.9	10.3	10.3	6.9	-	100.0(29)
40대	65.0	8.3	16.7	8.3	1.7	-	100.0(60)
50대	77.1	14.3	2.9	5.7	-	-	100.0(35)
60세이상	64.0	12.0	13.3	8.0	1.3	1.3	100.0(75)
소득							
소득없었음	71.2	3.8	15.4	9.6	-	-	100.0(52)
50원미만	68.2	4.5	13.6	4.5	9.1	-	100.0(22)
50-100원미만	63.6	15.2	10.6	9.1	-	1.5	100.0(66)
100원이상	66.1	13.6	10.2	6.8	3.4	-	100.0(59)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86.7	-	13.3	-	-	-	100.0(15)
중학교중퇴및졸업	66.1	10.7	10.7	11.6	0.9	-	100.0(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69.6	15.2	8.7	2.2	2.2	2.2	100.0(46)
대학교중퇴및졸업	53.8	7.7	23.1	7.7	7.7	-	100.0(26)

면담조사에서도 연령이 많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사례들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국가체제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을 부모차원에서 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비해, 하루 하루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저소득층 사례에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에서 교원을 한 70대 여성]

집에서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나 복종심을 가르쳤죠. 항상 자녀들에게 말해요. 기본이 그거죠. 하하하. 그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복종해야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선 집에서는 (김일성 부자)초상화 관리. 아마 지금은 안 할거야. 우리 그때는 20-30년 전인데. 그때량은 다르죠.(사례 16)

[북한에서 생계차원의 장사를 한 40대 여성]

가정에서는 뭐 그거(김일성, 김정일 부자 충성심 교육) 하는 집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요. 저희 집은 뭐 그거 뭐 벽에다가 초상화 걸어 놓고 그런데 나가서는 하는데 솔직히 가정에서 그런 교육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로. 제가 아는 집도 뭐, 아버지 장군님께 충성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아요.(사례 11)

나 자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가정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 때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 교육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생각조차 못했고 그리고 그때 상태에서는 95년, 96년, 97년

그때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진짜 막 사람이 굶어서 죽어나가고 영양실조 걸려서 텅텅 붓고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그런 충성심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요. 그때는.(사례 13)

마. 자녀 기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장래에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행복한 가정이 3.6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음이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각각 3.4점 내외이며, 돈은 많이 버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이 모두 3.2점대이다.

〈표 III-2-9〉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단위: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 길 바람	2.5	10.6	50.8	36.2	100.0(199)	3.21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이 되길 바람	1.5	8.0	42.2	48.2	100.0(199)	3.37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 람이 되길 바람	2.0	7.1	37.6	53.3	100.0(197)	3.42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람	1.5	13.1	46.2	39.2	100.0(199)	3.23
행복한 가정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람	-	-	32.3	67.7	100.0(198)	3.68
취미나 여가를 즐길 줄 아 는 사람이 되길 바람	1.0	11.1	48.2	39.7	100.0(199)	3.27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는 1순위가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28% 수준이며 다음이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25%, 돈을 많

이 버는 사람 23%로 20% 이상이고, 이외는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13.6%,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9.5%이며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은 0.5%로 조사되어서,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지위, 축재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음을 나타냈다.

집단간 차이로는, 아버지는 사회적 명성과 남을 돕는 사람을, 어머니는 돈 많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커주기를 기대한 다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40대 이하가 돈을, 50~60대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선호하였으며, 소득수준은 높은 사람들이 명성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은 교양원, 교원과 공무원이 행복한 가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2-10>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변인별

단위: %(명)

구분	돈많이 버는 사람	명성,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갖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 이름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	계(수)
전체	23.1	28.1	25.1	9.5	13.6	0.5	100.0(199)
성별							
부	11.8	38.2	23.5	17.6	8.8	-	100.0(34)
모	25.5	26.1	25.5	7.9	14.5	0.6	100.0(165)
연령							
39세미만	31.0	17.2	24.1	13.8	13.8	-	100.0(29)
40대	30.0	30.0	20.0	8.3	11.7	-	100.0(60)
50대	17.1	25.7	28.6	14.3	11.4	2.9	100.0(35)
60세이상	17.3	25.7	28.6	14.3	11.4	2.9	100.0(35)
소득							
소득없었음	28.8	26.9	25.0	5.8	13.5	-	100.0(52)
50원미만	40.9	18.2	27.3	4.5	9.1	-	100.0(22)
50-100원미만	18.2	31.8	22.7	13.6	13.6	-	100.0(66)
100원이상	16.9	28.8	27.1	10.2	15.3	1.7	100.0(59)
직업							
단순노무	31.0	15.5	28.2	12.7	11.3	1.4	100.0(71)
교양원교원	5.9	35.3	23.5	5.9	29.4	-	100.0(17)
공무원	7.4	51.9	22.2	-	18.5	-	100.0(27)
전문기술직	17.9	38.5	23.1	12.8	7.7	-	100.0(39)
주부	31.8	20.5	25.0	9.1	13.6	-	100.0(44)

3. 양육태도

본 조사에서는 자녀양육태도는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차원적인 척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항목으로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 본 적이 있다', '참으려다가 외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는 수용과 거부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이며, '자녀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통제와 자율을 측정하려는 질문이다.

먼저 수용과 거부 차원을 보면,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 본 적이 있다' 항목이 '참으려다가 외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는 항목과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는 항목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수용을 나타내는 두 문항은 4점 척도로 각각 3.13점, 3.04점이고 거부를 나타내는 두 문항이 각각 2.8점, 2.95점으로 거부보다는 수용적 태도가 강함을 나타냈다.

자율과 통제 차원에서는 '자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항목에서 모두 4점 척도로 3.2점을 넘는 수준으로 유사하고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가 2.88점으로 다소 낮았다. 즉, 자율과 통제 차원에서는 그 분명한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표 III-3-1〉 양육자의 양육태도

단위: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격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임	1.0	15.6	53.3	30.2	100.0(199)	3.13

(표 III-3-1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자녀필요와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봄	2.0	14.1	61.6	22.2	100.0(198)	3.04
화를내거나 큰소리 치는 때 가 있음	2.0	24.6	56.8	16.6	100.0(199)	2.88
잘못된행동 봐주거나 넘어 가지 않는 편임	4.5	14.6	61.8	19.1	100.0(199)	2.95
자녀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임	1.0	6.5	60.8	31.7	100.0(199)	3.23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	1.0	11.6	50.0	37.4	100.0(198)	3.24
자녀일에 감시,제한할 필요 있음	2.5	26.8	50.5	20.2	100.0(198)	2.88
가정내 규칙, 규율 세우고 지키도록 엄격히 지도함	0.5	10.1	53.3	36.2	100.0(199)	3.25

이러한 응답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수용을 나타내는 ‘격없이 즐거움을 나눔’ 문항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자녀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문항에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또한 연령이 30대나 그 이하보다는 40대 이상에서 점수가 높았다. 즉, 40대 이상의 아버지가 그 이외 집단보다 허용적 태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거부를 나타낸 문항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2> 양육자의 양육태도: 수용과 거부

단위: 점(명)

구분	격없이 즐거움나눔	자녀입장에 서생각해봄	큰소리 치는데있음	잘못된행동 넘어가지않음	계
전체	3.13	3.04(0.66)	2.88(0.69)	2.95(0.72)	(199)
성별					
부	2.85	2.79	2.97	3.00(0.65)	(34)
모	3.18	3.09	2.86	2.95(0.73)	(165)
t	-2.54*	-2.39*	0.84	0.40	

(표 III-3-2 계속)

구분	격없이 즐거움나눔	자녀입장에서 생각해봄	큰소리 치는데있음	잘못된행동 넘어가지않음	계
연령					
39세미만	3.17	2.76	2.79	3.00(0.80)	(29)
40대	3.13	3.19	2.85	2.92(0.69)	(60)
50대	3.14	3.00	2.86	2.94(0.90)	(35)
60세이상	3.09	3.05	2.95	2.97(0.61)	(75)
F	0.10	2.79*	0.43	0.11	
소득					
소득없었음	3.23	3.06	2.85	3.00(0.71)	(52)
50원미만	3.41	3.23	2.73	2.95(0.78)	(22)
50-100원미만	3.08	3.06	2.95	2.97(0.65)	(65)
100원이상	2.98	2.93	2.88	2.90(0.78)	(59)
F	2.61+	1.12	0.64	0.19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3.13	3.13	2.73	3.07(0.59)	(15)
중학교중퇴및졸업	3.11	3.04	2.85	2.92(0.71)	(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3.07	3.20	3.00	2.98(0.68)	(46)
대학교중퇴및졸업	3.31	3.04	2.88	3.00(0.89)	(26)
F	0.73	0.10	0.76	0.25	

주: ()는 표준편차임.

+ $p < .10$, * $p < .05$.

자율-통제 관련 문항은 자율을 나타낸 문항에서는 ‘자녀스스로 찾아서하게 한다’는 문항이 소득계층별로 집단간 차이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도가 낮고 일관성도 찾기 어렵다. 통제를 나타낸 문항은 ‘자녀 일에 감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문항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점수가 높고 60대 이상이 그 이외 연령대보다 점수가 높다. 즉, 60대 이상과 어머니가 통제적인 태도가 높다고 하겠다.

<표 III-3-3> 양육자의 양육태도: 자율과 통제

단위: 점(명)

구분	자녀스스로찾 아서하게함	부모말에절대 순종해야함	자녀일에감 시,제한필요	가정내규칙, 규율지키게함	계
전체	3.23(0.60)	3.24(0.69)	2.88(0.74)	3.25(0.64)	(199)
성별					
부	3.24	3.12	3.00	3.21	(34)
모	3.23	3.26	2.86	3.26	(165)
t	0.43	-1.05	0.99	-0.44	

(표 III-3-3 계속)

구분	자녀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함	부모말에 절대 순종해야 함	자녀 일에 감시, 제한 필요	가정 내 규칙, 규율 지키게 함	계
연령					
39세 미만	3.24	3.17	2.97	3.28	(29)
40대	3.27	3.24	2.77	3.20	(60)
50대	3.11	3.17	2.60	3.31	(35)
60세 이상	3.25	3.29	3.08	3.25	(75)
F	0.53	0.35	4.149**	0.24	
소득					
소득없음	3.19	3.17	2.88	3.29	(52)
50원 미만	3.55	3.50	2.86	3.32	(22)
50-100원 미만	3.21	3.26	2.91	3.17	(66)
100원 이상	3.17	3.17	2.86	3.29	(59)
F	2.29+	1.43	0.04	0.56	
학력					
소학교 중퇴 및 졸업	3.20	3.40	3.07	3.27	(15)
중학교 중퇴 및 졸업	3.21	3.24	2.86	3.26	(112)
전문학교 중퇴 및 졸업	3.26	3.20	2.91	3.24	(46)
대학교 중퇴 및 졸업	3.27	3.19	2.84	3.23	(26)
F	0.11	0.37	0.39	0.02	

주: ()는 표준편차임.

+ $p < .10$, ** $p < .01$.

선입견에 북한의 부모들은 권위적이고 엄격하게 자녀를 양육할 것으로 인식했는데, 면담조사를 통해 양육자 개인의 성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 북한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울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답) 그런 집도 있지요. 뭐 자식한테 엄포를 놓고 뭐 아이가 진짜 공포에 항상 내가 이거 엄마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말하자면 협박이지요. 그 공포심에 항상 그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집안 가족 내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자식들은 무조건 말로 다스려야 된다. 어머니는 뭐 매질은 안 했어요. 그냥 애가 그냥 우리 엄마도 원래 우리들 키울 때부터 그냥 자식들은 말로 다스려서 말로 이렇게 그 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를 움직이게끔 해야지 매를 때리면 매보다 더 한 걸 가혹하게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말로 다스렸어요.(사례 11)

4. 양육신념

자녀양육관에 대해 7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는 <표 III-4-1>과 같다. 먼저, 육아와 나의 인생의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 61.8%는 아이를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으며 38.2%는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전체응답비율보다 더 높게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은 전체 응답자 67.3%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고 32.7%는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39세 미만~50대까지는 약 70%이상이, 60세 이상은 56%만이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여 연령 간 차이를 보였다.

훈육에 관련해서는 전체응답자 52.3%가 버릇없이 굴 때 매질해서라도 야단쳐야하며, 47.7%는 버릇없이 굴 때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능력 개발에서는 전체응답자의 69.2%가 아이의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30.8%는 아이의 능력은 타고난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후천적으로 향상이 가능하다는 응답에서 39세미만, 40대와 50대는 전체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74.4%가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애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5.6%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체응답자 65.3%는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어야 하며 34.7%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에서는 자녀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서 39세미만과 40대가 전체보다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 86.4%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3.6%는 자

녀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1> 자녀양육관

단위: %(명)

	구분	전체	39세미만	40대	50대	60대
육아와 나의인생 중요성	내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음	38.2	44.8	28.3	31.4	46.7
	아이위해 내 인생 희생할 수 있음	61.8	55.2	71.7	68.6	53.3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엄마의 직접양육 중요성	3세까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음	67.3	79.3	73.3	71.4	56.0
	엄마가 곁에 없더라도 애정 갖고 키우면 문제없음	32.7	20.7	26.7	28.6	44.0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훈육	버릇없이 굴 때 매질해서 야단침	52.3	58.6	46.7	60.0	50.7
	버릇없이 굴 때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음	47.7	41.4	53.3	40.0	49.3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아이의 능력개발	능력은 유전에 의해 결정됨	30.8	20.7	28.3	28.6	37.8
	능력은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69.2	79.3	71.7	71.4	62.2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집단 대 개인중심 가치	부모, 어른 존경심, 배려, 헌신 중요함	74.4	72.4	78.3	80.0	69.3
	자신에 대한 존중, 성취 중요	25.6	27.6	21.7	20.0	30.7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자녀 진로에 대한의견	공부 잘 지도해 명문대학 진학 시킴	34.7	24.1	23.3	40.0	45.3
	아이 자질 키워주는 것이 중요	65.3	75.9	76.7	60.0	54.7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국가의 책임	양육 책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함	86.4	86.2	91.7	88.6	81.3
	양육 책임 전적으로 국가 몫임	13.6	13.8	8.3	11.4	18.7
	계(수)	100.0(199)	100.0(29)	100.0(60)	100.0(35)	100.0(75)

(질)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두는, 그래 좋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나요? (답)애를 잘 키우려고? 그런 건 없어요. 그저 그거는 없고 탁아소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선생님들한테 좀, 좀 퇴물을 줘서 우리 아들 좀 조사해 봐 달라. 부탁하는 건 있어요. 그런 역량은 많아요.(사례 3)

우리는 노동자 집안이니까 큰 출세를 바라지 못하죠. 그냥 군대나 가라. 어차피 군대 가야하니까 군대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영웅이 되라. 그런 교양을 많이 하죠. (질)군관학교? (답)그렇죠. 군대나 가서 군관학교 군관이 돼서 멋지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죠. 당과 수령과 정부 위해서 몸 바치라 이 소리죠. 우리야 그걸 기본으로 충실하니까.(사례 27)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전에 내 말했지만 당원이며 제대군인 대학생이 되어야만 발전이 제일 빠르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군대에 보내서 대학추천 받아가지고 와서 대학 다녀서 그다음에 발전하게끔 그게 그저 내 목표였으니까.(사례 25)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느꼈던 정서(감정)에 대해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표 III-4-2>와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낌,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임,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는 문항에서는 대부분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평균 3.2이상(4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움과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는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임과 그런 편이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고, 평균 2.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자녀 양육시 느꼈던 정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낌	-	9.5	52.8	37.7	100.0(199)	3.28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움	7.5	51.8	31.2	9.5	100.0(199)	2.43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7.0	37.2	46.7	9.0	100.0(199)	2.58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임	-	5.0	48.2	46.7	100.0(199)	3.42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됨	2.0	6.0	48.7	43.2	100.0(199)	3.33

북한에서 자녀양육시 느꼈던 정서에 대한 문항을 응답자 특성 차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은 내 자신도 성장함과 양육방법 혼란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양육방법혼란과 참고만 사는 것 같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 소득에아이의 장래가 걱정됨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양육방법 혼란, 참고만 사는 것 같음이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이의 장래 성장 걱정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일관성있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

<표 III-4-3> 자녀 양육시 정서

단위: 점(명)

구분	내자신도 성장함	양육방법 혼란	참고만사는 것 같음	아이양육 행복함	장래성장 걱정됨	계
전체	3.28(0.62)	2.43(0.76)	2.43(0.76)	3.42(0.58)	3.33(0.68)	(199)
성별						
부	3.09	2.38	2.56	3.44	3.29	(34)
모	3.32	2.44	2.58	3.41	3.34	(165)
t	-1.98*	-1.98+	-0.44	0.26	-0.35	
연령						
39세미만	3.45	2.66	2.59	3.55	3.28	(52)
40대	3.22	2.22	2.38	3.47	3.33	(22)
50대	3.26	2.23	2.40	3.37	3.29	(66)
60세이상	3.28	2.60	2.81	3.35	3.37	(59)
F	0.91	4.64**	4.66**	1.08	0.20	
소득						
소득없었음	3.29	2.42	2.48	3.42	3.29	(52)
50원미만	3.50	2.41	2.45	3.59	3.00	(22)
50-100원미만	3.26	2.45	2.79	3.42	3.47	(66)
100원이상	3.22	2.41	2.47	3.34	3.34	(59)
F	1.10	0.04	2.62+	0.99	2.78*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3.13	2.67	2.67	3.27	3.07	(15)
중학교중퇴및졸업	3.24	2.46	2.46	3.45	3.28	(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3.39	2.50	2.50	3.37	3.57	(45)
대학교중퇴및졸업	3.35	2.00	2.00	3.46	3.31	(27)
F	0.99	3.52*	2.95*	0.56	2.88*	

주: ()는 표준편차임.

+ $p < .10$, * $p < .05$, ** $p < .01$.

5. 양육분담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배우자와 자녀 돌보기를 얼마나 분담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표 III-5-1>과 같다. 각 문항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밥 먹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공부 돌봐주기에서 부부공동이 제일 많았고, 탁아소,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는 대부분 부인이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남편 분담	대부분 남편 분담	부부공동	대부분 부인 분담	전적으로 부인 분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돌봄	계(수)
밥먹고 옷입는 것	-	3.5	37.2	32.2	26.1	1.0	1000(199)
함께 놀아주기	2.0	3.5	41.2	26.1	25.1	2.0	1000(199)
아플 때 돌봐주기	1.5	1.5	35.9	34.3	25.8	1.0	1000(198)
숙제·공부 돌봐주기	2.0	5.1	38.9	27.3	25.3	1.5	1000(198)
탁아소,유치원 등 하원시키기	1.0	2.0	31.5	33.0	29.9	2.5	1000(197)

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밥 먹고 옷 입는 것은 39세 이하부터 50대까지 부부공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부인분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함께 놀아주는 모든 연령에서 부부공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부인이나 전적으로 부인 분담항목에서 세대가 높아짐에 따라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아플 때 돌봐주는 39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부부공동이, 40대는 부부공동과 대부분 부인분담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는 대부분 부인분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제·공부 돌봐주는 39세 이하부터 50대까지는 부부공동이,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부인분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탁아소·유치원 등·하원 시키기는 39세 이하부터 40대는 부부공동이 가장 높았고, 50대부터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부인분담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부인 분담 항목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북한에서도 부부가 공

동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III-5-2 참조).

[부모 연령 30대 자녀돌보기 분담]

(질)그럼 아이 키울 때 남편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답)글쎄 그건 아니 도와주는 가정도 있지요. 그 자식을 진짜 그 애정 부모 뭐 그런 애정이 있어가지고 남편들이 자식을 끔찍이 챙기고 자식을 아내보다 더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집들도 있는데. (질)대체적으로? (답)대체적으로는 그냥 응당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 된다. (질)선생님 남편분도 그러셨던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답)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거든요.(사례 11)

[부모 연령 40대 자녀돌보기 분담]

(질)애기가 갓난애기 이런애들을 돌보 돌본다든지 그렇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낯설으신가요? (답)그런 경우는 그저 가끔 있는데 그게 남자가 전문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이런 경향은 없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업고 나가서 탁아소에 맡기지 않으면 자기 말하자면 자기집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말하면 가시집 본가집이요 거기 가서 본가집 어머니한테 봐달라고 그런다던가 이러지 남자한테 갓난애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사례 20)

[부모 연령 60대 자녀돌보기 분담]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부부간 생활이 북한에 그렇게 그땐 ###와 같았어요. 자기 학교 가는 데가 거기니까 출근하는 사무실이 그러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고. (질)유치원, 탁아소가 그 근처에? (답)아니, 아니. 우리 선생이 세대주가 가는 사무실이 젊어서 설계하다가 마지막에 교원하고 돌아가셨는데 거기니까 탁아소, 유치원에 거기다 애들 데려다 주고 저녁에 또 난 탁아소라는데 있으면 바빠요. 유치원 내가. 가정적으로 빨래하고 무슨 ### 일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낮에도 사무실에서 와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사례 12)

<표 III-5-2>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변인별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남편 분담	대부분 남편 분담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분담	전적으로 부인 분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돌봄	계(수)
밥먹고 옷입는 것	39세이하	-	-	41.4	31.1	27.6	-	100.0(29)
	40대	-	3.3	41.7	31.7	23.3	-	100.0(60)
	50대	-	8.6	34.3	31.4	25.7	-	100.0(35)
	60세이상	-	2.7	33.3	33.3	28.0	2.7	100.0(75)
함께 놀아주기	39세이하	6.9	-	51.7	17.2	20.7	3.4	100.0(29)
	40대	1.7	5.0	41.7	28.3	23.3	-	100.0(60)
	50대	2.9	5.7	45.7	20.0	22.9	2.9	100.0(35)
	60세이상	-	2.7	34.7	30.7	29.3	2.7	100.0(75)

(표 III-5-2 계속)

구분		전적으로 남편 분담	대부분 남편 분담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분담	전적으로 부인 분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돌봄	계(수)
아플 때 돌봐주기	39세이하	-	3.4	41.4	37.9	17.2	-	100.0(29)
	40대	3.4	1.7	33.9	33.9	27.1	-	100.0(59)
	50대	-	2.9	25.7	40.0	31.4	-	100.0(35)
	60세이상	1.3	-	40.0	30.7	25.3	2.7	100.0(75)
숙제, 공부 돌봐주기	39세이하	3.4	3.4	55.2	17.2	17.2	3.4	100.0(29)
	40대	1.7	5.1	40.7	28.8	23.7	-	100.0(59)
	50대	-	5.7	45.7	20.0	28.6	-	100.0(35)
	60세이상	2.7	5.3	28.0	33.3	28.0	2.7	100.0(75)
탁아소, 유치원 등하원시 키기	39세이하	3.6	-	35.7	32.1	25.0	3.6	100.0(28)
	40대	1.7	1.7	43.3	28.3	25.0	-	100.0(60)
	50대	-	2.9	23.5	41.2	32.4	-	100.0(34)
	60세이상	-	2.7	24.0	33.3	34.7	5.3	100.0(75)

다음으로 북한에서 부부간 성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가능하다고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문항은 평균 약 3.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직업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음, 맞벌이 경우에도 가족 생계를 남편이 책임져야 함,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약 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표 III-5-3 참조).

<표 III-5-3>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남편은 직업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음	3.5	17.1	56.3	23.1	100.0(199)	2.99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관계 원만히 유지가능	1.0	15.6	65.3	18.1	100.0(199)	3.01

(표 III-5-3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맞벌이 경우에도 가족 생계 남편이 책임져야 함	5.1	26.3	47.0	21.7	100.0(198)	2.85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4.0	18.1	59.8	18.1	100.0(199)	2.92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내가 더 잘할 수 있음	-	9.5	57.3	33.2	100.0(199)	3.24

북한에서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문항을 응답자 특성 차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면,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변인에서 맞벌이 부부라도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아내 취업 후 자녀 관계 원만히 유지와 맞벌이 부부라도 생계는 남편이 책임짐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부부 남편이 생계책임, 남편보다 아내가 노인을 잘 돌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문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표 III-5-4 참조). 다음의 면담사례를 통해 북한 부부의 성별에 따라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북한 절차로 보면 아직까지도 집안의 가장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가 집안의 모든걸 해야 된다. 아직은 선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집안의 모든걸 해야된다.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는게 여자임무다. 그런데 여성이 벌고 남성이 좀 수입이 없고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성보다 좀 경제 돈을 버는데서 여성보다 좀 딸리거나 이렇게 되면 남자가 집에서 여성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집안도 좀 청소하고 그런 경향도 있고 대부분 보면 여성이 가정을 해야 되야지 남자가 가정에 들어와서 이런 뭐 밥을 한다던가 식기를 까신다던가 이런거는 좀 어색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사례 20)

북한에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실제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남편들이 놀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가서 하루벌이 하거든요. 장마당, 다른고장에 가서 상품을 가져 온다던가, 그거 행방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안의 가정을 남편들이 봐요.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움직여야 먹고 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 시대는 과거와 달라요. 남자들이 집에서 가정도 보고 애들도 보고, 그런게 많아요.(사례24)

<표 III-5-4>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생각: 변인별

단위: 점(명)

구분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돌봄	아내 취업후 자녀관계 원만히 유지	맞벌이 부부라도 생계는 남편이 책임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수 있음	남편보다 아내가 노인을 잘 돌봄	계
전체	2.99(0.73)	3.01(0.61)	2.85(0.81)	2.92(0.72)	3.24(0.61)	(199)
성별						
부	3.09(0.62)	2.94(0.48)	3.24(0.65)	2.85(0.78)	3.32(0.53)	(34)
모	2.97(0.76)	3.02(0.63)	2.77(0.82)	2.93(0.70)	3.22(0.62)	(165)
t	0.85	-0.66	3.06**	-0.55	0.91	
연령						
39세미만	2.79(0.86)	2.83(0.53)	2.82(0.94)	2.76(0.87)	3.10(0.72)	(52)
40대	2.93(0.57)	2.93(0.60)	2.70(0.72)	2.90(0.65)	3.17(0.61)	(22)
50대	3.23(0.69)	3.00(0.59)	2.69(0.71)	2.89(0.63)	3.29(0.66)	(66)
60세이상	3.00(0.80)	3.13(0.64)	3.07(0.74)	3.01(0.74)	3.32(0.52)	(59)
F	2.06	2.20+	3.02*	0.94	1.26	
소득						
소득없었음	2.90(0.82)	3.02(0.54)	2.63(0.81)	2.67(0.78)	3.02(0.67)	(52)
50원미만	3.05(0.84)	3.09(0.81)	2.67(0.96)	3.27(0.76)	3.32(0.64)	(22)
50-100원미만	3.02(0.71)	2.98(0.62)	2.94(0.72)	3.00(0.70)	3.32(0.53)	(66)
100원이상	3.02(0.65)	2.98(0.60)	3.02(0.82)	2.92(0.59)	3.31(0.59)	(59)
F	0.32	0.19	2.72*	4.27**	3.05*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3.07(0.79)	3.07(0.45)	2.73(0.79)	3.20(0.56)	3.20(0.56)	(15)
중학교중퇴및졸업	2.96(0.73)	2.99(0.57)	2.83(0.81)	2.92(0.69)	3.27(0.64)	(112)
전문학교중퇴및졸업	3.09(0.72)	2.98(0.74)	2.96(0.75)	2.89(0.73)	3.24(0.60)	(45)
대학교중퇴및졸업	2.88(0.76)	3.08(0.62)	2.85(0.92)	2.81(0.84)	3.12(0.51)	(27)
F	0.53	0.21	0.38	0.99	0.45	

주: ()는 표준편차임.

** $p < .01$.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81.9% (만족하는편이다+매우만족한다)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현재 자녀성장 모습에 대해서는 75.1%(만족하는편이다+매우만족한다)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의 본인생활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5>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계(수)	평균
현재 생활 만족도	3.0	15.1	61.8	20.1	100.0(199)	2.99
현재 자녀성장 모습 만족도	5.7	19.2	49.7	25.4	100.0(193)	2.95

6. 북한 부모가 본 남한 어린이 성향

남북한 어린이의 일반적 성향(기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표 III-6-1>과 같다. 먼저 '남한 어린이는 부모의존도가 높지만 북한 어린이는 자립심이 강하다'와 '남한 어린이는 북한 어린이에 비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서 90.0%(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남한 어린이는 개인주의 성향이고 북한 어린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문항에서 81.9%(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남한 어린이는 다정다감하고 북한 어린이는 무뚝뚝하다'는 74.9%(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 어린이는 청결을 중시하는데 북한 어린이는 위생관념이 약하다'는 응답에서 그렇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가 58.3%, 그렇지 않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가 41.7%로 위생부분에서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1 참조).

<표 III-6-1> 남북한 어린이의 일반적 성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남한 어린이는 개인주의성 향이고 북한 어린이는 집단 주의성향이 강함	3.0	15.1	48.2	33.7	100.0(199)	3.13
남한 어린이는 다정다감하 고 북한 어린이는 무뚝뚝함	1.5	23.6	58.3	16.6	100.0(199)	2.90

(표 III-6-1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남한 어린이는 부모 의존도가 높고 북한 어린이는 자립심이 강함	0.5	9.5	57.8	32.2	100.0(199)	3.22
남한 어린이는 북한 어린이에 비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경우 많음	2.0	20.7	60.1	17.2	100.0(198)	2.92
남한 어린이는 청결을 중시하고 북한 어린이는 위생관념 약함	4.0	37.7	50.3	8.0	100.0(199)	2.62

현재 남북한 어린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1순위만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 51.3%는 경제적 격차로 북한 어린이는 영양결핍, 남한 어린이는 풍요로움으로 인한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22.1%가 체제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나타나는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각 응답별로 전체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신체적 차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사고방식의 차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2 참조).

<표 III-6-2> 남북한 어린이 가장 큰 차이점

단위: %(명)

구분	신체적 차이	사고방식 차이	학습능력 차이	놀이경험 차이	언어적 차이	계(수)
전체	51.3	22.1	9.0	10.1	7.5	100.0(199)
성별						
부	44.1	26.5	14.7	14.7	-	100.0(34)
모	52.7	21.2	7.9	9.1	9.1	100.0(165)
연령						
39세미만	37.9	37.9	10.3	13.8	-	100.0(29)
40대	46.7	25.0	10.0	11.7	6.7	100.0(60)
50대	45.7	31.4	2.9	8.6	11.4	100.0(35)
60세이상	62.7	9.3	10.7	8.0	9.3	100.0(75)

(표 III-6-2 계속)

구분	신체적 차이	사고방식 차이	학습능력 차이	놀이경험 차이	언어적 차이	계(수)
소득						
소득없었음	38.5	26.9	19.2	9.6	5.8	100.0(52)
50원미만	72.7	9.1	4.5	9.1	4.5	100.0(22)
50-100원미만	57.6	18.2	6.1	10.6	7.6	100.0(66)
100원이상	47.5	27.1	5.1	10.2	10.2	100.0(59)
지역						
평안남북도	73.1	7.7	3.8	11.5	3.8	100.0(26)
황해남북도	33.3	55.6	-	-	11.1	100.0(9)
함경남북도	48.8	22.6	10.4	10.4	7.9	100.0(164)

다음으로 현재 남북한 어린이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 39.2%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 순으로 34.2%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의식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에서는 39세 미만에서 40대는 같은 언어사용, 50대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의식, 60세이상은 44.8%가 동일한 전통문화라고 응답하였다(표 V-6-3 참조).

<표 III-6-3> 남북한 어린이 가장 큰 공통점

단위: %(명)

구분	한민족 이라는 동질의식	같은 언어사용	동일한 전통문화	통일에 대한염원	기타	계(수)
전체	34.2	39.2	14.6	10.1		100.0(199)
성별						
부	35.3	47.1	11.8	5.9	-	100.0(34)
모	34.4	38.0	15.3	11.0	1.2	100.0(163)
연령						
39세미만	31.0	58.6	6.9	3.4	-	100.0(29)
40대	33.3	36.7	18.3	11.7	-	100.0(60)
50대	44.1	38.2	8.8	5.9	2.9	100.0(34)
60세이상	32.4	35.1	44.8	50.0	50.0	100.0(74)
소득						
소득없었음	32.7	48.1	15.4	3.8	-	100.0(52)
50원미만	45.5	22.7	22.7	9.1	-	100.0(22)
50-100원미만	35.9	37.5	12.5	10.9	3.1	100.0(64)
100원이상	30.5	40.7	13.6	15.3	-	100.0(59)

(표 III-6-3 계속)

구분	한민족 이라는 동질의식	같은 언어사용	동일한 전통문화	통일에 대한염원	기타	계(수)
지역						
평안남북도	46.2	34.6	7.7	7.7	3.8	100.0(26)
황해남북도	-	55.6	44.4	-	-	100.0(9)
함경남북도	34.6	39.5	14.2	11.1	0.6	100.0(162)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는 교육과정(교육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표 V-6-4>와 같다. 전체 45.2%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며 다음 순으로 23.1%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아버지는 동요를 어머니는 놀이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영역에서는 전체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6-4> 남북한 어린이가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는 교육활동

단위: %(명)

구분	국민 체조	동요	동화책	놀이 프로그램	기타 (체육활동)	계(수)
전체	14.1	23.1	17.1	45.2	0.5	100.0(199)
성별						
부	14.7	38.2	14.7	32.4	-	100.0(34)
모	13.9	20.0	17.6	47.9	0.6	100.0(165)
연령						
39세미만	10.3	20.7	24.1	44.8	-	100.0(29)
40대	8.3	30.0	6.7	55.0	-	100.0(60)
50대	14.3	20.0	17.1	48.6	-	100.0(35)
60세이상	20.0	20.	22.7	36.0	1.3	100.0(75)
소득						
소득없었음	9.6	25.0	15.4	50.0	-	100.0(52)
50원미만	9.1	27.3	31.8	31.8	-	100.0(22)
50-100원미만	22.7	24.2	13.6	39.4	-	100.0(66)
100원이상	10.2	18.69	16.9	52.5	1.7	100.0(59)
지역						
평안남북도	23.1	19.2	19.2	38.5	-	100.0(26)
황해남북도	-	11.1	33.3	55.6	-	100.0(9)
함경남북도	13.4	24.4	15.9	45.7	0.6	100.0(164)

7. 소결

북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양육태도에 같은 자녀양육관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가 49.2%,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32.0%, 자녀가 부모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20.8%,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가치있는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치를 정서와 도구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주고, 노년에 덜 외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녀 성 선호 태도에서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남아가 더 많은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많은 경우는 남아선호사상을 갖고 있었으나 30~40대 여성에서는 남아를 낳아야 한다는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여아를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젊은 부모들의 면담에서 나왔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낮을수록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주요한 덕목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녀로 성장은 3.65점, 숫자와 글자 익히기 3.53점,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3.44점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선택하게 한 조사에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녀로 성장하기가 66.8%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숫자와 글자 익히기는 8.0%로 나타나 북한사회에서는 지식수확능력 보다는 건강하고 바른 정신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길 기대하는 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녀양육태도를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차원적인 척도로 파악한 결과, 수용을 나타내는 두 문항이 각각 3.13점, 3.04점이고 거부를 나타내는 두 문항이 각각 2.8점, 2.95점으로 거부보다는 수용적 태도가 더 강함을 나타냈고, 자율과 통제 차원에서는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

다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높게 나타나 그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아이를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해주지만 자율을 주기보다는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배우자와 자녀 돌보기를 얼마나 분담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밥 먹고 옷 입는 것,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공부 돌봐주기는 부부공동이 제일 많았고, 탁아소,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는 대부분 부인이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부인이 대부분 자녀돌보기를 했고, 나머지 연령은 부부공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조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서 설문조사와 차이를 보였다.

일곱째,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생활과 자녀양육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영유아의 기질을 비교한 결과, 남한 어린이는 부모의존도가 높은 반면 북한 어린이는 부모의존도가 낮고, 남한 어린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북한 어린이는 집단주의성향이다와 남한 어린이는 다정다감하고 북한 어린이는 무뚝뚝하다는 질문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어린이의 가장 큰 차이를 질문한 결과, 1순위(51.3%)로 경제적 격차로 북한 어린이는 영양결핍, 남한 어린이는 풍요로움으로 인한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큰 공통점으로는 39.2%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는 교육은 45.2%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IV.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이용 및 운영 실태

IV장에서는 북한의 육아지원기관인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고찰하되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를 겪게 되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후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전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실태는 응답자 즉, 부모세대의 실태라 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의 실태는 응답자의 자녀가 다닌 탁아소와 유치원의 실태로서 최근 북한의 육아지원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1990년대 이전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

가. 탁아소 이용 실태

설문조사 응답자 199명 대상으로 탁아소를 다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음이 53.8%로 있음 46.2%보다 조금 더 많았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3조에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탁아소의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가 선택할 몫이다. 탁아소의 미이용률이 조금 더 많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탁아소 이용률은 적지 않은 수치라 볼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다니지 않은 경험이 79.4%로 어머니의 48.5%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훨씬 많았다. 39세 이하의 경우 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82.8%로 대부분 탁아소를 경험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9.3%에 불과했다. 근로수입이 적을수록 대체로 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많았다. 수입이 없는 가구에서 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있다'가 53.8%였다면, 100원 이상은 40.7%였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는데 50원 미만에서 탁아소의 이용이 36.4%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일용직)가 탁아소 이용이 가장 38.9%로 가장 낮았고, 전문기술직이 56.4%로 가장 높았다.

<표 IV-1-1> 탁아소 다닌 경험 여부: 부모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46.2	53.8	100.0(199)	
성별				
부	20.6	79.4	100.0(34)	10.84(1)**
모	51.5	48.5	100.0(165)	
연령				
39세이하	82.8	17.2	100.0(29)	69.39(3)***
40대	66.7	33.3	100.0(60)	
50대	60.0	40.0	100.0(35)	
60세이상	9.3	90.7	100.0(75)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53.8	46.2	100.0(52)	2.94(3)
50원미만	36.4	63.6	100.0(22)	
50-100원미만	48.5	51.5	100.0(66)	
100원이상	40.7	59.3	100.0(59)	
직업				
단순노무	38.9	61.1	100.0(72)	4.04(4)
교양원·교원	41.2	58.8	100.0(17)	
공무원	44.4	55.6	100.0(27)	
전문기술직	56.4	43.6	100.0(39)	
주부	52.3	47.7	100.0(44)	

** $p < .01$, *** $p < .001$.

탁아소를 다닌 연령은 평균 만 2.68세로 집계되었다. 60세 이상의 경우 탁아소를 다닌 평균 연령이 1.85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 연령이 높게 나온 집단은 50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와 단순노무(일용직) 직업군으로 평균 이용 연령이 3.0세로 보고되었다. 이들 저소득 가구는 탁아소의 이용률이 낮은 집단이기도 하다. 요컨대 탁아소의 이용률이 높은 근로수입이 1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평균 이용 연령이 2.16세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직업별로는 교양원·교원이 1.85세로 가장 낮았지만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IV-1-2> 탁아소 다닌 연령: 부모

단위: 세(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68	1.62	(91)	
성별				
부	2.42	1.39	(7)	-0.42
모	2.70	1.64	(84)	
연령				
39세이하	2.87	1.80	(24)	1.50
40대	2.92	1.50	(40)	
50대	2.25	1.68	(20)	
60세이상	1.85	1.21	(7)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2.89	1.68	(28)	1.12
50원미만	3.00	1.69	(8)	
50-100원미만	2.80	1.62	(31)	
100원이상	2.16	1.52	(24)	
직업				
단순노무	3.00	1.76	(28)	0.83
교양원·교원	1.85	1.46	(7)	
공무원	2.41	1.31	(12)	
전문기술직	2.57	1.69	(21)	
주부	2.78	1.89	(23)	

나. 유치원 이용 실태

유치원의 다닌 경험은 '있다'가 57.8%로 '없다' 42.2%보다 조금 더 많아서 탁아소의 이용 경험과 대조적으로 나왔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36조에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이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없다'가 42.2%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유치원의 높은반을 의무교육화한 시기가 1976년이란 점에서, 60세 이상의 유치원 이용 경험이 18.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유치원의 의무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6년 이후 유치원을 다닌 지금의 40대, 30대는 각각 83.3%, 89.7%로 대부분이 유치원 교육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3> 유치원 다닌 경험: 부모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57.8	42.2	100.0(199)	
성별				
부	41.2	58.8	100.0(34)	4.63(1)*
모	61.2	38.8	100.0(165)	
연령				
39세이하	89.7	10.3	100.0(29)	77.85(3)***
40대	83.3	16.7	100.0(60)	
50대	71.4	28.6	100.0(35)	
60세이상	18.7	81.3	100.0(75)	
지역				
평안도	50.0	50.0	100.0(26)	1.56(2)
황해도	44.4	55.6	100.0(9)	
함경도	59.8	40.2	100.0(164)	
직업				
단순노무	58.3	41.7	100.0(72)	1.09(4)
교양원교원	47.1	52.9	100.0(17)	
공무원	59.3	40.7	100.0(27)	
전문기술직	56.4	43.6	100.0(39)	
주부	61.4	38.6	100.0(44)	

* $p < .05$, *** $p < .001$.

유치원을 다녔던 평균 연령은 만 5.91세이다. 부모연령이 낮을수록 유치원을 다닌 연령이 높았지만(유치원을 상대적으로 늦게 다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 성별로는 아버지가 5.64세, 어머니 5.95세로 부가 좀 더 빨리 유치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수입이나 직업은 유치원을 다닌 연령과 그 다지 관련성이 없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부모세대에서 유치원을 다닌 연령의 주된 변인은 남녀라는 성별과 연령별이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IV-1-4> 유치원 다닌 연령: 부모

단위: 세(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5.91	0.71	(114)	
성별				
부	5.64	0.49	(14)	-1.52
모	5.95	0.72	(100)	
연령				
39세이하	5.96	0.77	(26)	0.77
40대	5.95	0.64	(49)	
50대	5.92	0.70	(25)	
60세이상	5.64	0.84	(14)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5.87	0.71	(31)	0.28
50원미만	6.00	0.73	(12)	
50-100원미만	5.97	0.70	(39)	
100원이상	5.84	0.72	(32)	
직업				
단순노무	5.92	0.56	(41)	0.28
교양원교원	5.87	0.99	(8)	
공무원	6.06	0.77	(16)	
전문기술직	5.81	0.79	(22)	
주부	5.88	0.75	(27)	

2. 1990년대 이후 탁아소·유치원의 이용 실태

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자녀 특성

지금까지 부모세대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자녀세대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세대별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변화 및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세대 199명의 총 자녀는 428명이 표집되었다.

성별은 남아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았고, 자녀의 출생국가도 북한이 대다수였다. 이는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조건이 '북한에서의 출산양육경험이 있는 자'이므로 응답자의 자녀가 북한태생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출생장소를 보면 세대에 따라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

다. 부모세대가 집에서 출생이 72.2%였다면, 자녀세대의 출생장소는 병원이 52.8%로 집에서 출생 46.5%보다 더 많이 나왔다. 남한 입국시 자녀와의 동반여부에서 '입국하지 않음'이 46.2%로 가장 많았다. 이로서 남한에서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와 따로 입국한 경우도 22.0%나 되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자녀의 주양육자로는 기타 친인척이 28.9%로 가장 많았고 친부가 23.1%, 기타비혈연인 18.4%로 혈연보다는 비혈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자녀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428)		
성별		입국시 동반여부	
남	52.1	같이입국함	32.2
여	47.9	따로입국함	22.0
출생국가		입국하지않음	46.2
북한	95.1	어머니와 떨어져있는 동안 주양육자	
남한	3.5	친아버지	23.1
중국	1.4	부모의 형제자매	9.7
출생장소		자녀의 친조부모	5.1
집	46.5	자녀의 외조부모	5.1
병원	52.8	기타친인척	28.9
조산원	0.5	기타비혈연인	18.4
입양	0.2	기타	9.8

나. 자녀세대의 탁아소 이용 실태

1) 탁아소 이용 여부

자녀세대는 탁아소를 나닌 경험이 '있다'가 76.5%로 부모와 달리(46.2%), 대부분이 탁아소를 다닌 것으로 나왔다. 부모 연령에 따라 자녀의 탁아소 경험정도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연령이 많을수록 탁아소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연령이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탁아소를 다닌 경

험이 84.1%로 가장 높았지만, 39세 이하 부모의 자녀들은 32.3%만이 탁아소를 다닌 것으로 응답하였다.

근로수입이 적을수록 탁아소의 이용 경험은 낮고, 많을수록 이용 경험은 높게 나왔다. 주부의 경우 탁아소 이용이 63.2%, 단순노무의 직업이 75.3%로 교양원·교원, 전문기술직 등 전문직의 여성보다 탁아소 이용이 낮았다. 근로수입, 직업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탁아소의 이용 경험은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현상이라 하겠다.

<표 IV-2-2> 자녀의 탁아소 다닌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76.5	23.5	100.0(405)	
부모연령				
39세 이하	32.3	67.7	100.0(31)	40.295(3)***
40대	76.0	24.0	100.0(100)	
50대	75.3	24.7	100.0(73)	
60세 이상	84.1	15.9	100.0(201)	
근로수입				
수입 없었음	64.3	35.7	100.0(98)	12.001(3)**
50원 미만	75.5	24.5	100.0(49)	
50-100원 미만	83.0	17.0	100.0(135)	
100원 이상	79.7	20.3	100.0(123)	
직업				
단순노무	75.3	24.7	100.0(146)	13.993(4)**
교양원교원	92.1	7.9	100.0(38)	
공무원	81.0	19.0	100.0(58)	
전문기술직	80.0	20.0	100.0(85)	
주부	63.2	36.8	100.0(76)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63.9	36.1	100.0(36)	14.010(3)**
중학교중퇴및졸업	73.9	26.1	100.0(207)	
전문학교중퇴및졸업	76.0	24.0	100.0(100)	
대학교중퇴및졸업	93.5	6.5	100.0(62)	

** $p < .01$, *** $p < .001$.

현재 부모연령이 60세 이상은 대개 1970년대 무렵 자녀를 출산, 양육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탁아소는 잘 운영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70~1980년대 탁아소 이용 현황]

1980년대에는 사탕, 과자, 과일 다 제대로 나왔어요. 90년대 중반 거기부터 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요.(사례 5)

(질)북한에서 60~70년대 아이 키우셨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 (답) 그 때는 돈 하나도 안 들었지! 그 때는 국가가 다 키워줬으니까. 간식비만 조금 내면 탁아소 유치원에서 다 키워줬죠.(사례 15)

[1990~2000년대 탁아소 이용 현황]

아침에 어린 애들은 도시락을 사가거든요. 탁아소 애들도. 탁아소에서 밥을 못주니까. 도시락을 싸줘야지. 그러니까 애 엄마들이 애들 도시락만은 입쌀, 여기서 말하는 쌀밥을 맥이자고 장마당에 가서는 애들 도시락 쌀, 쌀만은 명심해서 싸가지고 오거든요. 그것마저 쌀 수 없는 가정 형편에 부모들은 애들 탁아소 안보내고.(사례 3)

간식이 없죠, 밥을 준다던지 뭐 어떻게 조금 뭐 조금 어떻게 뭐 돼지고기 나온다던지 뭐 그런식이죠 그런식으로.. 보통 도시락을 싸서 주죠.(사례 4)

다 고저 장사하고 고저 막 이랬었어요. 탁아소도 돈 있는 집들만 나갔어요. 저처럼 엄마가 탁아소 교양원하고 이런 사람들만 탁아소를 가고요.(사례 9)

돈이 많이 든 것은 세 살 때부터 탁아소 다니면서 그 탁아소 화목비 내며 방 안 덤히는 화목비(난방비) 내잖아요. 화목비하고 한 끼 식사비. 난방비를 내는 것 그게 상당히 좀 벅차요. 그거는(난방비) 9월 달 되면 한 번 내고 3월 달에 또 한 번 내고 일 년에 두 번 내는데, 한 번에 오 만원씩 냈어요. 굉장히 큰 비용이라서 그래서 탁아소 못 다니는 애들도 있고. (질)그러니까 탁아소 다니면서 오히려 돈이 많이드나요? (답)네. 어쨌든 공공장소에 내보내면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요.(사례 18)

유치원 교양원을 지낸 면담에서도 1994년까지는 유치원의 배급이 지켜졌지만, 이후에는 불안전하게 공급되다가 1997년부터 완전히 끊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일성이 유엔도 백성을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먹이는 것이 자기 평생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쌀밥을 100그램 아이들에게 공급해주는 것을 특백미라고 했는데 그 특백미를 배급소에서 유치원 인원당 공급, 제공했었어요. 그것이 94년도 말년부터, 말기, 94년도 상반기부터 찢리기 시작했어요. 줬다, 안줬다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다가 영 안준 것이 97년에는 영 없어졌어요. 94년까지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다 정상적으로 공급됐어요.(사례 3)

자녀세대별로 탁아소 이용 여부를 파악하면서 시기별에 따른 북한 탁아소의 운영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었는데, 1990년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 탁아소의 운영시스템은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탁아소 미이용 이유

탁아소 미이용의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가 58.9%로 가장 많았다. 북한에서 탁아소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대리양육자가 있다면 탁아소를 굳이 보낼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탁아소)는 안 다닌 아이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는 아이들은 안 다녔어요. 봐줄 사람이 있을 때 안 다녔어요.(사례 6)

그러나 자녀세대에서는(1990년대 이후) ‘탁아소가 운영하지 않아서’ 20.0%, ‘자녀가 사망해서’ 7.4% 등 우리사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탁아소 미이용의 사유로 나왔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시작하는 1990년대 중후반 경에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게 되었던 30대와 40대 부모에서 ‘탁아소 미운영’, ‘비용부담’, ‘자녀사망’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자녀사망이 14.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IV-2-3> 자녀의 탁아소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돌봐줄 사람이 있음	비용 부담	탁아소 미운영	집에서 떨어서	자녀 사망	기타	계
전체	58.9	4.2	20.0	6.3	7.4	3.3	100.0(95)
성별							
부	44.4	5.6	38.9	5.6	5.6	-	100.0(18)
모	62.3	3.9	15.9	6.5	7.8	3.9	100.0(77)
연령							
39세이하	42.9	19.0	4.8	9.5	14.3	9.6	100.0(21)
40대	58.3	-	33.3	4.2	4.2	-	100.0(24)
50대	61.1	-	16.7	16.7	5.6	-	100.0(18)
60세이상	68.8	-	21.9	-	6.3	3.1	100.0(32)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71.4	5.7	11.4	-	8.6	2.9	100.0(35)
50원미만	33.3	-	33.3	8.3	16.7	8.3	100.0(12)
50-100원미만	60.9	4.3	21.7	4.3	4.3	4.3	100.0(23)
100원이상	52.0	4.0	24.0	16.0	4.0	-	100.0(25)

(표 IV-2-3 계속)

구분	돌봐줄 사람이 있음	비용 부담	탁아소 미운영	집에서 떨어서	자녀 사망	기타	계
직업							
단순노무	50.0	11.1	22.2	5.6	8.3	2.8	100.0(36)
교양원·교원	33.3	-	66.7	-	-	-	100.0(3)
공무원	54.5	-	18.2	27.3	-	-	100.0(11)
전문기술직	58.8	-	17.6	5.9	11.8	5.9	100.0(17)
주부	75.0	-	14.3	-	7.1	3.6	100.0(28)

주: 기타문항(수용소 수감, 장사하느라 바빠서, 어려서)

다음의 글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녀를 계속되는 굶주림으로 잃은 사례이다.

아들이 1999년도 죽었어요. 다 커서 먹지 못해서 죽었지요. (질) 아, 그때 고난의 행군 때인가요? (답) 고난의 행군 시기니까 뭘 먹이겠어요. 고저 밭에 나가서 가을에서부터 이삭 주우러 다니면 손끝이 다 벗겨지는데 그 눈발을 헤쳐서 고저 강냉이 지푸라기 쥐고 나면 이 손이 다 썩어서 그래서 이삭 주워서 아들 먹여 살리고 그래가지고서 여섯을 키웠는데 김치 한통 했어도 남보다 먼저 떨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눈물로 살았어요.(사례 17)

1990년 중후반부터 탁아소의 국가운영이 힘들어지면서 가난한 가정에서는 탁아소를 못 보낸 경우가 생겨나지 시작했다고 앞서 고찰하였다. 1990년 중후반부터는 탁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도시락 뿐 아니라 바구니, 빗자루, 횃가루 등의 물품과 비용을 학부모에게 요구가 많아졌다 고 한다. 그래서 월사금이 아니라 일사금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국가적으로 내기는 무상교육이니까 그때까지만해도 국가가 좀 정상적인 나라가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때가 우리가 애들 키울때 까지만해도 1994년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얼마라는게 돈 딱 내면 그저 바깥스를 하나 내달라 (갖고 와라) 빗자루를 하나 내달라 또 횃칠해야겠는데 횃가루 살돈 학부모들이 모다서 해달라 이런 정도로 그랬는데 최근에는 월사금이 아니라 일사금이라 해요 매일 매일이야.(사례 5)

굶주림 외에도 비용부담으로 탁아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녀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생계차원에서 장사를 하게 되지만, 탁아소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어린 자녀를 집안에 가두고 일을 나가는 바람에 집에서 기르는 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경우가 일례이다.

집에서 고저 빈집에다 (아이를) 가둬두고 이래 (장사를) 갔다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빈집에다 두고 간 애들이 집에서 사고나서, 부엌에다 키우는 돼지가 집에 그니까 엄마들이 어쨌든 사노라면 나가서도 일하지만은 짐승도 키우느라고, 부엌에다가 키워요. 부엌에다가. 부엌에. 석탄불 때는 그 부엌에다가 팬스레 키우거든요. 그런데 그 낮에 돼지가 뛰어 올라왔어요. 누워있는 애를 막 물어 뜯어서 그렇게 죽은 애들도 많고, 벌벌벌벌 기어서 가마에 빠져 죽은 애들도 있고, 이런 실례가 그래서 많아요.(부모 사례 3)

3) 탁아소 이용 시작연령

자녀세대에 와서는 탁아소의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이용하기 시작하는 연령도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탁아소를 다닌 평균 연령은 만 1.52세로 부모세대의 만 2.68세보다 약 만 1.2세로 앞당겨졌다. 1970년대 이후 자녀가 탁아소를 이용한 현재 50대, 60대 부모의 경우 이용 연령이 만 1.49세, 1.47세로 평균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왔다.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구와 학력이 높은 가구에서 자녀의 탁아소 이용 연령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고학력의 일하는 여성의 양육지원을 위해 탁아소가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1970~80년대에는 탁아소가 본래의 취지인 생후 1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를 가진 로동녀성으로 하여금 로동생산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데 방조한다(탁아소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30대 부모연령에서 자녀의 탁아소 이용 연령이 2.20세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탁아소에 자녀를 보낸 연령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탁아소가 예전만큼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유념해야 하겠다.

<표 IV-2-4> 자녀가 탁아소 다닌 연령

단위: 세(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1.52	1.03	308	
부모연령				
39세이하	2.20	1.39	10	1.703
40대	1.59	0.95	76	
50대	1.49	1.21	55	
60세이상	1.47	0.97	169	

(표 IV-24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소득				
수입없었음	1.41	0.94	63	3.080*
50원미만	1.89	1.12	37	
50-100원미만	1.63	1.14	112	
100원이상	1.36	0.87	98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1.87	1.21	23	2.864*
중학교중퇴및졸업	1.61	1.00	153	
전문학교중퇴및졸업	1.26	0.77	76	
대학중퇴및졸업	1.53	1.24	58	

* $p < .05$.

4) 이용 탁아소 유형

자녀가 이용한 탁아소의 유형은 매일매일 등·하원을 하는 일탁아소가 92.9%로 다수를 차지했다.²⁰⁾ 주중에는 자녀를 맡기고 주말에만 데리고 오는 주탁아소는 5.5%, 월단위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월탁아소는 1.6%로 이용자가 극히 일부였다.

특이한 사실은 월탁아소나 주탁아소를 이용한 부모들은 가구소득이 100원 이상의 고소득, 대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 전문기술직의 전문직 종사자임을 알 수 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술공연을 하는 직업의 경우, 자녀를 월탁아소나 주탁아소에 주로 맡긴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은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고 선발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 가구에서 주탁아소와 월탁아소와 같은 특수보육의 이용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와는 반대 현상이라 하겠다.

20) 북한의 탁아소 유형은 운영시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인 일탁아소,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인 주탁아소, 1개월간 맡겨두는 형태인 월탁아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탁아소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각각의 일과표에 따라 운영된다.

<표 IV-2-5> 자녀가 이용한 탁아소 유형

단위: %(명)

구분	일탁아소	월탁아소	주탁아소	계
전체	92.9	1.6	5.5	100.0(288)
부모연령				
39세미만	100.0	-	-	100.0(10)
40대	93.4	2.6	3.9	100.0(76)
50대	89.1	-	10.9	100.0(55)
60세이상	93.5	1.8	4.7	100.0(169)
소득				
소득없었음	95.2	-	4.8	100.0(63)
50원미만	91.9	-	8.1	100.0(37)
50-100원미만	95.5	4.5	-	100.0(112)
100원이상	88.8	-	11.2	100.0(98)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91.3	-	8.7	100.0(23)
중학교중퇴및졸업	94.8	1.3	3.9	100.0(153)
전문학교중퇴및졸업	92.1	3.9	3.9	100.0(76)
대학중퇴및졸업	89.7	-	10.3	100.0(58)
직업				
단순노무	93.6	1.8	4.5	100.0(110)
교양원·교원	100.0	-	-	100.0(35)
공무원	93.6	6.4	-	100.0(47)
전문기술직	86.8	-	13.2	100.0(68)
주부	98.8	-	6.3	100.0(48)

5) 탁아소 하루 이용 시간

자녀의 탁아소 등원시간은 평균 오전 8시경이고, 하원시간은 오후 6시경으로 보고되었다. 자녀가 탁아소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²¹⁾ 우리의 경우와 거칠게 비교하자면,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45분(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이란 점에서 북한의 탁아소 이용시간이 더 길다고 하겠다.

21) 탁아소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도시에 있는 일반탁아소는 유아의 연령을 생후 만1세부터 만3세까지 취급하며 양육시간은 주간 중 10시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IV-2-6> 자녀의 탁아소 등하원 시간

단위: 시(명)

구분	등원		하원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85	0.69	5.70	1.20	(310)
가구소득					
소득없었음	7.70	0.55	5.38	0.94	(63)
50원미만	7.70	0.74	5.97	1.53	(37)
50-100원미만	8.00	0.72	5.75	1.27	(112)
100원이상	7.82	0.71	5.74	1.10	(96)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7.87	0.626	5.65	0.71	(23)
중학교중퇴및졸업	7.85	0.714	5.73	1.28	(153)
전문학교중퇴및졸업	7.95	0.764	5.37	0.95	(76)
대학교중퇴및졸업	7.70	0.57	6.07	1.33	(56)
직업					
단순노무	7.85	0.73	5.67	1.44	(110)
교양원교원	7.57	0.60	5.63	1.03	(35)
공무원	8.15	0.65	6.02	1.22	(47)
전문기술직	7.88	0.69	5.68	1.07	(66)
주부	7.71	0.65	5.52	0.85	(48)

탁아소가 일하는 여성의 양육지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부모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교양원 출신의 탈북민 면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오전 7시부터 등원하는 아이가 있고, 밤 10시에 하원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교양원의 출근 시간은 그 보다 일찍, 퇴근 시간은 그보다 더 늦게 한다는 내용이다.

(질)퇴근을 9시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몇시에 출근하셔서 몇시에(퇴근)...

(답)아침 7시 전에 6시에 출근해요. 아이들이 8시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오기 전에 청소해야 된단 말이야 청소하고 준비할거 소독하고 뭐 다 청소해서. (질)그럼 아이들 몇 시에 오나요? (답) 그 다음에 개네가 오기 시작하는게 7시 오는 사람은 개내들도 빨리 오는 사람 있어 빨리 오는게. (질)그렇게 와서 아이들은 제일 늦게 가는 아이가 몇시에? (답)밤 10시오.(사례 19)

일반적으로 농촌탁아소는 도시지역의 탁아소보다 운영시간이 길었다. 다음 인용글은 아침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 이상 운영한 농촌탁아소의 사례이다.

우리는 농촌 탁아소다 보니까 고저 아침이 빨라요. 여느 직장 탁아소들보다도.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고저 여덟시 까지 했어요. 해 넘어갈 때까지 했어요. 밭에서 부모들이 철수해 올 때까지 했어요.(사례 10)

6) 탁아소 월평균 비용

자녀가 다닌 탁아소의 월평균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6.8%로 북한에서 탁아소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를 탁아소에 보낸 경험이 많았던 60대 부모의 경우는 비용이 전혀 없었다고 100% 응답율을 보였다. 소득이 없거나, 단순노무종사자, 주부인 경우 비용지급이 전혀 없었으며 교양원·교원도 이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전원이 응답했다.

<표 IV-2-7> 자녀의 탁아소 월평균 비용

단위: 원(명)

구분	비용 없음	10원 이하	10-15원 이하	20원 이상	계
전체	96.8	1.0	1.6	0.6	100.0(309)
연령					
39세미만	90.0	10.0	-	-	100.0(10)
40대	96.0	1.3	2.7	-	100.0(75)
50대	89.1	1.8	5.5	3.6	100.0(55)
60세이상	100.0	-	-	-	100.0(169)
소득					
소득없었음	100.0	-	-	-	100.0(63)
50원미만	97.3	2.7	-	-	100.0(37)
50-100원미만	97.3	0.9	-	1.8	100.0(112)
100원이상	93.8	1.0	5.2	-	100.0(97)
직업					
단순노무	100.0	-	-	-	100.0(110)
교양원교원	100.0	-	-	-	100.0(34)
공무원	87.2	4.3	4.3	4.3	100.0(47)
전문기술직	94.1	1.5	4.4	-	100.0(68)
주부	100.0	-	-	-	100.0(48)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자녀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보내는 30대의 젊은 부모들에게는 탁아소의 이용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두 인용글은 북한의 시기 변화에 따라서 탁아소의 이용 비용이 생겨난 사례들이다. 두 번째 인용글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탁

아소 운영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탁아소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기름과 같은 연료를 탁아소에 갖다 주어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불한 능력이 안 되는 빈곤층 가정은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업고 장마당에 나와서 나물을 팔았다는 사례이다.

[1970년대 탁아소 무상 이용사례]

1970년대 우리 아들을 탁아소에 보내면서 비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용이 다 본인 부담이에요. 최근에는 몽땅 다 본인 부담이에요. (질)그러면 60년대, 70년대는? (답) 아, 대단히 좋았지요.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었지요. 지금이 기저귀 내고 뭐 식비 돈 내고 그때는 식비 돈 내는 것도 없었어요. 내가 탁아소 보육원 할 때는 잘 먹었지요. 아이들 간식으로 계란을 70년대 75년도까지는 잘 해줬어요. 북한이 탁아소 시설이 잘되어 있었어요.(사례 12)

[2000년대 탁아소 유상 이용사례]

제가 북한 떠나기 전에 2003년경에 보니까 제 친구가 일을 안 하는데도 탁아소에 (자녀를) 갖다 놓고 뭐야 기름을 디젤유나 휘발유 이런 것을 몇 킬로씩 갖다 주고 애를 맡긴다 하더라고요. 탁아소에 뭐 불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전기 안 들어오고 할 때는. 그런데 탁아소에다가 기름을 얼마 내고 돈을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집들은 그렇게 생각도 못하지요. 대체로 다 뭐 출산하고 한 3일부터 애기를 돌려업고 장마당에 나가서 앉자 있었어요. 출산하고 한 3일 만에 제 친구도 진짜 살기 힘들고 막 저거 한 게 아니 오늘 애기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3일 됐는데 장마당에 나와 앉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냐고 출산을 언제 했는데 이랬더니 막 그냥 울면서 진짜 장마당에 나오는 것도 무슨 팔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 풀 뜯고선 말하자면 미나리면 미나리. 나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뜯어다가 거 놓고 안자서 애를 안고 그냥……젖을 먹여야 되니까요.(사례 11)

다. 자녀세대의 유치원 이용 실태

1) 유치원 이용 여부

자녀세대에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다가 82.6%, 없다가 16.7%로 부모세대에 비해(57.8%) 유치원을 다닌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우선 부모 연령에 따라 이용 경험 여부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유치원을 다닌 적이 경험이 많았다. 이는 자녀의 탁아소 이용 경험과 비슷한 응답 경향으로서, 30대의 젊은 부모세대에서 유치원의 이용 경험이 '있다'가 29.0%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유치원의 이용 경험은 낮았다.

<표 IV-2-8> 자녀의 유치원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전체	82.6	16.7	100.0(407)	
부모연령				
39세 이하	29.0	71.0	100.0 (31)	79.43(3)***
40대	80.0	20.0	100.0(100)	
50대	83.6	16.4	100.0(73)	
60세 이상	93.0	7.0	100.0(201)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72.4	27.6	100.0(98)	14.31(3)**
50원 미만	77.1	22.9	100.0(48)	
50-100원 미만	88.1	11.9	100.0(135)	
100원 이상	88.6	11.4	100.0(123)	
직업				
단순노무	82.2	17.8	100.0(146)	12.29(4)*
교양원교원	89.5	10.5	100.0(38)	
공무원	89.7	10.3	100.0(58)	
전문기술직	88.1	11.9	100.0(84)	
주부	71.1	28.9	100.0(76)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72.2	27.8	100.0(36)	14.77(3)**
중학교중퇴및졸업	80.1	19.9	100.0(207)	
전문학교중퇴및졸업	84.0	16.0	100.0(100)	
대학교중퇴및졸업	98.4	1.6	100.0(62)	

* $p < .05$, ** $p < .01$, *** $p < .001$.

2) 유치원 미이용 이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아서’ 16.2%, ‘비용부담이 커서’ ‘자녀사망’ 이 11.8%를 차지했다. 탁아소 미이용 이유와 거의 동일했다.

모든 애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은 아니죠. 글썄 우리는 사회주의니까 장학(獎學)은 해요. 출생 중 아이들 중에서 장학은 하는데 보내지 않죠. 대부분 그저 혹시 집에 할머니가 있다던가 이러면 안 보내요…….(사례 20)

<표 IV-2-9> 자녀의 유치원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돌봐줄 사람이 있음	비용 부담	유치원이 운영 되지 않아서	집에서 떨어서	자녀 사망	기타	계
전체	42.6	11.8	16.2	7.4	11.8	10.3	100.0(68)
연령							
39세이하	40.9	18.2	-	-	13.6	27.2	100.0(22)
40대	45.0	-	35.0	10.0	10.0	-	100.0(20)
50대	58.3	-	8.3	25.0	8.3	-	100.0(12)
60세이상	28.6	28.6	21.4	-	14.3	-	100.0(14)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59.3	7.4	11.1	3.7	11.1	7.4	100.0(35)
50원미만	27.3	-	36.4	9.1	18.2	9.1	100.0(12)
50-100원미만	37.5	25.0	6.3	-	12.5	18.8	100.0(23)
100원이상	28.6	14.3	21.4	21.4	7.1	7.1	100.0(25)
직업							
단순노무	30.8	15.4	30.8	3.8	11.5	7.6	100.0(26)
교양원교원	11.8	5.9	11.8	1.5	4.4	3.0	100.0(4)
공무원	50.0	-	-	50.0	-	-	100.0(6)
전문기술직	40.0	-	-	-	-	-	100.0(10)
주부	63.6	-	13.6	4.5	30.0	30	100.0(22)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30.0	20.0	50.0	-	-	-	100.0(10)
중학교중퇴및졸업	43.9	7.3	9.8	4.9	17.1	17.0	100.0(41)
전문학교중퇴및졸업	43.8	18.8	12.5	18.8	6.3	-	100.0(16)
대학교중퇴및졸업	100.0	-	-	-	-	-	100.0(1)

주: 기타문항(수용소 수감, 장사하느라 못 보냄, 자녀에 어릴 때 탈북)

3) 유치원 이용 시작연령

자녀가 유치원을 다닌 평균 연령은 만 5.45세로 보고되었다. 부모소득 30대와 소득이 없는 빈곤층 가구에서 시작 연령이 각각 5.67세, 5.58세로 늦게 유치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자녀가 유치원 다닌 연령

단위: 세(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t/F
전체	5.45	0.91	(336)	
부모연령				
39세이하	5.67	1.32	(9)	1.20
40대	5.29	1.11	(80)	
50대	5.49	0.86	(61)	
60세이상	5.49	0.80	(186)	
소득				
수입없었음	5.58	0.69	(71)	3.37*
50원미만	5.03	1.14	(37)	
50-100원미만	5.51	0.88	(119)	
100원이상	5.44	0.95	(109)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5.77	0.58	(26)	2.38+
중학교중퇴및졸업	5.36	0.93	(165)	
전문학교중퇴및졸업	5.58	0.90	(84)	
대학중퇴및졸업	5.38	0.95	(61)	

+ $p < .10$, * $p < .05$.

4) 유치원 도보거리 시간

북한에서는 탁아소나 유치원 모두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유아는 도보 또는 부모의 차량(대개 자전거)으로 등하원을 한다. 집에서 유치원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내'가 69.6%로 가장 많았으나, 20~30분도 26.0%로 적지 않은 응답이 나왔다.

<표 IV-2-11> 집에서 유치원까지 도보 거리

단위: %(명)

구분	10분 이내	20-30분	40-50분	50분 이상	계	$\chi^2(df)$
전체	69.6	26.0	3.9	0.6	100.0(335)	
연령						
39세이하	44.4	44.4	-	11.0	100.0(9)	-
40대	75.0	20.0	3.8	1.3	100.0(80)	
50대	67.2	29.5	3.3	-	100.0(61)	
60세이상	69.2	26.5	4.3	-	100.0(185)	

(표 IV-2-11 계속)

구분	10분 이내	20-30분	40-50분	50분 이상	계	$\chi^2(df)$
소득						
수입없었음	66.2	26.8	7.0	-	100.0(71)	-
50원미만	73.0	18.9	8.1	-	100.0(37)	
50-100원미만	68.9	26.9	2.5	1.7	100.0(119)	
100원이상	71.3	26.9	1.9	-	100.0(108)	
지역						
평안도	72.7	25.5	-	1.8	10.0(55)	-
황해도	57.1	42.9	-	-	100.0(14)	
함경도	69.5	25.2	4.9	0.4	100.0(266)	

만 5.45세의 유아가 매일매일 20분 이상이 걸리는 유치원을 도보로 등·하원한다는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남한에서는 흔한 상황은 아니다. 어린 자녀가 다니는 탁아소의 경우는 부모가 업어서 또는 자전거로 등·하원을 하고, 유치원에는 도보로 30분 정도의 시간을 걸리더라도 자녀가 도보로 등하원을 하는 게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 등에 업혀서 탁아소의 등·하원한 경우]

(질) 탁아소가 집근처에 있나요? (답) 그러니까 탁아소가 집 근처가 아니지요 멀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가 한두 개? 몇 개 있어요. 거기에(탁아소) 엄마가 (나를) 데려다 놓고 직장에 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나를 업고 가고 그랬거든요. (질) 몇 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였나요? (답) 한 이십분 정도. (탁아소에) 갈 때 올 때 모두 엄마랑 같이 다녔어요.(사례 13)

[도보로 유치원 등·하원한 경우]

애가 여섯 살부터 혼자서 걸어다녔어요. 걷는 시간은 거의 한 30분정도. 대부분 유치원에도 다 이렇게 저희 혼자 이렇게 보내요.(사례 4)

유치원은 걸어서 한 15분정도 갈까. 다 걸어다녀요. 자동차라는 게 없으니까. 유괴도 없으니까 위험하지는 않아요.(사례 5)

고저 걸어서 한 15분인가? 걸렸지 농상길이니까. 고저 십오분. 이십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고저 30리 같은 보통 걸어요. 왕복 70리를 계속 걸어다녀요.(사례 10)

저희 집하고 유치원은 별로 멀지 않았어요. 걸어서 십분 정도. (질) 유치원이 근처에 많이 있나요? (답)아니예요. 유치원이 시내에는 유치원이 한 몇 군데 있어요. 큰 시내 같은 데는. 그런데 군 같은 데는 저희 군에는 유치원이 두 개 있었거든요. 제 1유치원, 2유치원,……차량운행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고. 먼 애들은 자전거로 와요. 애가 스스로 (자전거를) 못 타니까 그리고 애들이 자

전거 타면은 하다못해 애들이 입던 옷까지 다 벗겨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옷을 잘 입으면 자전거 같은 것도 뺏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른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걸기가 멀어도 걸기가 삼십분 정도 되는 그런 집 자녀들도 보니까 다 그냥 웬만해서 자전거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런 집은 진짜 드물어요. 오히려 (자전거 이용은) 드물고 삼십분 거리도 다 걸어 다녔어요. (사례 11)

우리 기준에서 보면 유아들이 20분 이상을 걸어 다니는 것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이 생기고 일찍이 철이 드는 것 같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 남한 아이들이 오히려 나약하고 철이 없다고 남북한 아이를 비교하였다.

나쁜 일이 극히 없고 그저 차사고는 분명히 혹시 많지는 않아도 뭐랄까 좀 있긴 있어도 거기선 안전해요. (남한은) 차사고는 날까 질러가고 오고 이게 노정이 좀 복잡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북한에는) 극히 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은 불쌍하면서 그런 속에서 자립을 하니까 자기로서의 자질력도 좀 생기더라구요. 여기(남한) 애들은 자질력이 좀 없잖아요! 무조건 엄마가 다 해줘야하는 줄 아는데 북한 아기들이 유치원 때부터 조직생활이라는 걸 하니까 조금씩 좀 달라져요……그러니까 남보다 고생스럽게 자랐으니까 빨리 좀 철들었다고 봐야죠.(사례 4)

5) 유치원 하루 이용 시간

유치원의 등원시간은 평균 오전 8시 28분이고 하원은 평균 5시 40분 경에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치원의 하루 이용 시간은 탁아소의 이용 시간보다 대략 1시간 정도 짧은 9시간 정도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유치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6시간 37분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라는 점에서 북한의 유치원 이용시간이 약 3시간 가량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와 학력이 낮은 부모집단에서 등원시간이 빨랐다.

면담조사에서 탁아소는 부모가 퇴근해서 자녀를 데리고 올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보지만 유치원은 오후 5시만 되면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유치원은 5시면 (아이들을) 다 보내. 탁아소는 6시 이후에도 아이들을 돌보지만 유치원은 다 집에 보내요. 무조건 5시에 보내면 옆집에 가서 놀던지...(사례 16)

<표 IV-2-12>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 시간

단위: 시(명)

구분	등원		하원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28	0.86	5.40	1.10	(334)
소득					
소득없었음	8.07	0.73	5.10	0.72	(69)
50원미만	8.03	0.79	6.16	1.57	(37)
50-100원미만	8.43	0.63	5.42	1.06	(119)
100원이상	8.33	1.10	5.30	1.05	(109)
학력					
소학교중퇴및졸업	8.12	0.32	5.54	0.10	(26)
중학교중퇴및졸업	8.28	0.80	5.50	0.09	(165)
전문학교중퇴및졸업	8.35	1.94	5.05	0.13	(82)
대학교중퇴및졸업	8.25	0.72	5.56	0.12	(61)
직업					
단순노무	8.34	1.06	5.43	1.30	(120)
교양원교원	8.32	0.68	5.38	0.98	(34)
공무원	8.29	0.57	5.37	0.97	(52)
전문기술직	8.34	0.76	5.57	1.13	(74)
주부	8.02	0.80	5.12	0.68	(50)

6) 유치원 월평균 비용

자녀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 지불한 비용은 92.7%가 '없었다'고 응답해서 북한에서 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어느 정도는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13> 자녀가 다닌 유치원 월평균 비용

단위: 원(명)

구분	비용 없음	10원 이하	10-15원 이하	20원 이상	계
전체	92.7	4.6	0.6	2.1	100.0(329)
연령					
39세미만	100.0	-	-	-	100.0(8)
40대	90.0	2.5	2.5	5.0	100.0(80)
50대	77.0	18.0	-	4.9	100.0(61)
60세이상	98.9	1.1	-	-	100.0(182)

(표 IV-2-13 계속)

구분	비용 없음	10원 이하	10-15원 이하	20원 이상	계
소득					
소득없었음	100.0	-	-	-	100.0(71)
50원미만	94.6	5.4	-	-	100.0(37)
50-100원미만	98.3	1.7	-	-	100.0(119)
100원이상	80.8	10.6	1.9	6.7	100.0(104)
직업					
단순노무	93.3	4.2	-	2.5	100.0(110)
교양원·교원	97.1	-	-	2.9	100.0(34)
공무원	87.8	8.2	-	4.1	100.0(49)
전문기술직	87.8	8.1	2.7	1.4	100.0(74)
주부	100.0	-	-	-	100.0(53)

그러나 면담조사에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서 비용이 지불하는 이유가 드러났는데, 주로 ‘내 아이를 잘 좀 봐달라는’ 청탁성 차원과 탁아소와 비슷하게 ‘운영비’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하였다.

[내 자녀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사례금 지급]

유치원 때부터는 돈이 좀 들어가요. 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리 선생님들 인사도 하고 아이를 좀 잘 봐달라고 그런 면에서 표시를 해서 사례금을 조금 줄 때도 있고…….(사례 14)

공장유치원은 괜찮은데 너무 세부담이 많으니까 그리고 돈 내는 아이들하고 못 내는 아이들하고 구분이 많아요 돈 좀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따뜻하게 품어서 아주 등이나 두드려주고 관심이 많거든요 내라는거 제대로 안내고 돈도 좀 못사는 집 아이들은 천대받아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애네를 돌보자자면 애네를 아무래도 무관심 해야 되거든요 부모로써 와보고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돈 낼 능력은 없지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데 낫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어떻게 수습방안을 하지 못해요 경제가 국가에서 주는게 없는데 교원들도 먹고 일해야 되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라도) 먹고 아이들 운영은 해라 유치원 운영은 해라 국가유치원인데 명칭상 데두리만 그래도 보여만 줘라 애는 어떨지 간에 그게 그저 원칙으로.(사례 20)

[식비, 난방비 등 지불]

유치원도 화목비(난방비), 석탄이나 방을 덥힐 시에는 석탄이나 나무를 사야할 돈을 내야 하고, 식비도 내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밥을 싸 가지고 다녔어요. 점심 한끼를 유치원에서 못 해줬거든요. 그해 해 주는(점심을 제공하는)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이 그만한 돈을 액수를 건넸어요.(사례 18)

3. 탁아소·유치원의 운영실태: 보육교양 중심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의 보육교양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로서, 대를 이어 혁명할 혁명위업의 계승자(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조)이다. 즉,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세계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교양하여’(제31조),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교양하는 것’(제29조)임을 II장 관련 법령에서 고찰한 바 있다.

가. 탁아소의 보육 내용

북한에서 유치원 교양원을 지낸 탈북민 여금주씨의 인터뷰에 의하면²²⁾, 젓먹이반은 특별한 교양이 없고, 모두 어린이들이 젓을 떼는 젓떼기반 2반부터 간단한 교양학습에 들어가는데 우선 일어나 앉는 연습, 서는 연습, 일정한 언어 연습 등을 배운다. 젓떼기 2반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간식을 먹는데 간식이나 점심을 먹을 때는 정면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보육원이 말하면 아이들은 보육원을 따라서 복창을 한 다음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다.

그러나 본 면담에서는 이러한 복창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일부 나왔다. 특별히 김정일 생일날에 선물을 받을 때나 그러한 복창을 하지만, 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일성 부자에게 기도) 안해요. 그 시절,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선물, 선물 준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뭐 줄 때도 있고 그때 몇 번 그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뭐 설문하고 이럴 때 좀 믿고 하니까 허튼소리 더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아이들 뭐 밥 먹기 전에 그런다. 그럴지도 않아요.(사례 6)

젓떼기반 시기가 끝날 다음 교양반과 유치원 준비반 부터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교양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된다. 김일성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김일성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등 단순한 우상화 교양이 시작된다. 다음은 유치원 준비반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노래 중 ‘빨간 복숭아’

22) 함경남도 함흥출신으로, 유치원 교양원을 지냈으며 1884년 입국함.

라는 노래말이다.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보육원은 어린 시절의 김일성이 할아버지인 김보현에게 두 손으로 복숭아를 드리는 도록판 그림을 함께 보여준다고 한다(한만길, 2006).

뒤뜰 안에 복숭아 빨간 복숭아
한 바구니 따서 담은 빨간 복숭아
제일 크고 잘 익은 것 할아버님께
원수님은 선창으로 드리셨지요

북한의 탁아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부르는 노래 속에서도 끊임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혁명가를 키운다.

갓난 아이들한테 노래로 충실성 교양을 해요. 노래로 불러주지요. 아이들한테 고저 노래만 불러주고, 노래는 다 충성 노래 특히 탁아 유치원반은 더 강하게 해요.(사례 10)

다음은 탁아소의 중급반, 높은반(유치원 준비반)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이다.

〈표 IV-3-1〉 북한 탁아소 하루일과

시간	보육내용(중급반, 높은반)
6시~8시	어린이 맞이
8시~8시30분	충실성 교양
8시30분~9시	휴식
9시~9시30분	노래와 춤
9시30분~10시	바깥놀이, 새참
11시~11시30분	오전 식사(점심)
12시~2시30분	낮잠
3시~3시30분	오후 식사
3시30분~4시30분	바깥놀이
5시	새참
5시30분~	귀가

주: 본 면담조사 사례 10 면담내용임.

나. 유치원 교양 내용

주지하다시피, 유치원은 내각의 교육성에서 담당하며 유치원의 높은반은 의무교육단계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교과서가 지급되며 교과마다 시수가 제시된다.

다음 <표 IV-3-2>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총 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노래와 춤, 놀이, 체육, 우리말 순이다. 총 시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시간을 많이 할당한다는 의미로 중요한 교과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주입식 교육보다는 놀이식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방식은 주입식이 아닌 노래와 춤, 놀이, 체육 등 신체를 주로 활용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철저히 이념지향적이고 체제지향적이다.

<표 IV-3-2>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

과목명	구분 총시수	낮은반		높은반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80	20	20	20	20
경애하는지도자 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80	20	20	20	20
우리말	120			60	60
셈세기	80			40	40
노래와 춤	280	80	80	60	60
그리기와 만들기	80			40	40
체육	160	40	40	40	40
놀이	240	80	80	40	40
관찰	80			40	40
계	1,200	240	240	360	360

주: 총시수는 시기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음.

자료: 차종환·신법타·양학봉(2009). 이것이 북한 교육이다. 나산출판사.

의무교육단계인 유치원 높은반에서는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이야기’, ‘우리말’ ‘셈세기’ ‘그리기’ ‘노래와 춤’ 등을 배운다. 높은반에서는 낮은 반에서 배운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배운다. 다만 낮은반 시기에는 어린시절 내용을 중심적인 것만 배웠다면 높은반에 올라가서는 낮은반 시기에 배운 것에 살을 붙여서 배운다. 예를 들어 낮은반에서는 어린시절 제목인 ‘군함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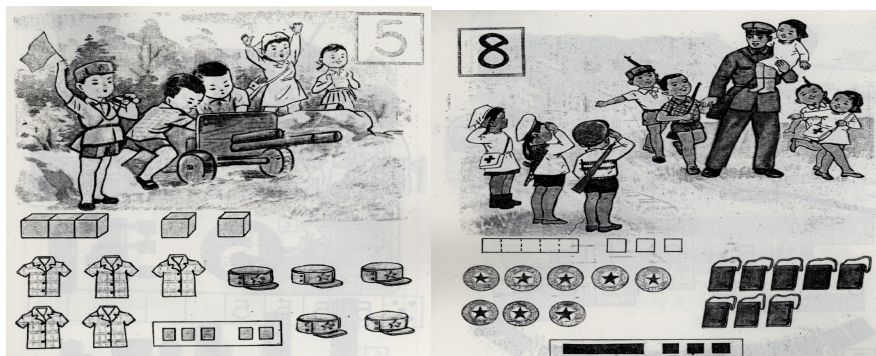
위'라면, 높은반의 제목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된다(한만길, 2006).

'우리말' 교과서(2000년 발간)의 첫 장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로 시작된다. '아아어어오오……'부터 ㄱ, ㄴ, ㄷ, ㄹ, ㅁ 순으로 각 자음이 들어가 있는 간단한 단어를 배운다. 고기, 누나, 구두, 다리, 도마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는 '포'라는 단어와 함께 군인들이 대포를 쏘는 전쟁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등 뒷부분으로 갈수록 군인이 등장인물로 자주 등장한다(그림 IV-3-1 참조).



자료: 교육도서출판사(2000). 우리말: 유치원용.

[그림 IV-3-1] 유치원교과서(우리말)의 이념교육



자료: 교육도서출판사(2001). 셈세기: 유치원용.

[그림 IV-3-2] 유치원교과서(셈하기)의 이념교육

‘셈세기’(2001년 발간)는 1~10까지 더하기, 덜기(빼기)를 배운다. 교과서는 삽화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간히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 실려있다. 예를 들어, 5라는 숫자를 배울 때 군복 모자를 그림으로 제시한다든가, 8이라는 숫자에서는 군인이 아이를 안고 웃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군인을 향해 경례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 IV-3-2 참조).

유치원 높은 반부터는 교과서가 제공되는데,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아니더라도 이처럼 군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림, 전쟁을 하는 그림을 교과서에 실음으로서 잠재적인 교육과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IV-3-3〉 북한유치원 하루 일과

시간	교육내용
8시	어린이 맞이
8시~8시30분	교실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9시	아침체조
9시~9시15분	어린이시간 방송듣기(조선중앙방송)
9시20분~ 11시30분	수업(30분 수업, 30분 휴식)
12시~1시	점심
1시~3시	낮잠
3시~3시30분	낮체조
3시30분~4시	지능교육을 위한 놀이시간
4시~4시30분	관찰 및 체육
4시30분~5시	총화(칭찬하기)
5시~5시30분	새참시간
5시30분~	귀가

주: 교원4 면담내용과 이옥실 면담내용으로 재구성

<표 IV-3-3>에서 유치원의 하루 일과에서 아침과 낮 2회 체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집단운동을 중시하다는 것으로 본 면담에서 체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체조는) 유치원 어린이들 건강운동이에요. 그런 아침 체조도 있고. 아침 출근(등원)하면 가방 두고 나오면 마당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저희 때까지는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중국에서 음향기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음향기계 음기도 틀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뽕금들고 하나 있던 말이에요. 한 20분? 아니, 한 20분은 안되는 거 같은데, 한 15분 됐는데. 그쪽 퇴장했

을 때 체조 끝나면 줄로 딱 모여 선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줄씩 들어가지요. 경기도 하는데요. 유치원 경기. 우리 때 까지는 지금 그 북한 티비(TV)보면 그 어린이 건강운동이라던가, 어린이 율동체조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제 아침 체조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유치원에서 대충 춤이나 이런거 배워주게 되는데 지금은 그 어린이 건강운동, 이런거를 유치원 경기를 하고, 아동절²³⁾, 아이들 그때는,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요. 거의 다 해요. 제일 빠르게 훈련 시켰어요.(사례 6)

북한의 유치원의 교양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유치원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교양실(연구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의 사진이 쪽 겹쳐있으며 하루는 김일성 교양실에 가서, 그 다음 날은 김정일 교양실에 가서 충실성 교양을 한다고 진술했다.

(교양실이) 다 유치원에 다 있어요. 아니 내가 처녀 때 유치원 할 때 그때가 김정일이 연구실 이라는게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새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김일성 연구실만 딱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들 충실성 교양을 김일성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난 뒤 내하고 있을 때에 김정일연구실도 또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 만들어서 다시 다 정돈해서 김정일의 어린 시절부터 쪽 이렇게 해서 다 사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김일성 충성 교양 할라고 교양실에도 가고 화요일 날에는 김정일의 충실성 교양 하러 김정일이 교양실에 들어가고 이래 했어요. 연구실 하나에 잘 꾸려서 이런 사진들 어렸을 때부터 쪽 사진이 이렇게 다 있어요.(사례 10)

다음 인용글은 두 부자의 교양실에서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충실성 교양의 일면을 보여준다.

(교양실) 가운데 이렇게 샵판이 있어요. 이런 샵판이 만약 김일성이라면 김일성이 어린 시절 자라던 만경대라면 그 만경대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샵판이 고거 그대로 잘 했어요. 그거 거기 뺄 둘러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상 놓고 쪽 앉자요. 그러면 교양원은 판대기를 쥐고 여기서 모란봉이라면 모란봉에 올라서서 어떻게 군사놀이를 하고 여기 군암바위는 어떻게, 어떻게 동무들하고 어떻게 신나게 놀았다 하고 여러분들도 수령님이 어린 시절을 따라 배워서 동무들하고 싸움하지 말고 이렇게 놀아야 되요. 이렇게 수업하지요. 그러니까 충실성 교양에 이용하기 쉽지요.(사례 10)

한편, 유치원의 방학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한달 간이다. 새학기 시작일은 2월 16일로 김정일 생일날 새학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통일한국, 2001). 그러나 방학을 해

23) 북한에서는 6월 1일은 '국제 아동절'이라 하여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의 최대 명절이다. 이 날에는 구역의 유치원 아이들이 모두 모여 체육대회를 진행한다(한만길, 2006).

도 일하는 부모의 아이를 위해 유치원에는 매일 출근하는 보모가 있다고 한다.

(질문) 일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오래(한달) 방학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 그럴 때는 일하러 나갈 때는 또 유치원도 그런 방학 동안에 매일 매일 나오는 보모 선생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런 아들을 부모들이 보호자 없는 아이들은 보호자일 나가고 없잖아요 그런 아들은 유치원 그냥 내보내요.(사례 10).

다. 교수방법

북한은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을 중시한다. 김일성은 「테제」에서 사회주의 교육은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교육방법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역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연설에서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방법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내용이 옳게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교육의 본성에 맞는 옳은 교육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인식시킬 수 없습니다.(김정일, 1984)

어린이보육교양법 제37조에서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되어 있다. 「테제」에서 제시한 교수방법 중 취학전 교육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보인다(최민수, 1998). '깨우쳐주는 방법'의 구체적인 교수방법으로 이야기·담화 형식, 문답식 방법, 직관교육·실물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일성, 1977). 그럼, 유치원에서 이러한 교수방법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유치원 높은반 교양원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관찰'교과의 '관찰지도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다.

예를 들어, '우리 유치원'이란 단원을 배울 때 예비담화 방법으로 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 다음 실물교육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외로 나가서 유치원 건물과 운동기재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또한, 유치원의 이름이 써있는 현판을 보여주면서 "유치원 이름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어린이들이 대답을 하게 하는 문답식 방법을 사용한다.

〈표 IV-3-4〉 유치원 교수방법 사례

단원명	개 요		세부 내용
우리 유치 원	교수목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들려 주신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대 하여 깊이 느끼도록 하며 유치원에 대한 표상을 주는데 있다.
	지도 내용 과 방법	예비 담화	교양실에서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해 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제일 좋은 곳에 유치원들이 잘 꾸려져 있고, 앞이 환희 트이고 해빛 밝은 곳에 자리잡고 있고, 재미나는 공 부도 하고 즐겁게 뛰놀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밖에 나가서 잘 살 펴보자.
		진행 과정	유치원건물의 생김새와 운동기재들을 보여 준다. 유치원이름을 써붙인 글을 보게하고, 우리유치원이름이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주고 어린이들의 대답을 정리해 준고, 두 번정도 따라 말하게 한다. 유치원현관우에 새겨진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고 맙습니다》라고 글을 바라보게 한다. 교양원은 이 글을 정중 히 읽어 주고 어린이들이 두세번정도 따라 말하게 한다. 유치원에 어떤 나무, 꽃, 운동기재들을 보게한다. 교양원은 나무,꽃,운동기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물음을 주어 어린이들이 모양과 위치를 료각적으로 머리에 새겨넣도록 한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나기 위하여 공부도 잘하고 운동을 많이 하여 키도 크고 몸도 튼튼 히 단련하여야 한다.
		총화	총화는 바깥에서 할수도 있으며 교양실에 들어 와서 할수도 있다. 문답의 방법으로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과 생김새, 운 동기재들을 다시 정확히 알려 준다. 다음 관찰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태도를 총화 짓는다.
	유의할 점		분유치원(분반)인 경우에는 분유치원을 보여 줄수 있다. 보여 줄 운동기재가 많을 때에는 매 대상물의 생김새를 보게 하면서 그 사명에 따르는 약간의 설명과 기재이름을 알려 주 는 정도로 지도할수 있다.

자료: 주체92(2003), 관찰지도안(유치원높은반). 교육도서출판사

라. 부모교육 실시 여부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자녀양육의 방법, 기술, 태도 등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을 교양원 출신의 면담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런 거 별로 크게 안해요. 아니에요 고저 아이가 크게 설사한다 이러면 아가 설사하는데 조금 이렇게 관심을 뒤서 집에서 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병원 데리고 가라 하지 이런 거는 있어도 무슨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사례 10)

부모교육은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으며, 북한부모에게 부모교육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았다.

아이 양육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친정)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지요.(사례 1)

북한은 아직은 뭐 아이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한다 그런 건 크게 없어요.(사례 18)

4. 보육원·교양원 양성 및 재교육

북한에서는 탁아소 교원을 보육원, 유치원 교원을 교양원이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38조에 의하면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고(제40조),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여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제42조) 하는 존재이다.

보육원, 교양원은 국가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제41조). 보육원은 주로 3개월(주간) 혹은 6개월(야간) 과정의 보육원 양성소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통신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탁아소의 보육원은 중앙의 보육전문학교와 지방의 사범학교 보육과 그리고 공장, 기업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원학교(양성소), 통신교육체계와 검정시험제도를 통하여 양성된다.

유치원 교양원은 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3년제 교원대학에서 양성되며²⁴⁾, 각 시도의 1년제 교양원 양성소에서 교양원을 배출하기도 한다(이윤상, 2004). 실제 본 연구에서 교원 사례 1이 교양원 양성소 출신이었다.

전 통신을 나왔어요. 통신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유치원 교양은 교사질을 하면서 교사, 애들을 가르치면서 방학에 두 달 동안 가서 공부하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졸업증을 저는 땀어요. 1년짜리 교양원 양

24) 3년제 교원대학에서 초등교원도 양성된다.

성소라는게 있어요. 1년 과정에, 고 1년 과정은 교양원으로써 지켜야 할 그 모든 걸 배워주거든요. 그런데 그 양성소 자격증은 대학, 대학졸업증에 비하면 밀리거든요. 대학졸업증이 오면 그 자리가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졸업증을 따야만이 자기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으니깐 제가 교양원 하면서 또 대학 졸업증 따고.(사례 3)

이옥실 면담에서도 유치원 교양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대학 학전과를 졸업해야 하며, 양성소 같은데서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통신으로라도 대학졸업증을 따야만 교양원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교원대학 과정은 모두 3년이며 교육내용은 김일성 노작 이외에 우리말 교습법, 셈세기, 교습법, 음악, 풍금, 실기, 무용, 공문강독, 문화어, 철학, 사회주의 교육학, 아동심리학을 배운다. 한편, 인민학교(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대학 사범과를 졸업해야 한다. 교원대학은 각 도에 1~2개가 있다. 교사라는 직업은 북한에서 인기있는 직업이라 한다(북한 유치원 교양원 출신 이옥실²⁵⁾ 대담내용, 통일한국 2001.12).

한편, 김일성은 「태제」에서 교원의 재교육을 강조하였다. 현직 교원들은 끊임없는 재교육을 해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보육원은 이동강습대를 통해, 교양원은 교수강습대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원의 이동강습대는 보육경험이 많고 정치실무가 준비된 일꾼으로 조직하며, 보육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상설기관으로 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기술적 실무적 지도기관이다. 또한 보육원 이동강습대는 해당 지역내의 보육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사업, 지도 및 통제, 그리고 국가자격시험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이동강습대는 탁아소를 순회하면서 보육원을 강습하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정상근무를 하면서 강습을 받을 수 있다(최민수, 1998).

교양원의 재교육은 교양원 양성대학과 시·군 교양원 양성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군에 조직되어 있는 교수강습대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수강습을 진행한다. 교수강습은 교수경험이 풍부한 교양원 중에서 강사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15일간씩 1기, 2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그 밖에 교양원들은 유치원 내에서 주·월별 발표회에 참석해야 하며, 간부는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매일 자습참여가 의무이며, 원장과 분과장은 교양원의 수업참관을 의무화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1976; 최민수, 1998 재인용).

25) 가명으로 함경북도 온선탄광유치원에서 10년동 교양원으로 재직한 북한이탈주민임.

우리 교사가 유치원에 여섯 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보름씩 이렇게 강습을 조직 해요. 방학 동안에는 강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세명이 먼저 강습을 하고 그 다음 세명이 보름동안 강습 끝나면 이렇게 맞바꿔 하지요. 시 교육대 가서 교육 시기적으로 교육요강이 새로운 게 계속 내려오니깐 교수요강이 바뀌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강습을 해요).(사례 10)

〈표 IV-4-1〉 탁아소·유치원 교원양성 및 재교육체계

	명칭	양성과정	교육기관	재교육과정
탁아소	보육원	-중앙의 보육전문학교 -지방의 고등전문학교 보육과 -공장,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학교 -통신교육체계	-3개월(주간) -6개월(야간) -6개월	보육원 이동강습대 가 주로 함.
유치원	교양원	-3년제 교원대학교 학전과 -도·시·군에 설치된 1년제 교양원 양성소 -통신교육체계	-3년 -1년 -1년	교양원 교수강습대 가 주로 함.

자료: 최민수(1996). 북한유아교육론. 문음사.

5. 소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199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30명의 면담조사 결과를 가지고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고찰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모두 40대가 주로 표집되면서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40대의 경우,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제도가 가장 완비되었던 1970~80년대에 본인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경험을 알 수 있을뿐더러 이들의 자녀가 주로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녔던 1990년대 중후반은 북한 경제난이 가중되는 시기로서 당시 탁아소와 유치원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세대는 탁아소 경험이 없는 경우가 53.8%로 더 많았으나, 자녀세대는 76.5%가 탁아소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는데 본인 연령 30대, 40대는—본인이 1970~80년대 기관을 이용함—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82.8%, 66.7%로 다수가 탁아소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인 연령 60대는 9.8%만이 탁아소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자녀의 경우, 부모연령이 40대 이상에서—자녀가 1990년대 기관을 이용함— 부모연령이 어릴수

록 자녀의 탁아소 미이용이 67.7%로 이용자 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의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치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탁아소와 유치원의 미이용 이유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탁아소 및 유치원의 미운영’, ‘자녀사망’, ‘비용부담’이 주요 이유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 부모세대일수록 ‘자녀사망’, ‘비용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 역시 1990년대 북한의 열악한 탁아소, 유치원의 실태뿐 아니라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셋째, 주로 이용한 탁아소 종류는 일일탁아소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고소득의 고학력 부모의 경우 월탁아소와 주탁아소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전문직, 고학력 부모의 탁아소 이용이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구중심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라 하겠다.

넷째, 탁아소와 유치원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전체적으로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 와서 앞당겨졌으나, 부모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기관이용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탁아소와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드는 월평균 비용은 대부분 ‘없었다’고 응답했으나 면담조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점차 증가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내 자녀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종종 있음이 드러났다.

다섯째, 북한의 탁아소, 유치원 교육목적은 한마디로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하는 효자동이, 충성동이 양성이다. 이에 유치원에는 김일성 교양실과 김정일 교양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사상, 주체사상 교육을 전제로 모든 교양교육이 실시된다.

여섯째, 북한에서는 탁아소의 교사를 보육원, 유치원 교사를 교양원이라 명명하는데 유치원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원대학 학전과 3년제를 졸업한 자격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중학교(현,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기간의 교양원 양성소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다. 자격증과 교원의 재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육원과 교양원은 전문직종이었다.

V. 북한의 가정내 양육 실태

V장에서는 북한의 가정에서 자녀를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 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출산부터 취학 전까지 북한의 영유아들은 어떠한 양육경험을 하면서 성장·발달하며 우리의 영유아와 양육경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찰하였다.

1. 주양육자

북한에서 출생한 장소를 묻은 결과, 집에서의 출생이 72.2%로 월등히 많았다. 다음이 병원 25.8%, 조산원 1.5%이다. 연령대에 따라 출생장소의 차이를 보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집에서의 출생이 많았다.²⁶⁾ 60세 이상은 집 출생이 87.8%이고 병원에서 출생이 12.2%라면, 30대 이하는 집과 병원이 각각 48.3%로 나뉘어 집에서 출생이 감소하고 병원에서의 출생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근로소득이 100원 이상 및 평안도 지역이 병원에서의 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1> 북한에서 출생장소: 부모

단위: %(명)

구분	집	병원	조산원	이웃집	계(수)
전체	72.2	25.8	1.5	0.5	100.0(198)
성별					
부	88.2	11.8	-	-	100.0(34)
모	68.9	28.7	1.8	0.6	100.0(164)
연령					
39세이하	48.3	48.3	-	3.4	100.0(29)
40대	63.3	33.3	3.3	-	100.0(60)
50대	74.3	22.9	2.9	-	100.0(35)
60세이상	87.8	12.2	-	-	100.0(74)

26) 참고로 자녀세대의 출생장소는 병원 52.8%, 집 46.5%로 병원에서의 출생이 더 많았다(표 IV-2-1 참조).

(표 V-1-1 계속)

근로소득					
수입없었음	71.2	23.1	3.8	1.9	100.0(52)
50원미만	77.3	22.7	-	-	100.0(22)
50-100원미만	77.3	22.7	-	-	100.0(66)
100원이상	65.5	32.8	1.7	-	100.0(58)
거주지					
평안도	73.1	26.9	-	-	100.0(26)
황해도	77.8	22.2	-	-	100.0(9)
함경도	71.8	25.8	1.8	0.6	100.0(163)

주: 평안도(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개성시)
함경도(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 라선특별시)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30대 어머니]

출산은 무산군민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병원에서 해산을 시켜줘요.
거기서 했어요.(사례 21)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40대 아버지]

저는 집에서 낳고 아이는 병원에서 출산했어요. (질)출산할 때 비용지원을 해 주
나요? 무상인가요? (답) 네. 다 무상이지요.(사례 14)

[집에서 자녀를 출산한 40대 어머니]

난 병원에서 안 낳고 집에서 낳았어요. 둘 다. 병원의 직원이 와서 의사가 와서.
내가 병원에 가야하는 데 병원이 무섭더라고. 집은 엄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집
에서 낳았지요. (질) 돈은 냈나요? (답) 우리는 돈 낸다는 건 없었어요.(사례 26)

응답자의 주양육자는 91.0%가 어머니라고 답했다(표 V-1-2 참조). 그런데 39세 이하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이 79.3%로 떨어지고 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이 10.3%로 증가된 특징을 보인다. 30대 부모의 대리양육이 증가하게 된 배경 역시,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일하러 나가면서 파생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생계차원에 한해서는 아니고, 전문직 여성의 경우에도 여건상 대리양육을 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대리양육의 많은 경우가 외조부모나 친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리양육자가 자녀양육을 한 경우]

남편과 함께 엄마네(친정)에서 살았으니까 (아이를) 외할머니가 계속 키워주셨어요. 이전에는 그런(처가살이)게 없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이 한창 무슨 자랄 시기 때는 없었는데 저희 시기부터 딸을 우상화 했다고 할까. 그전에는 아들만 저거하고(우상화하고) 그랬는데 95년도 이때부터 개성에는 보니까 그때부터 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국가적인 공급이 싹 끊겨가지고 그때부터 아 그래요 딸들이 부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 그때부터 어쨌든 딸들을 워 데릴사위 이

렇게 해가지고 사위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사례 11)

(질)친정어머니랑 결혼하시고 같이 사셨는데 그럼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겠어요? (답)애들 키우고 이러는 거 엄마가 많이 도와줬지 뭐. 엄마가 다 키우다시피 했지요. 탁아소가 어떤 날엔 데려 가지러 못 갈 때는 엄마가 다 거둬주고. (질)한 집에서 같이 사신 거예요?(답) 네. 엄마 같이 한 데 있었는데 아이들 맡기려 내가 시간 바빠 못 갈 때에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탁아소를 가서 다 하고…….(사례 17)

결혼하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질)장남이셨나요? (답)아니오. 외아들. 시누이가 둘이고 아들이 하나니깐. 애기 키울 때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지요. (질) 선생님은 그러면은 계속 일을 하신건가요? (답)네. 의사 생활을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어요. 한 2년을 장사해보겠다고 그만 뒀다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직장 다녔지요…….(사례 18)

한편, 대체로 근로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서 어머니의 양육비용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학교 졸업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이 86.7%로, 대졸자의 92.3%보다 낮았다.

<표 V-1-2> 북한에서 주양육자: 부모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친 인척	비혈연	계(수)
전체	4.0	91.0	0.5	2.5	0.5	1.5	100.0(199)
성별							
부	2.9	91.2	-	-	-	5.9	100.0(34)
모	4.2	90.9	0.6	3.0	0.6	0.6	100.0(165)
연령							
39세이하	3.4	79.3	-	10.3	3.4	3.4	100.0(29)
40대	1.7	93.3	1.7	3.3	-	-	100.0(60)
50대	2.9	97.1	-	-	-	-	100.0(35)
60세이상	6.7	90.7	-	-	-	2.7	100.0(75)
근로수입							
수입없었음	3.8	90.4	1.9	1.9	-	1.9	100.0(52)
50원미만	4.5	90.9	-	4.5	-	-	100.0(22)
50-100원미만	6.1	90.9	-	1.5	1.5	-	100.0(66)
100원이상	1.7	91.5	-	3.4	-	3.4	100.0(59)
학력							
소학교졸업	6.7	86.7	-	-	-	6.7	100.0(15)
중학교졸업	4.5	89.3	0.9	3.6	0.9	0.9	100.0(112)
고등전문학교졸업	4.3	95.7	-	-	-	-	100.0(46)
대학교졸업	-	92.3	-	3.8	-	3.8	100.0(26)

출산 후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전이나 후 모두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았다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무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질이 나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다는 경험자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한 사례에 그쳤다.

(질) 그리고 그 예방접종 때 아이 낳고 이제 예방접종 하잖아요. 주사 맞을 때 그런 비용 같은 것은? (답) 비용 같은 것은 안 내요. (질) 아, 2000년이면 아이가 2000년이면 그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답) 어려워도 그런 비용은 의무적인 거라 뭐 돈 내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사례 11)

네 그런건 무상으로 병원에서 하는것 같습니다.(사례 20)

아니 그런데 무상 이라는 말이 혜택이 가면은 진정은 붙게 하겠는데 대신 그렇게 하다나니까 싸구려이지요. 말하자면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돈 내고 하면 의사들도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막중하겠는데 다 무상혜택이니깐 그 대신 암암리에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뒤로는.(사례 14)

(질) 예방접종 할 때 보건서 이런데에 잘 보이려고 돈을 준 적이 있나요? (답) 예방접종은 무료로 놓아줘요. 낳아서 3일 만에 결핵예방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100일에, 홍역 이런 거는 학교에서나 집체로 놓아줘요. 돈 안내요. 무료로 놓아줘요.(사례 30)

2. 식생활

가. 수유방법

북한에서는 세대별에 상관없이 모유수유로 자녀를 양육하였다. 분유로 키운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일부 사례에서 대북아동지원사업 차원에서 지원된 분유를 배급받아 쌀과 섞어서 키운 적이 있으며 일부 부유층 가정에서는 분유를 구입해서 키운 경험자는 한 사례가 나왔다.

[모유수유]
애기 낳고 모유수유했어요.(사례 11)

다 엄마 젖으로 키우지요.(사례12)

모유 했지요. 분유 라는게 없거니와 우유 자체가 없고 비싸고 그러니까 내 모유

를 했는데 잘 먹지 못하니까 모유가 잘 안나왔어요. 애가 아주 약했었지요. (질) 그럼 모유 말고 뭐 다른 것도 같이 하셨었어요? 젖을 많이 못 먹었으면 배가 고플텐데. (답) 그때 한창 미국에서인가 적십자 단체에서 애들 한 돌 안 된 애들 우유가루? 분유가루 한 키로를 나눠줬어요. 그걸 미음같이 쌀하고 해가지고 해서 먹이고.(사례 13)

백프로 모우수유지. 뭐 먹일 게 없죠. 우유가 없으니까.(사례 16)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를 지낸 사례 18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 경우로서 부족한 모유를 대신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분유를 구입해서 수유했다고 했다.

[분유수유]

유엔 물품들이 장마당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영양 했지요. (질) 아, 분유 먹이셨어요? (답) 네. (질) 아이고 거의 처음이다. 분유는 구경도 못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셨거든요. (답) 저는 또 애를 낳아서 한 달이 되니깐 그 다음부터 모자라더라고요. 젖이 작은 분들이 많아요. 그 모자라서 그 인공영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질) 보통 모유 수유는 한 애가 몇 살까지 하는 게 좋다고 배웠나요? (답) 전 열 한 달.(사례 18)

나. 간식

자녀를 키우면서 주식 외에 간식이 크게 없었으며 사탕, 과자와 가운 군것질 문화도 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주셨어요? (답) 아 무슨 식이 없어요.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탕국이면 뭐 간식도 그 때는 먹여 본 것 같지도 않아요.(사례 21)

애들 키울 때 대부분 밥이나 그냥 뭐 죽같은 거……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북한의 현실이 그러니까 뭐 특수하게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밥이면 그만이지요.(사례 29)

가게, 가게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처럼 슈퍼나 마트 뭐 이런 큰 거에는 없고 그냥 말하자면 포장마차 식으로 조금하게 지어 놓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거예요. 그냥 그런데서 기껏 사다준다는 게 뭐 고저 사탕, 과자 이런 거, 막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건데 그런거나 그냥 아이들 간식이다 하고.(사례 11)

간식 같은 건 생각도 못하지요. (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탕 같은 거? (답) 네, 사탕 고저 그런 거나 사탕 알 수로 몇 알 사주고 그게 다지.(사례 13)

그러나 가정형편이 나은 가정에서는 집에서 짜배기, 국수 등의 간식을 만들어서 먹인 사례도 나오기는 했다.

그러니까 우리 평양에도 빵 같은 거 밀가루 음식을 잘 해줘요. 밀가루로 파배기를 튀겨주거나 그때는 또 평양에는 만두를 잘 했잖아요. (질) 평양만두 유명하지요. (답) 그렇지요. 만두 이렇게 해주거나 그 다음에 국수. 옥류관 국수 그때 국수도 가끔 가서 먹곤 해요. 옥류관에 가서.(사례 12)

3. 영유아기의 기타 다양한 경험들

가. 놀이문화

남한의 영유아들은 일찍이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데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영유아들의 놀이문화는 우리사회의 70~80년대 놀이문화 그대로인 듯하다. 놀이터도 흔치 않아서 앞마당에서 뛰어놀거나 돌맹이 던지기, 겨울에는 얼음판 놀이, 고무줄 놀이, 오제미, 숨박꼭질 등이 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였다.

북한에서는 어디 놀이터나 이런데 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집 마당에 나가서 아이들끼리 뛰놀고 고저 그런 게 고저 그때는 보통 그랬어요. 그때는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고저 놀고 이러니깐. 아이들이 고저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런 놀음이 나 놀았지. 게임같은 것은 없었어요.(사례 21)

놀이기구도 없고 놀이감도 없고……층계에서(계단에서) 그저 돌맹이 던지고 손에 쥐고 슬프게 놀았다고 할까?(사례 22)

여기는(남한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게 없어요. 그런게 없으니까 겨울이 되면서 얼음판에서 이렇게 미끄럼놀이를 해요. 여름 같은 때는 그저 길바닥에서 막 뛰어놀고, 고무줄 줄넘기도 하고.(사례23)

유치원 갔다와서 노는 게 크게 없어요.……와야 친구들끼리 모여서 숨박꼭질을 하던가, 오제미 같은 거 만들어서 던지는 놀이, 따라잡기 놀이 등 여러 가지를 해요. 그것밖에 없어요.(사례 26)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는 탁아소나 유치원에 가야만 타고 놀 수 있으며 그나마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뛰어다니며 무슨 잠자리도 잡고 지네들끼리 뭐 뛰어다니며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놀이감이라는데 동네에 놀이터가 없단 말이야. 탁아소나 유치원에만 있지. 빙빙도는 거 이케 도는 거 그 다음에 철봉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네 뛰는 거 요런 거 있었어.(사례 19)

나. 가족여행

북한에서의 가족여행은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삶이 어려운 가족은 생각도 못하고 살기도 하고, 가족과 여가를 즐기더라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말에 근처 공원으로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지요.(사례 13)

등산 그런 거 일년에 한 두 번. 학교에서 조직할 때 부모들이 따라가죠.(사례 16)

우리는 청룡 공원이란게 있어서. 우리는 해안 쪽이어서. 그쪽에서는 아이들도 데려가고. 가족끼리. 그게 아마 70-80년대는 그렇게 놀았어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주말에는 데려가서 놀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지금은 다 망테기입니다.(사례 15)

(질) 아이를 키우실 때 같이 놀이동산 놀러가거나? (답) 없죠 없죠 없어요. (질) 그럼 북한에 그런 시설이 있나요? (답) 여기처럼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그런 유흥시설이라기 보다 운동기구는 몇 개씩 갖쳐놨어요. 여기처럼 놀이터 있기는 있는데 뭐 별 뭐 크게 노는거 같지 않았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애들끼리 지네끼리 못 뛰잖아요. 그 아래에서 데굴데굴 모래나 가지고 놀고 하는 그정도지. (질) 그러면 외국의 만화영화 이런거는. (답)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94년도라 없었어요.(사례 22)

가족과의 여행은커녕 소풍도 가지 못했고, 유치원에서 일년에 두 번 가는 소풍이 아이들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지역차이 있어서 평양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자녀를 데리고 이가 볼 만한 유흥시설이 거의 없다고 한다.

애들 키울 때 애들이랑 같이 놀이동산, 가족여행, 영화 관람은 못 해봤어요. 놀이동산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애들도 유치원에나 일년에 한번 씩 등산하는 거 있어요. 여러 산에 도시락 싸가서 먹는 거. 일년에 두 번하거든요. 애들에게 그게 제일 기쁜 날이죠. 유치원 때는 같이 가서 해가지고. 가족끼리는 못 해봤어요. 갈 때도 없으니까. (질) 북한에서 대표적인 유흥시설이 어디예요? (답) 평양 쪽에 그런데야 유원지랑 있고 하니까 괜찮지만 지방은 우리 살던 데는 아이들이 유흥놀이 하는 데가 없어요. 크게 꾸려 놓은 데가 없고, 애들이 학교 운동장 가서. 학교 운동장도 크게 놀이기구라는 게 없고요 철봉대나 몇 개있고 이정도니까. 애들이 크게 놀 곳은 없어요.(사례 24)

다. 장난감과 동화책

북한에서의 장난감과 동화책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낮으면 동화책, 장난감을 사주기 보다는 탁아소에서 보고, 가지고 놀게 하였고 소득이 높으면 동화책을 사서 읽어주고, 장난감을 사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마을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화책]

동화책 거기는 애들을 위한 동화책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 보는 그림책 같은 거 그 교재나 같지요. 그런거가 뭐 보이면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이나 하는 정도인데 동화책은 따로 없어요. (질) 아예 없다라는거.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 그렇지요. 그 동화책은 애들을 위한 동화책을 따로 못 봤어요.(사례 11)

(질) 그럼 동화책, 책 같은 것도? (답) 사줬지요. 그때는 소련에서 그 무슨 백설공주. (질) 책도 읽어주시고 그랬겠네요? (답) 네,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 세대주가 또 그 아주 좋았어요.(사례 12)

그런건 북한에서 보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매수가 극히 적다나니까 그걸 불러그러면 돈주고 빌려봐야 되니다. 한국과 보니까 도서관은 무료라고 길더라고요 우리는 일체 도서관권 보재도 돈을 주고 빌려봅니다. 애들한테 책을 보여 주더라도 돈을 주고 그런데 국가책방같은데 그런 재미있는 동화책이 없고 개인들한테 있거든요 허 그러니까 더 비싸게 비싸게 해서. (질) 그럼 개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들이 책을 빌려주는거예요? (답) 네 도에 출판물관리국이라는게 있습니다. 도 출판물관리국 거기서 모든 책들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배포합니다. 매도에 그런데 여기에 명단이 올라야 됩니다. 보급원으로 명단을 올려가지고 그 증을 휴대한 상태에서 책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래야지 아무런 자격없이 책을 이래간 걸린단 말입니다. 책도 우리 도수를 크게 봅니다. 그리고 책도 어린이 동화책들도 개인들이 다 해서 하니까 저도 자식키우지만 좀 힘들어요 동화책을 마음대로 아이들이 동화책을 많이 봐야 지능이 발달되고 이러하는데 돈을 주고 빌려봐야 되니까 언제 그런데 신경을 못써요 그저 애가 잘라야 할수없이 한권 빌려주는 정도.

[장난감]

그런 거는 못 그랬어요. 장난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동화책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그게 없지. 여기 오니깐 동화책도 많고 어린 아이들 주로 놀이감도 많지만 거기, 거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사례 17)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사줘요. (질) 어머니? (답) 나 사줬어요. 자전거 그때. (답) 그리고 동네에서도 특이하게 하나니까 아이들이 그거 부러워서 막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고.(사례 12)

라. 전통 풍습: 백일잔치, 돌잔치

북한에서도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 대부분 하는 것을 나타냈다. 돌잔치는 집에서 돌상을 차려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진행한다. 우리의 돌잔치와 마찬가지로 돌잡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한다.

(질) 그 아이 백일잔치, 돌잔치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답) 네 그런 건 해줬어요.
(질) 손님들 대거 초대하고? (답) 네. 그런데 거기서는 대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라 어쨌든 제가 있을 때 까지는 다 돌잔치고 백일잔치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상이나 차리고 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뭐 기념품 사주고.
(질) 어떤 걸 사주나요? (답) 뭐, 장난감 같은 거지요. 애기니까.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기념품이라는 건 뭐 그런거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사례 11)

간단하게 요렇게 요렇게 상 놓고서 사진이나 찍어주고 하지 음 내가 그때는 몇 그 첫아이부터는 못한거 같아 그저 한 세 번째부터 했는지 그렇게 크게 뭐 못차리고 간단하게 밥에다 국수에다 오래살라고 국수 놓고 거기다 돈 놓고 뭘 쥐는 거 보자 연필 놓고 해서 이렇게 연필가지고 하면 오냐 공부잘하겠구나 뭐 이러면서 사진 찍고 사진도 그렇게 잘 비싸니까 잘 어려워서 크게 찍은거 같지 않아요.(사례 19)

백일잔치, 돌잔치 둘 다 집에서 했어요.(사례 21)

돌잔치는 했어요. 음식은 그저 여러 가지 해 놓고 집에서 친척끼리 초대해서 모여 앉아서 했어요.(사례 22)

대부분은 집에서 친인척을 초대해서 돌잔치를 하지만, 상류층 가정에서는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체로 백일잔치는 자기 집에서 다 하고 돈이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기본적으로 직급이 높은 집안에서는 큰 시내 같은 데서 많이 하지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사례 26)

4. 사교육

가. 경험 여부

북한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 연령이 젊은 30대와 100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일부 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교육의 실시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므로 고소득 가구에서 사교육을 실시한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대의 젊은 부모집단에서 사교육의 실시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의 균열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 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표 V-4-1> 자녀가 사교육 받은 정도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7	97.3	100.0(405)
연령			
39세 이하	6.5	93.5	100.0(31)
40대	4.0	96.0	100.0(100)
50대	4.1	95.9	100.0(73)
60세 이상	1.0	99.0	100.0(201)
근로수입			
수입 없었음	1.0	99.0	100.0(98)
50원 미만	-	100.0	100.0(49)
50-100원 미만	2.2	97.8	100.0(135)
100원 이상	5.7	94.3	100.0(123)
지역			
평안도	1.7	98.3	100.0(58)
황해도	-	100.0	100.0(16)
함경도	3.0	97.0	100.0(331)

면담조사에서도 대다수 탈북민들은 사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북한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고학력의 30~40대 일부 부모에서 사교육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 기를 때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와이프가 하는 일이 돼서요. 저는 크게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아이를 손품금 배워줬거든요 여자아이니까 그제 북한은 그래도 자식들을 내세우자 그러면 공부는 나이좀 들어서 공부해도 어릴 때는 다 악기를 배워줘 가지고 예능을 발달시키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 좀 돈이 좀 있고 집배경이 있는 집들은 경쟁적입니다. 자식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식을 더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딸은 손품금을 백이십만원에 샀거든요 은방울이라고 평양에서 나오는데 그 어디 외국에서 합영(?)을 해서 하는데 북한에서 은방울이라면 최고거든요 그게 백이십만원 내지 백오십만원해요 그제 그걸 처음에는 장만못하지요 그 비싼걸 어떻게 장만해요? 그래서 그제 한 칠 팔십만원 주고 손품금을 해서 연습을 시키고 아 일정한 정도 틀이 잡히고 크다 하면

그다음에 은방울 그걸 사는데 목표예요 그래 자식들도 악기배우는데 가면 은방울을 천 아이들은 아주 돈보이고 그보다 못한 악기를 치면 밀리잖아요 부모로써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뽕이 빠지게 아마 바쳐줘요.(사례 20)

제가 유치원에서 저희 아이를 따로 피아노 교육 시켰거든요. 유치원에서 오전에는 일반 아이들과 함께 공부시키고 오후에는 따로 교원 한명이 붙어서 교육을 시켜서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질) 돈을 안 내면 못 받나요? (답) 네. 북한도 같아요. 고거에(비용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건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없었어요. 저도 유치원 다닐 때는 손퐁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아무거나 다 무상이었어요.(사례 18)

나. 사교육 비용과 종류

사교육을 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인 34.6원으로 나왔으나 사례수가 적고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표 V-4-2> 사교육 월평균 비용

			단위: 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전체	34.55	44.80	(11)
연령			
39세미만	50.00	70.71	(2)
40대	25.00	50.00	(4)
50대	60.00	34.64	(3)
60세이상	-	-	(2)
근로소득			
소득없었음	100.0	-	(1)
50원미만	-	-	-
50-100원미만	33.3	57.73	(3)
100원이상	25.71	37.79	(7)
지역			
평안도	100.00	-	(1)
함경도	28.00	41.31	(10)

(질) 손퐁금을 배울 때 한달에 얼마정도 내셨나요? (답)네 글썄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그저 한달에 십만원 북한 돈으로 십만원정도일까? 큰돈이에요 십만원이면. 제가 사무원인데 국가에서 받는 돈이 그저 이천원이거든요 한달에 월급이 이천원이거든요. 이천원인데 그거가지고 하루도 못산다고 길지 않았습니까? (질)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자고 하니까 그저 십만원을 교원한테 줘야 손퐁금을 배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축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식은 키워야지 국가에서 돈은 안주지 그러니까 자기 직급가지고 돈을 번단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북한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하.(사례 20)

유치원에서 피아노 배우는 비용은 육 만원이에요. 2009년 10년도 이년 동안에. 이거는 그나마 유치원에서 유치원 안에서 교육하는 거니깐 싼 거예요. 개인 집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 배우잖아요? 피아노 선생 집에 가서 배우는 경우에는 중국 돈으로 석장씩 냈으니깐 구 만원. 한 달에. (질) 그런 경우 일주일에 몇 번 갔나요? (답)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매일 다녀요. 북한은 주말이 일요일 하루뿐이니깐 그 일요일 하루만 놓고 매일 매일. 하루에 한 시간 해요. 주로 한 시간이고.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서 배우다니니깐 한 네 시간씩은 배웠어요. (질) 하루에 네 시간씩이요? 피아노를요? (답) 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붙어있다 다니깐 개인 집에서 하는 것은 한 시간인데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은 그 정도씩 했어요. (질) 이런 것을(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 가나요? (답) 아니에요. 그 애들은 자기 교실에 자기 교육실에서 그냥 오후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낮잠도 재우고 노래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다섯 시에 집에 보내는데 저희 아이는 오후 시간이면 따로 다른 교육실에 가서 피아노 교육실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사례 18)

<표 V-4-3> 자녀가 받은 사교육의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태권도	기타 악기	풍금	중국어	계(수)
전체	18.2	27.3	36.4	18.2	100.0(11)
성별					
부	-	-	-	-	-
모	18.2	27.3	36.4	18.2	100.0(11)
연령					
39세미만	50.0	50.0	-	-	100.0(2)
40대	25.0	25.0	-	50.0	100.0(4)
50대	-	33.3	66.7	-	100.0(3)
60세이상	-	-	100.0	-	100.0(2)
소득					
소득없었음	-	-	-	-	-
50원미만	-	33.3	66.7	-	100.0(3)
50-100원미만	-	-	-	-	-
100원이상	28.6	14.3	28.6	28.6	100.0(7)

(질) 그럼, 유치원에 피아노 말고 다른 그런 교육이 있나요? (답) 네. 있어요. 바 이올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피아노 있잖아요. 일렉트로닉이라는 거. 그리고 장 기반. 악기를 주로 가르쳐요. 가야금 반도 있고, 성악반도 있고. 유치원쪽에서는 기본 예능이고요 그리고 바둑반도 있고요. 가르치는 교사는 유치원 교사예요. (질) 교사가 피아노도 가르치고, 장구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치나요? (답) 그러 니까 유치원 교양원을 선택할 때 일반 교원대학 졸업한 선생들로 교양원 배치

받지만 그 교육대학을 졸업할 때 그 자기 특기가 있잖아요. 특기가 있는 선생들은 유치원에서 서로 데리고 가거든요. 이 선생은 피아노 전공이다 손풍금 전공이다 이런 선생들로 해서 그래야만이 유치원 운영할 때 그런 특별반을 운영하거든요. 그걸 예능반이라고 하는데 예능반에 그런 선생들이 있어요.(사례 18)

5. 양육비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시 거의 대다수가 비용 부담이 없으며, 출산과 예방접종할 때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 교육의 무상지원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가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기에 탁아소와 유치원의 무상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양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가구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탁아소, 유치원뿐 아니라 학교까지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거의 유사하게 면담조사에서 나왔다.

북한에서 60년, 70년대 그때는 돈 하나도 안들었지! 양육부담 같은 건 하나도 없죠. 그때는 국가에서 다 키워줬으니까. 간식비 조금만 내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다 키워줬죠.(사례 15)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경제난이 시작되었는데, 그전엔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돈이 하나도 안들었어요. 교복도, 교과서도 공짜로 주고, 무상교육이었죠. 우리 애들 키울 때도 탁아 유치원까지는 무상이니깐 돈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큰애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엄청 부담이 컸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깐 학교에 돈을 못 주고,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개인한테 부담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 담벼락 무너지면 블록 가져와라, 사와라 요구하거든요. 또 교과서도 생산을 못하니깐 물려받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교과서도 사야 되요.(사례 2)

실지 겉으로는 무료, 의무교육이라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간다 그런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 무료교육인데 돈이 없어 왜 학교를 못갑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라자체가 경제가 못되기 때문에 교육이 경제적으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고저 그만한 비용은 다 들거든요.(사례 10)

탁아소와 유치원의 비용 외에도 자녀의 의복, 신발, 식비 등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사교육 부분에서 드러났듯이 양육비용도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첫 번째 인용글은 돈이 없어서 옷을 구입하지는 못하고 자녀가 커서 옷이 작아지면 그 때마다 형겅조각을 모아서 옷에 붙여서 입

했다는 사례이고, 두 번째 인용글은 사 줄 여유가 있어서 옷이나 먹거리를 구입한 사례로 구체적인 비용까지 나온 사례이다. 두 사례 모두 2010년, 2011년에 탈북해서 2011년에 입북한 경우로 최근의 북한 실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소소하게 어디매 돈 주는데 없고 농사일 마저 일년 식량도 모자라고 또 이런데 아이들이 신발 하나 사고 옷을 하나 살 때 아 고저 아이들이 계속 계속 쓰레기 바느질 했어요. 아들이 좀 크면은 요 조각, 요 조각 무어서 그 다음에 붙여서는 또 옷을 하나 만들고……사 입히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사지요. 맨날 고저 바느질 해서 고저 옷을 해 입혔어요.(사례 10)

(질) 학교 보내기 전에 애들 키울 때 애 키울 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드셨어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답) 내 생각에는 한 이 만원. 못하고 사면 고저 간식 사주고 하는 건 한 이 만원. 나이 어리니깐 그렇지 이제 크면 더 많이 들지요. 유치원 다니거나 학교 다니거나 돈이 많이 들어요.……(그래도 한달에 이만원은) 그렇게 부담은 안 됐어요. 아이가 어릴 때였으니깐. 그리고 아이가 만 두 돌까지 젖을 먹다 나니깐 간식도 크게 안 먹고 젖만 계속 먹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크게 돈이 든 게 없고 고저 옷이나 살 때 돈이 들고. 그런데 월급 가지고는 못 삽니다. 삼 천원인데 (질) 삼 천원인데 이 만원을 이렇게 써요? (답) 그러니까 거기서는 노임 가지고는 노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농사를 지으니깐 농사도 짓고 또 장사도 하도, 월급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나다.(사례 25)

6. 소결

북한의 가정내 양육 실태를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의 출생장소는 집에서 출생이 72.2%로 월등하게 많았고 주양육자는 91.1%가 어머니라고 대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이 79.3%로 떨어지고 대리양육이 10.3%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북한이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일하러 나가면서 파생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서의 생활 중 모유수유, 의료서비스(예방접종), 간식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질문한 결과, 북한에서는 대부분 모유수유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일부 부유층에서만 분유를 구입해서 키웠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서비스 중 예방접종은 대부분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접종하였고, 간식은 주로 사탕과 과자를 사서 먹이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어려서 먹일 수 없었고, 일부 부유층은 밀가루를 사다가

짜배기를 만들어주거나 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에서 영유아기의 기타 다양한 경험에 대해 놀이문화, 전통관습(백일잔치, 돌잔치), 가족과의 소풍이나 여행,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결과, 북한에서는 놀이터가 탁아소와 유치원에만 있고, 집 근처에는 거의 없어서 뛰어다니면서 줄넘기, 돌멩이·오제미 던지기, 고무줄놀이 등 우리가 70~80년대 주로 했던 놀이문화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 비슷한 또래의 남한 어린이들이 주로 컴퓨터, 게임, 인터넷을 하면서 지내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백일잔치와 돌잔치를 가족들 내지 이웃들과 돌상을 차려 아이를 축하해 주었다. 가족과의 소풍이나 여행은 흔하지 않은 사례로 대부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고, 주말에도 노동사업에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과 지낼 여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장난감과 동화책은 가구소득 수준의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으면 장난감과 동화책을 사지 못하거나 탁아소에서 보고 가지고 놀게 하였고, 소득이 높으면 동화책을 사서 읽어주고 장난감을 사주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부모 연령이 젊은 30대와 100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일부 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34.6%로 나왔으나 사례수가 적고 편차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다.

끝으로, 영유아기의 양육비용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한다. 출산, 양육비용에서부터 탁아소, 유치원의 비용지원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1990년 중후반부터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탁아소와 유치원은 물론, 학교에 보낼려면 부모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소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관이용 외에도 의식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본 결과, 옷을 사서 입힐 수가 없어서 천조각을 모아서 아이가 크면 덧대서 입히는 가정에서도부터 월급이상의 비용으로 구입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월 삼천원 월급을 받고 이만원의 양육비용을 쓰거나 이천원 월급으로 십만원 사교육을 하는 사례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월급(노임)은 의미없는 수치에 불과해 보였다.

VI. 통일대비 남북한 양육정책에 관한 시사점

VI장은 결론장으로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도움을 얻고자 통독의 사례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1. 연구요약: 남북한 비교 분석

가. 양육이념 및 관련 법령

북한의 양육이념은 정권 초기에는 소련의 ‘어머니-노동자 모델’이념을 수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남녀평등 사상을 기초로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이 설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양육은 미래의 노동자이며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며, 학교와 가정은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공간이며 양육은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었다. 북한의 양육이념은 1970년대에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부터는 김일성의 교시를 근간으로 양육이념을 재설정되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제5조)에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라고 양육이념의 변화를 명시하였다.

북한의 양육지원 관련 법령을 보면 1) 일하는 여성을 위한 양육지원 관련 법령으로 사회주의헌법, 노동법, 가족법 등이 있으며 2) 자녀의 출산과 의료지원 관련 법령으로 인민보건법이 있어서 전반적인 무상의료제를 표방하여 출산에 드는 비용과 예방접종은 모두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심층면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대표적인 양육지원기관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탁아소에 관한 규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이 있다. 행정체계상으로는 탁아소는 보건성, 유치원은 교육성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어린이보육교양법에 탁아소와 유치원 규정이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처럼 이원화로 인한 교육과 보육의 갈등과 대립은 없다고 한다. 한편, 2010년 12월 22일에 여성권리 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은 북한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의 지위 향상 및 국제적 관심을 반영한 사례라 하겠다.

남한의 양육이념은 북한에서처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양육이념은 없다. 남한의 정치·사회 체제의 기본 이념인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양육이념을 논할 수 있겠다. 양육이념과 관련해서 교육이념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학교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지만 ‘홍익인간’이 우리나라 교육이념이기 때문에 양육이념도 이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육관련 법령으로는 1) 일하는 여성의 양육지원 조항을 담겨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 모성보호와 자녀출산과 보건의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3) 육아지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양육의 책임자는 거의 모든 법령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모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가정단위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예방접종비용을 점차 지원하고 있으나 고액의 예방접종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지원의 대상과 지원액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모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부모부담이 큰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은 모든 육아지원기관이 국가운영이지만, 남한은 국공립보다는 민간·사립 기관의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양육정책은 경제난 등의 이유로 국가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사적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거꾸로 남한은 사적영역이었던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전환되고 다는 점이다.

나. 자녀양육관

북한 부모의 결혼과 출산관의 연구결과는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3.40점(4점 척도),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2.30점으로 북한 부모들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을 가치 있는 일이며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남한 부모의 출산관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자녀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자녀는 낳는 것을 꼭 필요하다’(55.1%), ‘자녀는 가능하면 낳는 것이 좋다’(41.5%)로 96.6%가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연구결과는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정서적 가치) 3.49점, ‘자녀가 있어서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구적 가치) 2.96점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에서는 정서적 가치를 도구적 가치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역시 남한 부모의 자녀양육관과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 2008년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대를 잇기 위해’ ‘노후의 경제적 의지’ 등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정서적·관계적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왔다. 북한에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2.92점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면담조사를 통해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거의 퇴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으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로 키우기’ 3.65점, ‘숫자와 글자 익히기’ 3.53점으로 건강하고 공부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자녀가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 질문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3.68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3.42점 순으로 응답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개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는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을 가장 많이 꼽음.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태도에서는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차원적 척도로 양육태도를 파악한 결과,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의 거부보다는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의 수용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통제와 자율에서는 분명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양육신념에서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61.8%, ‘3세까지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67.3%로 자녀양육에 있어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남한 부모들도 세대별 차이는 있었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93.3%로 찬성했다. 남북한 부모 모두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북한 부모들은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는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쳐야 한다’는 엄격한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인 중심의 가치보다는 집단 중심의 가치를 훨씬 더 중시했고, 명문대 진학보다는 자녀의 자질을 키우는 것을 더 중시하였다. 북한부모들의 이러한 양육태도, 양육신념의 결과는 남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훈육과 통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2008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보여주었다. 남한 부모들도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자란다’라는 신념에 대해 65.0%,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다’라는 체벌에 대한 신념도 8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부모가 집단중심 가치관을 중시했던 것에 반해, 남한 부모는 ‘개인중심 가치관’을 더 중시하는 차이를 보였다(김은설·최혜선, 2008). 그 밖에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3.42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움’ 2.43점으로 긍정적 정서가 더 높게 나왔다.

자녀양육 시 부부 간 양육분담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하원시키기’만 부인 부담이고 ‘밥먹고 옷입히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공부 돌봐주기’ 등 대부분은 부부공동분담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심층면담조사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설문조사 결과와 차이점을 보였다.

다. 육아지원기관: 어린이집·탁아소, 유치원

1) 제도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변천과정을 보면, 1960년대까지는 양적 확충기, 1970년대는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 확정,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제정 등으로 탁아소·유치원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1970년대 이러한 법·제도 구축을 통해 1980년대까지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1990년에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와 김정일의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를 높이 받들면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체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한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육아지원정책이 점차 강조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육아지원정책을 위한 재정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 예산은 2005년 대비 2010년 예산은 891,482백만원이 늘어났고 보육은 3,347,892백만원이 늘어나 5년 동안 각각 2.5배와 3배 만큼 예산이 증액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1975년부터 북한에서는 취학 1년 전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제도화한 데 비해 남한은 아직 미실시이다. 다만,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5세 누리과정'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 학제 정비가 필요하다면 유아교육의 취학 전 1년 학제 부분은 핵심 의제라 하겠다.

남북한 모두,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북한도 탁아소는 보건성에서, 유치원은 교육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 면담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모든 육아지원기관이 국영이고, 일당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화 제도로 인해 부처 및 양 기관 간의 갈등이나 반목은 없다고 한다.

2) 실제

본 연구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의 육아지원기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부모세대(응답자)에서 탁아소를 다닌 적이 '없다' 53.8%로 '있다' 46.2%보다 많았다. 탁아소를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만 2.68세였다. 부모세대(응답자)에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다' 57.8%로 '없다' 42.2%보다 많았고, 젊은 부모세대일수록 '있다'의 비율이 높았다(40대 유치원 경험 있다가 83.3%). 현재 40대 부모는 대개 1970년대에 유치원을 다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부모 40대의 유치원 경험이 80%이상이란 사실은 당시 북한 유치원의 높은 취원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70년대 남한 유치원의 취원율이 20% 내외였다는 점과 견주어 볼 때, 당시만 해도 북한의 유아교육제도는 분명 진일보했었다. 부모세대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만 5.91세이다.

자녀세대의 탁아소 다닌 경험은 '있다' 76.5%, '없다' 23.5%로 부모세대와는 정반대로 대부분 탁아소를 다닌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없음'이 67.7%로 훨씬 많게 나와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으로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모 연령 30대의

경우 자녀가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탁아소나 유치원을 다닌 가능성이 많음). 탁아소 미이용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58.9%, 탁아소 미운영 20.0%, 자녀사망 7.4% 순이며 특히, 자녀사망은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14.3%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 역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어려운 실정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자녀세대가 탁아소를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만 1.52세 부모세대보다 연령이 낮아졌다. 탁아소 이용 월평균 비용은 없음이 96.8%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탈북한 이 탈주민 면담조사에서 2000년 이후에는 급간식이 끊겼기 때문에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우며 부모에게 운영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진술하였다.

자녀세대의 유치원 다닌 경험은 '있다' 82.6%, '없다' 16.7%로 대다수 자녀는 유치원을 다녔으나, 부모 30대 이하에서는 '있다' 29.0% '없다' 71.0%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 미이용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42.6%, 유치원 미운영 16.2%, 비용부담 11.8%, 자녀사망 11.8% 순이며 탁아소와 동일하게 특히,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 비용부담과 자녀사망의 이유를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만 5.45세이며 북한에서는 유치원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하원시 영유아가 도보로 다니며 소요시간은 편도기준으로 10분 이내가 69.6%로 가장 많고, 20~30분도 26.0%로 적지 않았다.

참고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를 보면, 우리의 영유아들은 기관 등하원 방법으로 '기관차량 이용'이 60.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걸어서'는 28.0%로 다음을 차지했다.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걸어가기에는 멀어서'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등하원 소요시간은 10분 이하가 69.9%로 가장 많았다. 남북한의 육아지원기관의 등하원 방법과 소요시간을 통해 기관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유아 걸음으로 10분 이내 도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집 주변에 유치원이 우리보다 더 많이 설립되었음을 짐작한다. 유치원 이용 월평균 비용도 '없다'라고 92.7%가 응답해서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비 및 난방비 지원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보육교양 내용은 철저한 김일성 부자의 충실성 교육임. 자녀양육 방법, 기술, 태도 등의 부모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가정내 양육실태에서 부모세대는 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72.2%였지만,

자녀세대는 병원에서 출산이 52.8%로 집보다 더 많았다. 북한에서도 주양육자는 91%가 어머니로서 여성이 양육의 실제 책임자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어머니 양육이 79.3%로 떨어지고 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이 10.3%로 증가된 특징을 보였는데 이 역시,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나가면서 파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출산과 예방접종은 무상이며 거의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하며(분유수유를 한 경우는 면담조사에서 단 1사례만 나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의례히 해 주었다. 북한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과자, 사탕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먹어보지 못했으며, 외국만화영화, 컴퓨터 게임 역시 거의 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과의 소풍, 여행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자녀에게 장난감과 동화책을 사준 사례도 많지 않았다.

자녀에게 사교육은 대다수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면담조사에서 일부 사교육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 사교육은 피아노, 손풍금과 같은 악기 익히기와 태권도 등의 체육을 주로 하며 월평균 비용은 일반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통독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990년 9월 동서로 분단된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중심이 된 '흡수통일'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보육도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통독 후 교육·보육도 구서독의 교육·보육 제도 속으로 흡수되었다. 구동독의 교육·보육이 통일 후 서독의 것으로 흡수된 사실은 독일 베를린 유치원 원장과의 면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 전에는 서독이랑 동독의 교육정책은 완전히 많이 틀렸어요. 동독은 더 계획적이었고……그러니깐 하루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 뭘했다 다 적어야 했다면, 서독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이었어요. 서독에서는 0세에서 3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아이들을 (자유롭게)풀어두고 지켜보는 쪽이었어요.……이제 통일되고 나서 동독사람들이 오히려 서독쪽을 더 닮고 싶어서 자신들의 것을 다 버리고 서독쪽 것을 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독의 것만 이렇게 갖게 되었고 동독의 좋았던 것이 없어지고…….

요컨대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서독이 통일을 주도해 나갔고, 서독 사회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꿈꿨던 구동독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구서독은 갑자기 자국의 모든 제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윤선영, 2005), 유아교육·보육도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구서독은 일방적으로 구동독에게 자국의 유아교육·보육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을 기점으로 구서독은 유아교육·보육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며, 보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고, 서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윤선영, 2009)고 한다. 흡수통일이라고 하지만 구서독이 구동독에 대한 ‘열린’ 태도는 담당 공무원의 면담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다.

통일 이후에 서독이 동독에다가 ‘우리 제도는 다 좋으니깐 너희들 다 이렇게 받아들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서로 배울 점들이 있으니깐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서도 서독에서 동독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서쪽의 법을 다 받아들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세 미만으로는 동독이 구조가 더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섞이면서 더 장점들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3세 미만의 영아의 보육정책은 구동독이 앞서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 결과, 영아보육시설의 수가 확장되고 모든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통일은 구동독과 구서독의 교육에 대한 신념을 교육관련 당사자들 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선영(2005)에 의하면, 구동독 교사들은 구서독의 유치원과 탁아소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구서독의 영유아 교육·보육의 위상이 구동독에 비해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서독의 영유아 교육·보육 상황이 동독 교사들에게는 혼란과 무질서, 비체계적인 학습과 복종의 부족으로 보였다. 그에 반해 서독 교사들에게는 동독의 영유아 교육·보육은 자유로운 인격형성이 아닌 사회주의적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제도와 감시 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통일로 인해 구동독서독의 당사자들은 의도적 교육목표와 영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교수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였다(윤선영, 2005). 상이한 이념체제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제도에서 비롯된 이러한 차이점은 남북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러한 통독의 사례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은 민

간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보육시설(북한은 탁아소)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교류를 통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통일에 대비한 양육정책에 관한 제언

가. 정책 방향

- 1) 통일 1세대 주역은 상호 체제에 대해 적대와 증오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육성되어야 하겠다.

통일 1세대 주역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특히 남과 북의 영유아들이 문화적·정서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하여야 만이 평화롭게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2) 통일 대비 남북한 영유아 양육정책은 일방의 체제나 이념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겠다.

남과 북은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때가 한시도 없었다. 남과 북의 관계는 체제경쟁의 논리로 일관하였고, 남북한 주민들은 상호적대적 증오와 민족적 정서가 결합된 모순적인 감정만을 키워왔다. 그러나 더 이상 남북한 영유아들에게 기성세대의 상호 적대적 증오와 모순된 민족적 정서를 물려줘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 영유아들은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정책제언

1)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서 대북어린이 지원사업 추진하기

상이한 체제나 이념으로 수립된 남북한이기에 제도, 정책, 법령 등 제(諸) 사회적 토대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체제유지 및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이함, 이에 근거한 우월함은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일방의 우월성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남북한 영유아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보편적인 아동권리를 담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영유아 양육을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대북아동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지현·이연숙·심재은(2008) 연구에 의하면, 출생 30~35개월의 북한 남아의 32.2%, 여아 29.4%가 저체중이며, 이는 동일 연령대의 남한 영아의 10배 달하는 수준이며 신장에서도 북한 영유아의 키 성장지연 비율은 남한의 4~18배로 남한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북한 영유아의 신체적 격차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성장 특성상 일생의 두 번의 성장시기가 있는데 이 중의 한 시기인 영유아기의 기회를 영구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북한 영유아 대상의 영양지원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2) 통일 1세대 어린이 육성을 위해 상호 차이점 많이 알아보기

자신과 너무도 다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한의 이질성, 상이성의 실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상호 존중과 이해의 폭은 커질 것이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은, 동 시대의 대부분의 남한 어린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가난, 기아, 굶주림, 그리고 목숨을 건 (부모와의) 탈북을 경험하였다. 일상에서의 양육경험의 상이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각종 게임기, 서구만화영화와 그림책, 놀이동산이나 가족여행 등은 많은 남한 어린이에게는 친숙한 경험이지만 북한의 대부분 어린이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어린이들인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등의 군것질을 부모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사주지 않

는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담조사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양치질을 중학생이 돼서야 시작한다는 것이다(사례 2). 칫솔과 치약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잘 먹지 못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았는데 남한에 와서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면서 양치질을 매일매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많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제도권 교육·보육의 남북한의 상이성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차이점을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고 되고, 이러한 이해가 축적되는 토대에서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육아지원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 1세대 어린이 육성을 위해 상호 공통점 많이 찾아가기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남북한 양육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영유아들은 외국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성장하지만, 북한 영유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영유아가 경험하는 양육문화가 매우 이질적이라 성향이나 기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전통문화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백일잔치와 돌잔치 등 전통문화도 공유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공통점은 찾아서 키워나고, 차이점은 점차 줄여나가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사실은 자녀양육관에서 남북한 부모들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비슷한 양육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정서적 가치로 생각한다거나, 자녀양육시 통제나 거부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강하게 보인 점, 버릇없이 굴 때는 엄격한 훈육의 필요성 등에서 남북한 부모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이처럼 양육자의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 등의 환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비슷한 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일언어, 동일전통문화,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남북한 어린이들은 평화통일 1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4) 통일 1세대 어린이 육성을 위해 상호 교류하기

상대방이 자신과 얼마나 다르며 공통분모는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면서, 직접 만남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 사단법인 남북

한어린이어깨동무에서는 2004년도에 남한의 초·중학생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학생들을 직접 만남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다. 비록 1회성에 그치지만 얼마든지 남북한 어린이들의 상호 만남과 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만남의 장소를 제3국으로 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5)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통프로그램 개발하기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같은 언어사용이라고 가자 많이 응답하였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식체계가 유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매개로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동요, 또는 동화책을 남북한이 합작해서 공통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여 남북한 어린이들이 공통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매년 특정한 날을 정하여 남북한 어린이의 상호방문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한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지만 북한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다. 남북한의 어린이날을 동일한 날로 정해서 상호 간 공통점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재희·엄정애(2008). 교양원이 경험한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일과시간 운영. 유아교육학회지, 12(4), 277-297.
- 곽노의·이용자(2006). 북한 의무교육제도와 보육제도. 유아교육연구, 26(5), 53-77.
- 교육도서출판사(2000). 우리말: 유치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구경선(2007). 북한 유아교육의 실태와 진단. 선교신학, 14, 1-18.
- 김경숙(1995). 남·북한 취학전 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귀옥(2004). 북한어린이의 건강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여성분과위원회 제56차 회의자료.
- 김명남(1999). 남북한 유아교육의 실태분석. 단국대 정책과학연구, 9, 29-60.
- 김선화(2004). 지역사회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평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동계워크숍: 지역사회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전망.
- 김선화(2008). 북한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정착지원센터 모형을 중심으로.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도서출판: 나눔의 집.
- 김선화(2009). 민간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 북한이탈주민 2만영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김선화(2010).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정책세미나. 북한이탈주민재단 ·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 한국사회학회.
- 김옥경(1996). 남북한 유아교육과정 발전사에 관한 비교 고찰.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20, 301-329.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일성(1997).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 김정일(1984).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준녕·장내운(2001). 켜세기: 유치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영자(2004).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80년대): 공장과 가정의 정치사회와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자(2005a). 북한의 여성 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356-390.
- 박영자(2005b).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83-106.
- 박영자(2006).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129-162.
- 박정란(2010).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정책세미나. 북한이탈주민재단·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한국사회학회.
- 박재환(1999). 북한 유치원의 교육내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73-127.
- 성영혜·김수정(2001). 북한 보육제도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 108-133.
- 양옥승(1996). 남북한 사회의 영유아보육현황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5, 93-112.
- 양옥승(1997). 북한의 유아교육 변천사. 교육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5, 67-81.
- 양옥승·오미경(1995). 북한의 영유아보육정책. 한국영유아보육학, 2, 149-167.
- 우선균(1997). 북한어린이 수십만명이 장애자된다. 월간말 9월호.
-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 통계. 연구자료 2011-03.
- 윤선영(2005). 독일의 유아교육 현황과 개혁 방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10(1). 한독교육학회, 1-25.
- 윤지현·이연숙·심재은(2008). 북한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 및 급식관리 지원방안 모색.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이옥실(2001). 남한어린이는 '풍요로움'을 북한어린이는 '어려움'을 모른다. 통일한국, 12월호, 28-31.
- 이온죽(1990).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윤상(2004). 북한 어린이의 보육·교육 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 민주평화지문회의.

- 이은상(2001). 북한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 9, 171-195.
- 임순희·김수암·이규창(2011).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통일연구원.
- 임재택(1996). 남·북한 보육교사 및 유아교사의 양성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 97-126.
-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윤정 (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윤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윤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Ⅱ):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철(2002).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교육업적.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토론회 논문집. 조선사회과학자협회·한국아동학회·연변대학민족연구원.
- 조선여성. 주체96(2007)년 제 4호 (루게 제587호), p. 18
- 지성애·김숙자(1999).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Ⅱ -남·북한 유치원 교육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연구, 9(1), 1-23.
- 차인순(1992). 소련여성의 경제적 지위. 『여성연구』 제36호 1992년 가을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차종완·신법타·양학봉(2009). 이것이 북한 교육이다. 나산출판사.
- 최문희(2003). 관찰지도안: 유치원 높은반. 평양:교육도서출판사.
-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203-228.
- _____(1998). 북한 유아교육론. 문음사.
- 통계청(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통일교육원(2010). 북한이해.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 교육론. 교육과학사.
- _____(2006).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 함정은·이선경(2005). 유아체육교육에 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607-616.

허수경(2010). 북한출신 부모의 자녀교육 경험 연구: 남북한 교육차이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http://cesi.kedi.re.kr/>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kosis.kr/>

통계청-북한통계 사이트: <http://kosis.kr/bukhan/>

부 록

부록 1. 북한의 정치체제

부록 2. 어린이 보육교양법

부록 3. 설문지

부록 4. 면담지

부록 1. 북한의 정치체제



부록 2. 어린이 보육교양법

☐ 어린이 보육교양법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2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

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8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양하는 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12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 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 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20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험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

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젓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로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옹근 생활비를 준다.

제21조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젓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제22조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

제24조 탁아소와 유치원은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

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 시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29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조국의 릉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례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 무교육을 준다.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같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제3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장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이다.

제39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0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여성들의 일터 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

제41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보육원, 교양원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일군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42조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하는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45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46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4.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관련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해당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

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한다.

제51조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문예기관은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같은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제54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한다.

제55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같은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닭, 염소, 젖소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은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 이 법을 어겨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 3. 설문지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ID A1-4

Gallup 201116124

북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조사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북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북한에서는 가정·사회·국가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남한의 자녀양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려는 조사입니다.

○○님의 의견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지역

1. 남성(남편) 2. 여성(아내)
1. 서울 2. 인천 3. 경기

2011년 9월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회 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김 정 아
실사연구원 박 하 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 화 02-3702-2676

SQ1) 귀하는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조사 중단

일반 특성 및 북한에서의 생활

다음은 귀하와 북한에서의 배우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북한에서의 생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원 문1)-문19)는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내용임, 자녀에 대한 내용을 응답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문항		아내(부인)	남편
문1) 결혼년도		7-10 ____년	11-12 ____월
문2) 연령 2011년 현재의 만 나이를 기입해 주십시오.		13-14 만 ____세	15-16 만 ____세
문3) 최종 탈북시기		17-20 ____년 21-22 ____월 98. 해당없음	23-26 ____년 27-28 ____월 98. 해당없음
문4) 입국시기		29-32 ____년 33-34 ____월 98. 해당없음	35-38 ____년 39-40 ____월 98. 해당없음
문5) 제3국 체류 경험 (복수응답)	1. 태국 3. 중국 5. 기타(적을 것 : _____) 2. 몽골 4. 캄보디아 체류경험 없는 경우 5. 기타에 '체류경험없음'으로 응답	41-44, 45-46	47-50, 51-52
문6)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	1. 평양직할시 4. 황해남도 7. 자강도 10. 량강도 2. 평안남도 5. 황해북도 8. 함경남도 11. 개성시 3. 평안북도 6. 강원도 9. 함경북도 12. 라선특별시	53-54	55-56
문7) 최종학력	1. 무학 2. 소학교(인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3. 중학교(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4. 전문학교 또는 단과대학 중퇴 또는 졸업 5. 대학 중퇴 또는 졸업 6. 박사원 중퇴 또는 졸업	57	58
문8) 주요 직업 (북한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1. 단순노무(일용직) 5. 공무원(정부부처 근무) 2. 교양원(탁아소, 유치원) 6. 의사 3. 교원(소학교, 중학교) 7. 주부 4. 교수(전문학교, 대학 이상) 8. 기타(적을 것 : _____)	59-60	61-62

	문항	아내(부인)	남편
문9) 근로수입 (문8)에서 응답한 직업의 화폐개혁 이전 평균수입)	0. 수입 없었음 2. 50-80원 미만 4. 100-150원 미만 6. 200-300원 미만 1. 50원 미만 3. 80-100원 미만 5. 150-200원 미만 7. 300원 이상	63	64
문9-1) 화폐개혁 이후 수입	문9-1) 그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화폐개혁 이후의 월평균 수입 은 얼마였습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65-68 월 만원	69-72 월 만원
문10) 장사 경험 여부	문10)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 본 경험 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0-1)로 갈 것 2. 없다 → 문11)로 갈 것	73	74
문10-1) 월 평균 수입	문10-1) 장마당 장사로 번 월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화폐개혁 이후에 장사를 한 경우에도 화폐 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75-79 월 원	80-84 월 원
문11) 북한에서 출생장소	1. 집 3. 조산원 5. 기타(적을 것: _____) 2. 병원 4. 이웃집	85-86	87-88
문12) 북한에서 주양육자	1. 아버지 4. 외조부모 7. 기타 친인척 2. 어머니 5. 부모의 형제자매 8. 비혈연 3. 친조부모 6. 아동의 형제자매 9. 기타(적을 것: _____)	89-90	91-92
문13) 북한에서 탁아소 경험여부	1. 탁아소에 다닌 적이 있다 → 문13-1)로 갈 것 2. 탁아소에 다닌 적이 없다 → 문14)로 갈 것	93	94
문13-1) 탁아소 입학 연령	문13-1) 그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탁아소에 몇 살부터 다녔습니까?	95 세	96 세
문14) 북한에서 유치원 경험여부	1.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다 → 문14-1)로 갈 것 2.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다 → 문15)로 갈 것	97	98
문14-1) 유치원 입학연령	문14-1) 그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유치원에 몇 _____ 다녔습니까?	99 세	100 세
문15) 북한에서의 거주 형태(결혼 후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형태)	1. 독립고급주택 4. 집단공영주택 2. 단독화장실 아파트 5. 농촌문화주택 3. 공동화장실 아파트 6. 기타(적을 것 : _____)	101-102	103-104

문항		아내(부인)	남편
문16) 현재 결혼 상태	1. 미혼 또는 동거 2. 남한에서 처음 결혼 3. 북한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음 4. 북한에 배우자 있으나 남한에서 재혼 5. 북한에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6.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음 7. 제3국에 배우자 있으나 남한에서 재혼 8. 제3국에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9. 기타(적을 것 : _____) 문16)은 응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05-106	107-108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

다음은 귀하와 북한에서의 배우자의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아내(부인)	남편
문17) 현재 직업	1. 단순노무(일용직) 2. 사무직 3. 전문직 4. 기술직 5. 자영업 6. 학생 7. 주부 8. 무직 9. 기타(적을 것 : _____)	85-6	7-8
문18) 현재 가구 수입	0. 수입 없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9
문19)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10

북한에서 출산한 자녀 특성

문항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문20) 총 자녀수		11명		
문21) 자녀 연령	2011년 현재의 만 나이를 기입해 주십시오.	12-13 만 세	14-15 만 세	16-17 만 세
문22) 자녀 성별	1. 남자 2. 여자	18	19	20
문23) 자녀 출생 국가	1. 북한 2. 남한 3. 중국 4. 태국 5. 몽골 6. 캄보디아 7. 기타(적을 것: _____)	21-22	23-24	25-26

문24) 자녀 출산 장소	1. 집 2. 병원 3. 조산원 4. 기타(적을 것: _)	27-28	29-30	31-32
문25) 자녀 상태	1. 생존 2. 사망	33	34	35
문26) 자녀 입국 시기	입국하지 않은 경우 '9998'로 기입해 주십시오.	36-39 년	40-43 년	44-47 년
문27) 자녀입국시 어머니 동반여부	1. 어머니와 같이 입국함 → 문28)로 갈 것 2. 어머니와 따로 입국함 → 문27-1)로 갈 것 3. 입국하지 않음	48	49	50
문27-1) 자녀를 동반 사람	문27-1)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자녀는 누가 보았습니까? 1. 자녀의 친아버지 4. 자녀의 외조부 7. 기타(적을 것: _) 2. 부모의 형제자매 5. 기타 친인척 3. 자녀의 친조부모 6. 비혈연 지인(친인척 아닌사람)	51-52	53-54	55-56
문28) 북한에서 탁아소 이용 상태	문28) 귀하의 자녀는 북한에서 탁아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28-2)로 갈 것 2. 없다. 문28-1)로 갈 것	57	58	59
	문28-1) 자녀가 탁아소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 비용부담이 커서(도시락을 싸갈 여유가 없어서) 3.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휴원, 폐원 등) 4. 집에서 떨어져서 5. 기타(적을 것: _) 응답 후 문29)로 갈 것	60-61 66	62-63 67	64-65 68
	문28-2) 귀하의 자녀는 몇 살 때부터 탁아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만 세부터	만 세부터	만 세부터
	문28-3) 귀하의 자녀가 이용한 탁아소는 어떠 했습니까? 1. 일탁아소 3. 월탁아소 2. 주탁아소 4. 기타(적을 것: _)	69	70	71
	문28-4) 귀하의 자녀가 이용한 탁아소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1. 직장탁아소 3. 농장탁아소 2. 지역탁아소 4. 기타(적을 것: _)	72	73	74
	문28-5) 귀하의 자녀는 탁아소를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했습니까?	오전 7:00 ~ 7:30 시 오후 7:30 시	오전 7:30 ~ 8:00 시 오후 8:00 시	오전 8:00 ~ 8:30 시 오후 8:30 시
	문28-6) 귀하의 자녀가 다닌 탁아소의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이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87-90 월 원	91-94 월 원	95-98 월 원

다음은 귀하가 북한에서 출산한 자녀의 특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출생순서대로 3번째 자녀까지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문29) 북한에서 유치원 이용 실태	문29) 귀하의 자녀는 북한에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29-2) 로 갈 것 2. 없다 문29-1) 로 갈 것	C5	6	7
	문29-1)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1.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 비용부담이 커서(도시락을 싸갈 여유가 없어서) 3. 유치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휴원, 폐원 등) 4. 집에서 멀어서 5. 기타(적을 것 : __) 응답 후 문30)으로 갈 것	8-9	10-11	11-12
	문29-2)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에 몇 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만 세부터	13 만 세부터	14 만 세부터	15 만 세부터
	문29-3) 집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도보 거리 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 10분 이내 2. 20~30분 3. 40~50분 4. 50분 이상	16	17	18
	문29-4)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을 하루에 몇 시부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했습니까? 오전 ^{19:20} 시 ~ ^{21:22} 시 오후 ^{21:22} 시 오전 ^{23:24} 시 ~ ^{25:26} 시 오후 ^{25:26} 시 오전 ^{27:28} 시 ~ ^{29:30} 시 오후 ^{29:30} 시	오전 ^{19:20} 시 ~ 오후 ^{21:22} 시	오전 ^{23:24} 시 ~ 오후 ^{25:26} 시	오전 ^{27:28} 시 ~ 오후 ^{29:30} 시
	문29-5) 귀하의 자녀가 다닌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 은 얼마였습니까?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1-34 월 원	35-38 월 원	39-42 월 원
문30) 사교육 여부	문30) 북한에서 자녀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30-1) 로 갈 것 2. 없다 → 문31) 로 갈 것	43	44	45
문30-1) 사교육 비용	문30-1) 사교육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 은 얼마입니까?	46-49 월 원	50-53 월 원	54-57 월 원
문30-2) 사교육 종류	문30-2) 귀하의 자녀가 받은 사_____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피아노 3. 기타(guitar) 5. 기타(적을 것 : __) 2. 태권도 4. 풍금	58-61, 62-63	64-67, 68-69	70-73, 74-75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방식

다음은 귀하가 북한에 계실 때, 가졌던 가치관과 양육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당시를 기준으로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원 문31)-문38)은 현재의 생각이 아닌 응답자가 북한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응답받을 것.
문39)은 현재 남한에서의 만족도를 응답받을 것.

문31) 귀하가 북한에 계실 때,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2	3	4	D5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1	2	3	4	6
3)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	1	2	3	4	7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8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9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	2	3	4	10
7)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1	2	3	4	11
8)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1	2	3	4	12
9)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다	1	2	3	4	13
10)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하므로 부모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1	2	3	4	14

문32) 귀하는 북한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다음의 제시된 항목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비교적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녀로 키우기	1	2	3	4	15
2) 국가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키우기	1	2	3	4	16
3) 기본생활습관 익히기(예:규칙적인 기상·취침, 바른식사에절 등)	1	2	3	4	17
4) 숫자와 글자 익히기(기본학습)	1	2	3	4	18
5) 외국어 배우기 (중국어, 영어 등)	1	2	3	4	19
6)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1	2	3	4	20

문32-1) 문32)의 보기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1	2순위	22
-----	----	-----	----

문33) 귀하는 북한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부모로서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나.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3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1	2	3	4	24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5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6
5)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7
6) 취미나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8

문33-1) 문33)의 보기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9	2순위	30
-----	----	-----	----

문34) 귀하가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귀하의 **양육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1	2	3	4	31
2)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 본 적이 있다	1	2	3	4	32
3)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1	2	3	4	33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	1	2	3	4	34
5) 자녀로 하여금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35
6) 자녀는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1	2	3	4	36
7)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37
8)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율을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엄격하게 지도한다.	1	2	3	4	38

문35) 다음은 자녀양육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구분에서 제시된 두 보기 중

귀하가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귀하가 생각했던 바와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보 기	응답란
1)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1.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2.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39
2)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1.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2.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	40
3) 훈육	1. 버릇없이 굴 때에는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2.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41
4) 아이의 능력 개발	1. 아이의 능력은 타고난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2. 아이의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42
5)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1.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 2.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	43
6)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1.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44
7) 국가의 책임	1.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2. 자녀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45

문36) 귀하가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느꼈던 정서(감정)**에 대해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1	2	3	4	46
2) 아이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1	2	3	4	47
3)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1	2	3	4	48
4)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1	2	3	4	49
5)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1	2	3	4	50

문37) 귀하가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귀하의 배우자는 **자녀 돌보기를 어떻게 분담**하셨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마. 구 분	전적으로 남편분담	대부분 남편분담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분담	전적으로 부인분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돌봄	
1) 밥 먹고 옷 입는 것	1	2	3	4	5	6	51
2) 함께 놀아주기	1	2	3	4	5	6	52
3) 아플 때 돌봐주기	1	2	3	4	5	6	53
4)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	2	3	4	5	6	54
5) 탁아소·유치원 등·하교시키기	1	2	3	4	5	6	55

문38) 귀하가 북한에 계실 때, **부부간 성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1	2	3	4	56
2)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7
3)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1	2	3	4	58
4)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1	2	3	4	59
5)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1	2	3	4	60

문39) 귀하는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원 이 문항은 현재 남한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임.

사.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1	2	3	4	61
2) 현재 자녀성장 모습에 대한 만족도	1	2	3	4	62

남북한 영유아의 차이점과 공통점

다음은 남북한 영유아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40) 귀하는 현재 남북한 어린이의 일반적 성향(기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한 어린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북한 어린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1	2	3	4	63
2) 남한 어린이는 다정다감하지만(유약하지만), 북한 어린이는 무뚝뚝하다(거칠다)	1	2	3	4	64
3) 남한 어린이는 부모 의존도가 높지만, 북한 어린이는 자립심이 강하다	1	2	3	4	65
4) 남한 어린이는 북한 어린이에 비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많다.	1	2	3	4	66
5) 남한 어린이는 청결을 중시하는 데 비해 북한 어린이는 위생관념이 약하다.	1	2	3	4	67

문41) 귀하는 현재 남북한 어린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차이가 큰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68-69	2순위	70-71
-----	-------	-----	-------

- 경제적 격차로 북한 어린이는 영양결핍, 남한 어린이는 풍요로움으로 인한 신체적 차이
- 체제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나타나는 사고방식의 차이
- 북한의 공교육(보육)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학습능력의 차이
- 북한의 컴퓨터 보급의 미비, 놀이시설의 부족 등에 따라 나타나는 놀이경험의 차이
- 북한과 달리 남한 어린이는 어릴 때 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
- 기타(적을 것 : _____)

문42) 귀하는 현재 남북한 어린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2-73

1. 한민족이라는 동질의식
3. 동일한 전통문화
- 5.기타(적을 것 : _____)
2. 같은 언어 사용
4. 통일에 대한 염원

문43) 귀하는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탁아소)에서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는 교육과정(교육활동)이 다음 중 무엇입니까?

74-75

1.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체조 개발, 보급
2.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 개발, 보급
3.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책 개발, 보급
4.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 개발, 보급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44)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어린이의 양육에 관한 의견이나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76-78

지금까지 오랜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 접 후 기 록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	-
주소	도/시	시/군/구		
조사원 이름		ID		79-83
Supervisor		검 증 원		
84-86				

부록 4. 면담지

북한의 양육관 및 양육실태 질문지

가. 자녀 가치관

1. 귀하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결혼관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2. 귀하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출산관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개인차가 있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학력, 직업, 성별, 경제적 능력)
3. 귀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참고로 남한은 2명이 가장 많습니다.)
4. 귀하는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까? (참고로 최근 남한의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여성관 및 남녀평등 실제

1. 귀하가 보시기에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중 또는 주말에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 직장에서는 수유시간을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등
2. 귀하는 결혼 후 시부모(또는 친정부모)를 모시고 사는지(대가족), 부부끼리만(핵가족) 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남한에서는 결혼 후에도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친정 또는 시댁에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는 결혼 후 어떠하십니까?

다. 출산과 양육

1. 출산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2. 출산 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어느 쪽이었습니까? 귀하의 출산방식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3. 모유수유와 분유, 어느 쪽이었습니까? 귀하의 수유방식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4. 북한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시, 담당 관리에게 청탁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비용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5. 천 기저귀와 1회용 기저귀, 어느 쪽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기저귀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6. 100일 잔치나 돌잔치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장소, 초대 손님 범위, 비용, 음식종류 등) 말씀해 주십시오.
7.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에게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사주셨습니까? 자녀가 좋아했던 장난감이나 만화 주인공 인물은 무엇입니까?
8. 취학전 아이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놀니까?(놀이문화)
9. 자녀를 키우실 때, 귀하는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이나 가족여행, 영화 관람은 종종 하셨습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유흥시설은 어디입니까? 외국의 만화영화가 상영되나요?
10.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에게 어떠한 음식을 주로 해 주셨습니까? 아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했습니까?
11. 취학 전 아이를 키울 때 대개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셨습니까? 소득(월급)에 비해 양육비용이 부담이 컸습니까?
12. 학교에서 교과과정이나 특강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교육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3.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시 도움을 받은 통로(어머니, 이웃, 책 등)가 있으십니까?

라. 자녀에 대한 기대

1. 귀하는 실제로 자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충성심이나 복종심을 가르쳤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가 성장해서 개인적 출세나 성공(예: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고 졸업 후 고급관료가 되는 것)을 중시했는지 아니면, 위대한 수령님을 만드는 집단의식의 고양을(사회적 가치) 더 중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했습니까?

3. 귀하는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자녀 성별에 따라 달랐습니까?
4. 귀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5. 귀하는 자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했습니까?
6. 북한에서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 일하는 여성(직장세대)의 양육지원

1. 귀하는 결혼과 출산이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까? 북한에는 결혼한 여성이 무조건 경제활동에 참여합니까?
(남한의 미혼·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0% 정도임)
2. 귀하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까? 북한에서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3.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 취업시 주 양육자(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는 누구였습니까?
4. 국가는 부모가 탁아소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합니까?
5. 탁아소 이용자는 주로 맞벌이 가구(직장세대)입니까?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가두여성)도 탁아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한다면, 맞벌이 가구와의 차이가 있습니까?(예: 이용 비용 등)
6. 탁아소의 일반적인 운영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일, 주, 월 탁아소의 형태, 탁아소 시설, 탁아소 운영시간, 급간식, 이용 아동의 연령별, 보육내용 등
7. 북한에서 보모인건비(월급)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 유아 교육

1. 자녀가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유치원명을 말씀해주십시오.
 - 2)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북한에서는 모든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닙니까?

- 1) 그렇지 않다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 입니까?
3. 북한에서 다녔던 유치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 2) 비용
 - 2) 운영시간(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까지 하는지)
 - 3) 유치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들
 - 4) 유치원에서 식사는 하루에 몇 번 나오나요?
 - 5) 유치원의 교원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6)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부모대상으로 실시합니까? 실시한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실시 횟수는 몇 번 입니까?
4. 사교육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사교육 종류
 - 2) 비용
 - 3) 남한처럼 학원이 있는지 또는 개인교습인지 등
5. 조기교육(선행학습; 남들보다 먼저 학교에서 배울 교과내용을 익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조기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6. 귀하는 북한에서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 공식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한에서 부모교육을 받으셨다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가 보시기에 양육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양육관 및 양육실태 질문지

가. 자녀 가치관

1. 귀하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결혼관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2. 귀하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출산관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개인차가 있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학력, 직업, 성별, 경제적 능력)
3. 귀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참고로 남한은 2명이 가장 많습니다.)
4. 귀하는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까? (참고로 최근 남한의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여성관 및 남녀평등 실제

1. 귀하가 보시기에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중 또는 주말에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 직장에서는 수유시간을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등
2. 귀하는 결혼 후 시부모(또는 친정부모)를 모시고 사는지(대가족), 부부끼리만(핵가족) 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남한에서는 결혼 후에도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친정 또는 시댁에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는 결혼 후 어떠하십니까?

다. 출산과 양육

1. 출산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2. 출산 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어느 쪽이었습니까? 귀하의 출산방식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3. 모유수유와 분유, 어느 쪽이었습니까? 귀하의 수유방식이 북한에서 일반적입니까?

4. 북한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시, 담당 관리에게 청탁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비용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5. 천 기저귀와 1회용 기저귀, 어느 쪽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기저귀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6. 100일 잔치나 돌잔치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는지(장소, 초대 손님 범위, 비용, 음식종류 등) 말씀해 주십시오.
7.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에게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사주셨습니까? 자녀가 좋아했던 장난감이나 만화 주인공 인물은 무엇입니까?
8. 취학전 아이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놀니까?(놀이문화)
9. 자녀를 키우실 때, 귀하는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이나 가족여행, 영화 관람은 종종 하십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유흥시설은 어디입니까? 외국의 만화영화가 상영되나요?
10.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에게 어떠한 음식을 주로 해 주셨습니까? 아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했습니까?
11. 취학 전 아이를 키울 때 대개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셨습니까? 소득(월급)에 비해 양육비용이 부담이 컸습니까?
12. 학교에서 교과과정이나 특강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교육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3.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시 도움을 받은 통로(어머니, 이웃, 책 등)가 있으십니까?

라. 자녀에 대한 기대

1. 귀하는 실제로 자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충성심이나 복종심을 가르쳤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가 성장해서 개인적 출세나 성공(예: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고 졸업 후 고급관료가 되는 것)을 중시했는지 아니면, 위대한 수령님을 만드는 집단의식의 고양을(사회적 가치) 더 중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했습니까?
3. 귀하는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자녀 성별에 따라 달랐습니까?
4. 귀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5. 귀하는 자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했습니까?
6. 북한에서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 일하는 여성(직장세대)의 양육지원

1. 귀하는 결혼과 출산이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까? 북한에는 결혼한 여성이 무조건 경제활동에 참여합니까?
(남한의 미혼·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0% 정도임)
2. 귀하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까? 북한에서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3.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 취업시 주 양육자(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는 누구였습니까?
4. 국가는 부모가 탁아소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합니까?
5. 탁아소 이용자는 주로 맞벌이 가구(직장세대)입니까?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가주여성)도 탁아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한다면, 맞벌이 가구와의 차이가 있습니까?(예: 이용 비용 등)
6. 탁아소의 일반적인 운영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일, 주, 월 탁아소의 형태, 탁아소 시설, 탁아소 운영시간, 급간식, 이용 아동의 연령별, 보육내용 등
7. 북한에서 보모인건비(월급)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 유아 교육

1. 자녀가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유치원명을 말씀해주십시오.
 - 2)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북한에서는 모든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닙니까?
 - 1) 그렇지 않다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3. 북한에서 다녔던 유치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 2) 비용
- 2) 운영시간(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까지 하는지)
- 3) 유치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들
- 4) 유치원에서 식사는 하루에 몇 번 나오나요?
- 5) 유치원의 교원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6)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부모대상으로 실시합니까? 실시한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실시 횟수는 몇 번입니까?
4. 사교육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사교육 종류
 - 2) 비용
 - 3) 남한처럼 학원이 있는지 또는 개인교습인지 등
5. 조기교육(선행학습; 남들보다 먼저 학교에서 배울 교과내용을 익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조기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6. 귀하는 북한에서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 공식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한에서 부모교육을 받으셨다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가 보시기에 양육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보고 2011-19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85-1 93330